

리아호나



오늘날의
시온 건설, 4, 20쪽
렌런드 장로를 만나다, 14쪽
청소년과 어린이를 가르치는
여덟 가지 열쇠, 28, 30쪽
성약과 성전 예배: 하나님과의
관계를 돈독하게 하기, 32, 36쪽



“만물이 하나님인
계심을 나타내나니,
참으로 지구와 그
위에 있는 모든 것과
또한 그것의 움직임과
또한 규칙적인 형태로
움직이는 모든 행성도,
지고하신 창조자가
계심을 증거하느니라.”

앨마서 30:44

은하게 사진. 미국 와이오밍
주 잭슨 레이크에서 촬영.



메시지

4 제일회장단 메시지:
우리 선조들이 가졌던 신앙에
부끄럽지 않게 생활하십시오
토마스 에스 몬슨 회장

7 방문 교육 메시지:
부모가 될 잠재력



표지

앞표지: 혼자가 아니요, 미네르바 테이처트
앞표지 양쪽 사진: 로이스 베어
뒤표지 양쪽 사진: 가이 코헨

특집 기사

12 교사 평의회가 불러온 변화
샌드라 커텔
교사 평의회에서 나온 한 가지
조언이 공과를 완전히 바꾸어
놓았다.

14 데일 지 렌런드 장로: 충실한 종
쿠엔틴 엘 쿡 장로
새로 부름받은 사도인 렌런드 장로는
평생에 걸친 봉사를 통해 주님께서는
그분이 부르시는 자들에게 필요한
능력을 주신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

20 인도에서 시작하여 개척자로 걸어온
나의 여정
망갈 단 딥티가 존 샹토시
뮤랄라에게 구술한 내용
인도의 한 시골에서 자란 “밀림의
소년”이 침례를 받고 한 사도와
가까워지기까지, 주님께서 그의 삶에
놓으신 자수는 그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아름다웠다.

24 사르밧의 과부처럼: 금식 현금의 기적

포 니엔 (펠리페) 처우와 페트라
처우

우리는 가난하고 궁핍한 사람들을
돕고 싶었다. 그리고 동시에 우리는
우리 가족이 이기적인 성향을 이겨
내기를 바랐다. 우리는 금식 현금을
냄으로써 해결책을 찾았다.

36 성약을 지킴으로써 하나님을 영화롭게 합시다

조셉 더블유 시타티 장로
우리가 모든 구원의 성약과 의식을
맺고 지켜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를
돈독히 할 때, 우리는 그분을 찬미하는
것입니다.

교회 본부 기사

8 현대의 선지자와 사도들이 말씀하다: 종교의 자유를 위하여

10 그리스도에 대하여 이야기하며 가치관이 다른 사람 사랑하기 의명

28 구주께서 보여 주신 방법으로 가르침: 여러분이 가르치는 청소년을 이해한다

30 구주께서 보여 주신 방법으로 가르침: “너희의 어린 자들을 보라” —어린이를 가르치는 법 배우기

32 복음 고전: 성전 예배—하나님을 아는 열쇠 매리온 디 행크스 장로

40 후기 성도의 소리

80 우리 다시 만날 때까지: 영적인 악어 보이드 케이 패커 회장

청년 성인



48

44 조기 귀환에 관한 대처

제니 롤린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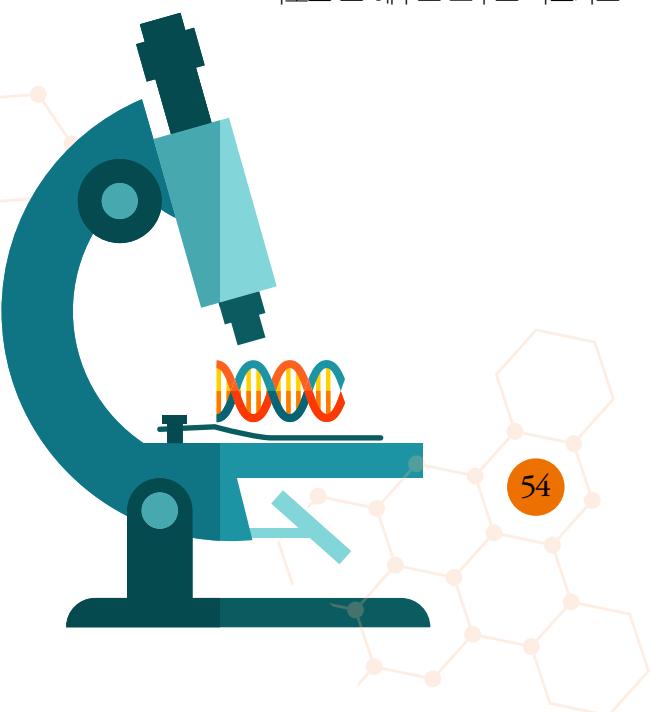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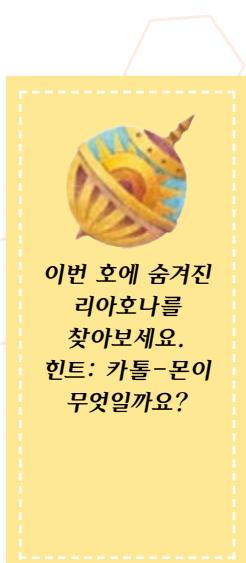
선교 사업에서 조기에 귀환한 일은 끔찍했다. 내가 사랑하는 이들과 나 자신이 알았다면 좋았을 사항 몇 가지를 소개한다.

48 청년 성인 소개:

프랑스에서 굳건하게 생활하기

민디 앤 셀루

피에르는 프랑스 군에서 복무하면서 신앙의 모범이 되기 위해 기도와 경전 공부에 의지했다.



청소년

50 교회 지도자들의 답변:
성전 축복을 정당하게 요구하는 방법
로널드 에이 래스번드 장로

51 해답을 찾아서:
로맨틱한 감정? 오늘날의 기적?

52 친구들의 압력, 그리고 맥주
키아라 블랑코
나는 친구들과 파티에 갈 수 있게
해 달라고 부모님을 계속 졸랐다.
결국 부모님이 허락하셨을 때,
나는 부모님이 오셔서 나를 데리고
가시기를 기도했다.

54 과학, 그리고 진리를 향한 탐구
알리시아 케이 스탠튼
과학 시간에 배운 것들이 복음과
어떻게 양립할 수 있는지 걱정되는가?

58 준비하십시오, 그리고 실행하십시오
우고 이 마르티네스 장로
주님께서 가지고 계신 비전은
여러분이 직접 가족 역사, 성전,
그리고 선교 사업을 수행하는 것이다.

60 구주를 기억하여
에릭 머독
항상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겠다는
약속을 지킴으로써 오는 다섯 가지
축복

64 포스터:
마음이 다른 곳에 가 있습니까?

65 나는 어떻게 알게 되었는가:
세상에 빛이 되는 법을 배우다
빅토르 드 헤수스 크루스 바르가스

어린이



70

66 네가 누구이든
린다 데이비스

“오, 이런”, 앤디는 생각했다. “나는
우리 가족에게 인봉되지 못했는데
그럼 어떻게 되는 거지?”

68 클래런스 VS. 챔피언
로리 풀러

모두들 지혜의 말씀에 나온 말이 정말
맞는지 확인하기 위해 클래런스의
경기를 보러 왔다.

70 자신감을 가지고 당당하게 생활하는
어린이들: 친구와 신앙
멜리사 하트

72 사도들의 답변:
선교사는 어떻게 부름받나요?
엠 레셀 밸라드 장로

73 질문 있어요
엄마, 아빠가 말다툼하시면, 몹시
걱정되고 슬퍼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74 몰몬경의 영웅:
용감한 모로나이 장군

75 나는 몰몬경을 읽을 수 있어요

76 몰몬경 이야기:
모로나이 장군의 깃발

79 음악:
개척자 어린이들에 대해 들을 때면
제니스 캡 페리

2016년 7월호, 제53권, 제7호

리아호나 13287 320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의 한국어판 잡지

제일회장단: 토마스 애스 몬슨, 헨리 비 아이어링, 디터 에프 우흐트도르프

심야나이도 정원학: 레슬 엘 벨스, 랠린 에이치 올스, 엘 러셀 벨라드, 로버트 디 헤일즈, 제프리 알 헐런드, 데이비드 애이 베드나, 쿠엔틴 앤 쿠, 디 토드 크리스토퍼슨, 날 앤 앤더슨, 로널드 애이 레스번드, 게리 이 스티븐슨, 데일 지 렌런드

편집인: 조셉 더블유 시타티

부편집인: 제인인 비 마리티노, 캐럴 에프 멕공기

고문: 케이 에쉬튼, 랠린 케이 베넷트, 크레인그 애이 카든, 헤럴 애이 에스플린, 크리스토벌 굽든, 더글라스 디 흄스, 래리 일 로렌스, 캐롤 앤 스티븐스

관리 책임인자: 제프리 애스 오어

운영 책임인자: 빈센트 애이 본

교회 잡지 책임인자: 앤리 알 로이보그

비즈니스 관리자: 가프 캐넌

관리 편집인: 알 발 존슨

관리 부편집인: 라이언 카

부출판인: 메간 사이먼 카

기사 작성 및 편집 팀: 브리트니 비에티, 데이비드 닉슨, 데이비드 애이 에드워즈, 로리 폴러, 게릿 에이치 가프, 라린 포터 건트, 질 크리스틴 헤킹, 살빛 라카발, 마이클 알 모리스, 애릭 비 머독, 셀리 존슨 오데크로, 앤수자 제이 페끼, 잭 봉보로우, 리차드 앤 풀리, 민디 앤 셀루, 폴 벤덴버그, 머리사 윗슨

관리 미술 책임인자: 제이 스코트 크루센

미술 책임인자: 테드 일 피터슨

디자인: 저넷 앤드류, 페이 피 앤드류스, 맨디 엠 벤틀리, 시 킴볼 보트, 토마스 차일드, 네이트 진네스, 클린 험클리, 애릭 피 존슨, 수잔 루프그伦, 스콧 엠 우이, 마크 더블유 로글슨, 브로드 테어, 케이 니콜 워크호스트

지적 재산 고디네이터: 블록터 네베거 오온

제작 부장: 제인 앤 피터슨

제작 팀: 콘니 바소프 브릿지, 줄리 버넷, 캐리 던컨, 브라이언 더블유 저지, 드니스 커비, 지니 앤 넬슨, 가일 태티 리퍼티

사진 인쇄: 제프 앤 마틴

인쇄 책임인자: 크레이그 케이 세지위크

배부 책임인자: 스티븐 앤 크리스텐슨

미국, 캐나다 외 지역에서는 store.lds.org에서, 또는 현지의 교회 배부 센터, 혹은 외도, 지부 지도자에게 리아호나를 신청하거나 구독료를 문의하십시오.

통장: 제604호, 제53권, 제7호

등록: 1967년 10월 4일, 라-3166

발행일: 2016년 7월 1일(월간지)

발행인: 정동환

편집 및 번역 책임인자: 백길환

발행소: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

서울특별시 종로구 자하문로 152

인쇄인: 한국학술정보(주) 체준

리아호나 신청 및 문의

홈페이지: <http://liahona.or.kr>에 접속하여 신청합니다.

이메일: liahona-korea@ldschurch.org으로 신청서를 전송합니다.

("교회 잡지 구독 신청서(Excel)"은 www.lds.or.kr "풀물상" → 교회 잡지 구독"에서 다운로드합니다.)

전화: 리아호나 담당자에게 연락해 주십시오.(전화 070-4816-2500)

구독료

1년 구독료는 7,000원, 권당 가격은 700원입니다.(해외 구독은 개별 문의 바랍니다.) 아래 계좌로 입금해 주십시오.

예금주: (제)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

신한은행 100-001-389810, 우체국 010041-01-000240

원고와 문의 사항은 liahona.lds.org에 온라인으로, 또는 liahona@ldschurch.org에 이메일로 보내시거나 다음 주소로 우편해 주시기 바랍니다. 리아호나 2420, 50 E. North Temple St., Salt Lake City, UT 84150-0024, USA.

리아호나 "나침반" 쪽은 "지시기"를 뜻하는 몰론경 용어는 한국어 외에 다음 언어로 출판됨: 그리스어, 네덜란드어, 노르웨이어, 덴마크어, 독일어, 리트비아어, 러시아어, 루마니아어, 리투아니아어, 마다가스카르어, 마살어, 베트남어, 불가리아어, 비슬라마어, 사모아어, 세부어, 스웨덴어, 스페인어, 스와힐리어, 솔로베니아어, 아르메니아어, 아이란드어, 알바니아어, 에스토니아어, 영어, 우르두어, 우크라이나어, 이탈리아어, 인도네시아어, 일본어, 중국어, 간체자(중국어), 체코어, 캄보디아어, 크로아티아어, 키리바시어, 타갈로그어, 타이어, 타히티어, 통가어, 포르투갈어, 폴란드어, 프랑스어, 피지어, 편드란어, 헝가리어(발행 횟수는 언어에 따라 다름.)

© 2016 Intellectual Reserve, Inc. 판권 소유. Printed in Korea.

리아호나에 실린 기사 및 시각 자료는 교회와 가정에서 비상업적인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일시로 복사할 수 있습니다. 시각 자료는 복사 제한 문구가 있는 경우 복사할 수 없습니다. 판권에 관한 문의 사항은 다음 주소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Intellectual Property Office, 50 E. North Temple St., Salt Lake City, UT 84150, USA, 이메일: cor-intellectualproperty@ldschurch.org

For Readers in the United States and Canada: July 2016 Vol. 40 No. 7.

liahona (USPS 311-480) English (ISSN 1080-9554) is published monthly by The Church of Jesus Christ of Latter-day Saints, 50 E. North Temple St., Salt Lake City, UT 84150 USA subscription price is \$10.00 per year; Canada, \$12.00 plus applicable taxes. Periodicals Postage Paid at Salt Lake City, Utah. Sixty days' notice required for change of address. Include address label from a recent issue; old and new address must be included. Send USA and Canadian subscriptions to Salt Lake Distribution Center at address below. Subscription help line: 1-800-537-5971. Credit card orders (American Express, Discover, MasterCard, Visa) may be taken by phone or at store. lds.org. (Canada Post Information: Publication Agreement #40017431) POSTMASTER: Send all UAA to CFS (see DMM 7074.12.5) NONPOSTAL AND MILITARY FACILITIES: Send address changes to Distribution Services, Church Magazines, P.O. Box 26368, Salt Lake City, UT 84126-0368, USA.

가정의 밤 제언

이번 호에는 가정의 밤에서 활용할 수 있는 기사와 활동이 실려 있다.

다음은 두 가지 예이다.



"사르밧의 과부처럼: 금식 현금의 기적", 24쪽:

가족이 이 기사를 함께 읽은 다음 열왕기상

17장에 나오는 사르밧의 과부 이야기를

공부해 본다. 그러면 여러분은 다음 질문에

답할 수 있을 것이다: 금식은 개인 또는

가족에게 어떻게 축복을 가져다주는가?

우리가 내는 금식 현금은 누구에게 축복이

될 수 있는가? 금식 현금을 더 후하게 낼 때

우리 가정에는 어떤 축복이 임할 수 있는가?

가족이 금식 현금을 더 후하게 바칠 수

있는지 또는 궁핍한 이들을 도울 다른 방법이

있는지 토론한다.

"모로나이 장군의 깃발", 76쪽:

가족이 이 기사에 나오는 모로나이 장군에 관해

읽는다. 그런 다음 앤마서 46:11~14을 읽고

무엇이 모로나이 장군에게 동기를 부여하여

그가 그의 백성에게 "우리의 하나님과 우리의

종교와 자유와 우리의 평화와 우리의 아내와

우리의 자녀"를 수호하도록 했는지에 대해

이야기한다. 이와 같은 것들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중요하며, 또 여전히 공격을 받고

있다. 여러분 가족만의 "자유의 깃발"을

만들고 가장 의미 있는 것을 수호할 방법을

토론하는 것을 고려해 본다.

인터넷 활용하기

리아호나와 그 밖의 교회 자료를 languages.lds.org에서 여러 언어로 볼 수 있다. facebook.com/liahona에서 영감에 찬 메시지, 가정의 밤 제언, 그리고 친구 및 가족과 함께 나눌 수 있는 자료를 찾아본다. [페이스북 페이지는 영어, 스페인어, 포르투갈어로만 제공됩니다.]

이번 호 주제

숫자는 각 기사의 첫 장을 나타냅니다.

가르침, 8, 12, 28, 30

가족 역사, 42, 43, 58

가족, 7, 10, 66, 73, 76

개인적인 가치, 42

개종, 20

개척자, 4, 20, 79

경전 공부, 44, 48, 75

과학, 54

구원의 계획, 66

금식 현금, 24

금식, 24

기도, 24, 48, 68

기적, 51

또래의 압력, 52

부름, 41

부모의 본분, 7, 28, 30

사랑, 10, 44

선교 사업, 40, 44, 58, 65, 70, 72

성신, 41

성약, 32, 36

성전 사업, 32, 43, 50, 58, 66, 70

성찬, 36, 60, 64

세미나리, 58

속죄, 10

순결, 51

순결의 법, 51

순종, 80

신성한 본성, 7

신앙, 4, 44

예수 그리스도, 4, 32, 60

용기, 74, 75

의식, 32, 36, 43

자녀, 7, 30

지혜의 말씀, 52, 68

청소년, 28

하나님 아버지, 36

희생, 4



토마스 에스 몬슨
회장

우리 선조들이 가졌던 신앙에 부끄럽지 않게 생활하십시오

존 린포드는 43세 때 아내 마리아와 세 아들을 데리고 영국 그레이블리의 집을 떠나 수천 킬로미터를 여행하여 그레이트 솔트레이크 분지에 있는 성도들과 합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들은 선교 사업을 하고 있던 넷째 아들을 뒤에 남겨둔 채, 소유물을 팔아 리버풀에서 손턴 호를 타고 항해를 시작했습니다.

배를 타고 뉴욕으로 간 다음, 그곳에서 육로로 아이오와로 가는 여정은 별 탈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1856년 7월 15일, 손턴 호를 타고 왔던 린포드 가족과 다른 후기 성도들이 불운했던 제임스 지 윌리 손수레 부대의 일원으로서 아이오와시티를 떠난 직후부터 문제가 시작되었습니다.

혹독한 날씨와 험난한 여정은 존을 비롯한 부대의 여러 사람에게 질병과 죽음을 안겼습니다. 존은 마침내 무척 병약해져 손수레를 타고 가야 했으며, 부대가 와이오밍에 도착할 즈음에는 상태가 심각하게 나빠졌습니다. 10월 21일 솔트레이크시티에서 출발한 구조대가 도착하기 불과 몇 시간 전에 존은 지상에서의 생을 마감했습니다. 그는 그날 이른 아침에 스위트워터 강둑 근처에서 세상을 떠났습니다.

존은 과연 가족을 시온으로 데려가기 위해 편안함과 안락함을 고난과 궁핍, 그리고 고생으로 맞바꾼 것을

후회했을까요?

“아니, 그렇지 않소, 마리아.” 존은 죽기 직전에 아내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여기 온 것이 기쁘오. 나는 살아서 솔트레이크에 도착하지 못하더라도 당신과 아이들은 무사히 도착할 거요. 아이들이 시온에서 자라, 자기들 가정을 꾸릴 수 있다면 우리가 겪은 모든 일을 후회하지 않겠소.”¹

마리아와 아들들은 그 험난한 여정을 끝마쳤습니다. 약 30년 후 마리아가 세상을 떠났을 때, 마리아와 존은 신앙과 봉사, 헌신과 희생이라는 유산을 남겼습니다.

후기 성도가 된다는 것은 개척자가 되는 것입니다. 개척자란 “앞서 가서 다른 사람들이 따라올 길을 준비하거나 여는 사람”으로 정의되기 때문입니다.² 아울러 개척자가 된다는 것은 희생에 익숙해지는 것입니다. 교회 회원들은 집을 떠나 시온으로 여행하라는 요청을 더는 받지 않더라도 오랜 습관이나 넓은 관습, 또는 소중한 친구를 버려야 할 때가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교회의 회원이 되기를 거부하는 식구들을 두고 떠나는, 고뇌에 찬 결정을 내리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후기 성도들은 소중한 사람들이 언젠가는 이해하고 받아들이기를 기도하며 앞으로 나아갑니다.

개척자의 길이 쉽지는 않으나, 우리는 가장 으뜸 되시는



개척자, 곧 앞서 가서 따라야 할 길을 보여 주신 구주의 발자취를 따릅니다.

구주께서는 “와서 나를 따르라”³고 권유하십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⁴라고 선언하십니다.

“내계로 [오라]”⁵고 부르십니다.

길은 힘들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정결, 정직, 그리고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는 것을 비웃는, 어리석은 사람들의 조롱이나 모욕적인 이야기를 잘 참지 못합니다. 세상은 원리를 지키는 것을 경시해 왔습니다. 노아가 방주를 지으라는 명령을 받았을 때, 어리석은 대중은 구름 한 점 없는 하늘을 쳐다보며 결국 비가 내릴 때까지 선지자를 비웃고 조롱했습니다.

오랜 세기 전, 미 대륙 사람들은 의심하고 논쟁하며 불순종했습니다. 그러다가 결국 제이라혜를라 성에

불이 붙고, 땅이 모로나이하 성 위로 솟아오르고, 모로나이 성은 물에 잠겼습니다. 그제서야 야유, 조롱, 상스러운 언행, 죄가 사라졌습니다. 그런 것들은 침울한 적막과 칠흙 같은 어둠으로 대체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인내는 끝이 났으며, 그분이 정하신 시간에 따라 그분의 뜻이

실현되었습니다.

영국에서의 박해, “하나님 준비한 … 그곳”⁶으로 가는 힘겨운 여정, 그리고 가족과 교회를 위해 감내해야 했던 그 이후의 시련에도 불구하고, 마리아 린포드는 결코 신앙을 잃지 않았습니다.

1937년 마리아를 추도하며 가진 무덤 현납식에서 조지 앤버트 스미스(1870~1951) 장로님은 그녀의 후손들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여러분, 선조들이 가졌던 신앙에 부끄럽지 않게 생활하시겠습니까? … [그분들이] 여러분을 위해 바친 모든 희생에 합당하도록 힘써 생활하십시오.”⁷

우리 마음과 가정, 지역사회와 국가에 시온을 건설하려고 애쓰는 가운데, 우리가 회복된 복음의 축복을 누릴 수 있게 하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를 통한 소망과 약속을 마음에 품고 자신의 모든 것을 바쳤던 분들의 결연한 용기와 변치 않는 신앙을 기억하기를 기원합니다. ■

주

1. Andrew D. Olsen, *The Price We Paid* (2006), 45~46, 136~37 참조.

2. *The Compact Edition of the Oxford English Dictionary* (1971), “pioneer.”

3. 누가복음 18:22.

4. 요한복음 14:6.

5. 요한복음 7:37; 또한 제3나파이 9:22 참조.

6. “성도들이 두려울 것 없다”, 찬송가, 16장.

7. Olsen, *The Price We Paid*, 203~204쪽 참조.

이 말씀으로 가르치기

여 러분이 가르치는 사람들에게 각자의 삶에서 앞서 간 분으로서 자신에게 개척자가 되신 분들을 생각해 보라고 질문하는 것을 고려해 본다. 그런 다음, 자신이 개척자가 되어 다른 사람들을 위해 길을 준비해 주어야 했던 때가 있었는지 물어본다. 그들에게 희생을 치려야 했던 순간과 그 희생이 왜 가치 있었는지를 깊이 생각해 보게 한다. 그리고 나서 “으뜸 되시는 개척자”이신 구주에 관한 간증을 적어 보라고 한다.

그분들의 신앙에 부끄럽지 않게 생활하기

어느 개척자 가족의 이야기를 전한 몬순 회장은 다음과 같이 조지 앨버트 스미스 회장의 말씀을 인용했다.

“선조들이 가졌던 신앙에 부끄럽지 않게 생활하시겠습니까? … [그분들이] 여러분을 위해 치르셨던 모든 희생에 합당하도록 힘써 생활하십시오.” 조상 중에 개척자가 있든 자신이 교회의 1세대 회원이든, 여러분은 인도와 힘을 얻기 위해 신앙의 모범을 찾고 있는가? 다음은 그 일을 시작해 볼 좋은 방법을 적은 것이다.

존경하는 사람들의 목록을 만든다. (과거 혹은 현재의) 가족, 친구, 교회 지도자 혹은 경전 속의 인물 등 누구라도 좋다.

그들의 자질 중 마음에 드는 점들을 써 본다. 여러분의 어머니는 인내심이 매우 강한 분인가? 친구 중에 다른 사람에게 친절한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모로나이 장군의 용기가 마음에 들 수도 있다.

목록에서 한 가지 자질을 골라 스스로 질문한다. “어떻게 하면 이런 자질을 얻을 수 있을까? 삶에서 이 자질을 발전시키려면 나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이러한 자질을 발전시킬 계획을 써서 잘 보이는 곳에 두고 목표를 되새긴다. 하나님 아버지께 도움을 구하고 발전 상황을



정기적으로 점검한다. 이런 자질을 충분히 발전시켰다는 생각이 들면 다른 새로운 자질을 한 가지 더 골라서 발전시킨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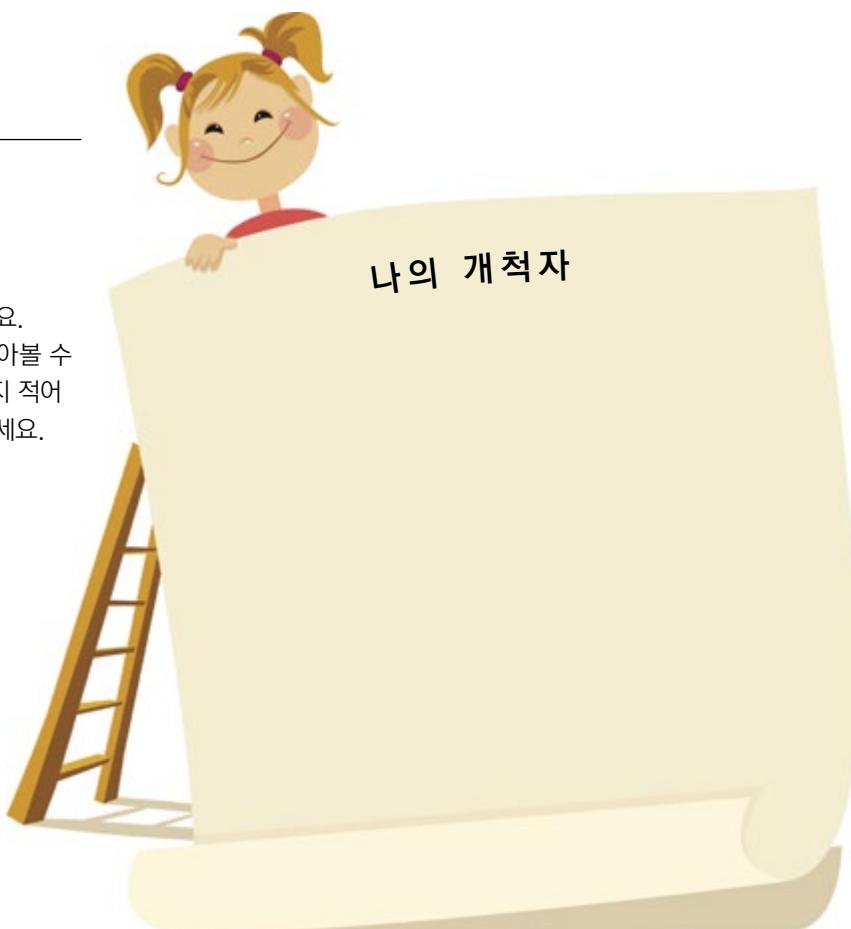
우리는 내면의 위대한 자질을 발전시킬 때, 조상들의 신앙과 희생을 영예롭게 할 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에게도 선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기억한다.

어린이

여러분도 개척자예요!

개척자는 다른 사람들이 따라갈 길을 먼저 준비하는 사람이에요.

조상 중에서 한 분을 그리거나 그분의 사진을 찾아보세요. 여러분이 따라가도록 그분들이 길을 준비했던 이야기를 찾아볼 수 있나요? 여러분이 오늘 개척자가 될 수 있는 방법을 두 가지 적어 보세요. 다음 가정의 밤에서 여러분의 생각을 이야기해 보세요.



이 자료를 기도하는 마음으로 공부하고 무엇을 나누어야 할지 알고자 간구한다. “가족: 세상에 전하는 선언문”을 이해하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키우고, 방문 교육을 통해 돌보는 자매들을 축복하는 데 어떻게 도움이 되는가? reliefsociety.lds.org에서 더 많은 내용을 찾아볼 수 있다.

부모가 될 잠재력

심 이사도 정원회의 댤린 에이치 옥스 장로는 다음과 같이 가르쳤다. “하나님의 영의 자녀들이 지상에 태어나서 영생을 향해 진보할 수 있는 기회를 갖는 것은 꼭 필요한 일이었습니다. 위대한 행복의 계획의 궁극적인 목적을 생각해 볼 때, 저는 땅과 하늘의 최고의 보물이 바로 우리의 자녀와 후손이라고 믿습니다.”¹

십이사도 정원회의 닐 엘 앤더슨 장로는 이렇게 말씀했다.

“우리는 가족과 자녀에 관한 신념이 있습니다. …

… 하나님이 [아담과 이브]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하셨습니다.]”[창세기 1:28] …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는 이 계명을 잊거나 소홀히 한 적이 없습니다.”²

모든 사람이 현세에서 부모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는 나이를 불문한



모든 어린이를 양육할 수 있다.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가족에 속하는 축복을 누리며 지상의 가족에 속하는 기쁨과 어려움을 경험한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앞으로 다가올 영원의 세상에서 부모가 되는 기회를 갖게 될 것이다.

보충 성구

시편 127:3; 마태복음 18:3~5; 니파이전서 7:1; 모세서 5:2~3

신앙, 가족, 구제



생생한 이야기

앤더슨 장로는 다음과 같이 말씀했다. “지금 세상에서는 자녀를 가져야 하는 중요성을 펼琶하여 출산을 미루거나 제한하자는 주장을 많이 합니다. 최근에 제 딸아이들은 다섯 자녀를 둔 어느 기독교인 어머니가 쓴 블로그를 소개해 주었는데, 그곳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이런 분위기에서는 어머니로서 성경에 입각하여 아이들을 키우기가 몸시 어렵다. … 분명 자녀보다는 대학에 가거나 세계 일주를 떠나는 것이 우선이며, 저녁에 나가서 여가를 즐기는 것이 더 중시된다. 헬스클럽에서 몸매를 가꾸고, 직장을 다니거나 원하는 직장을 얻는 것이 먼저다.’ 그런 뒤 이런 글이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되는 일은 취미가 아니라 소명이다. 자녀는 단지 우표보다 귀엽다고 수집하는 그런 존재가 아니다. 자녀 양육은 시간을 넣 수 있을 때만 하는 일도 아니다. 자녀를 낳고 키우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세상에 보내신 목적인 것이다.”³

생각해 볼 점

어떤 면에서 지상의 가족과 하늘의 가족은 비슷한가?

주

1. 댤린 에이치 옥스, “위대한 행복의 계획”, 성도의 빛, 1994년 1월호, 72, 75쪽.
2. 닐 엘 앤더슨, “자녀”, 리아호나, 2011년 11월호, 28쪽.
3. 닐 엘 앤더슨, “자녀”, 28쪽.

종교의 자유를 위하여

교회 지도자들은 모든 나라의 백성이 종교의 자유를 신장하도록 협력해야 한다고 되풀이해 말씀했다.

제일회장단 제2보좌인 디이터 애프 우흐트도르프 회장은 2015년 4월, 미국 캘리포니아 주 로스앤젤레스의 서던캘리포니아 대학교(USC)에서 열린 존 에이 윗소 종교 심포지엄에서 “교회 회원들은 종교적 믿음이나 정치적 신조 및 인종을 막론하고 모든 사람들과 친선을 도모하려고 힘씁니다.”라며 다음과 같이 말씀했다.

“불신과 편협된 생각을 던져 버리고 진정으로 서로를 새로운 시각으로 보려는 노력, 곧 상대방을 외인이나 적이 아닌 같은 길을 걷는 동료나 형제자매, 또는 하나님의 자녀로 대하려는 노력은 가장 힘든 일이기는 하나 동시에 인간으로서 할 수 있는 가장 보람 있고 고귀한 일이기도 합니다.” 우흐트도르프 회장의 이와 같은 말씀은 최근에 선지자와 사도들이 호소한 존중과 이해에 대한 여러 촉구들 중 하나였다.

십이사도 정원회의 댸린 에이치 옥스

장로는 2015년 10월, 미국 캘리포니아 주 새크라멘토에 있는 콘그리게이션 베네이 이스라엘 회당에서 열린 법원/성직자 회의에서 “종교와 정부 사이에 다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라며 이렇게 말씀했다. “분노나 적개심, 또는 다툼의 분위기가 팽배할 때 우리는 누구나 패배자가 됩니다.”

옥스 장로는 “정부와 그 법률은 믿는 자와 종교 단체 및 그들의 활동에 필수적인 보호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라고 언급하며 종교적 원리와 가르침 및 그 조직은 “공법과 정부 기관 및 시민이 번영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도움이 되며” 그리하여 모든 사람은 “행복과 조화와 화평 속에서 함께 살아갈 수 있습니다.”라고 말씀했다.

옥스 장로는 또한 아르헨티나의 한 모임에서 종교의 자유에 관해 말씀했다.(“교회 소식”, 리아호나, 2016년 1월호, 16쪽 참조)

십이사도 정원회의 제프리 알 훌런드 장로는 2015년 6월, 영국 런던의 상원 산하 외무 분과 공동위원회에서 다음과 같이 연설했다. “종교 및 종교 단체는 개인의 가장 깊고 근본적인 가치에 호소하여 사람들에게 동기를 부여하며, 동시에 이상을 위해 다시금 힘쓰도록 개인의 삶과 사회에 용서와 화해의 태도, 그리고 의지를 함양하는 독특한 역량이 있습니다.”



훌런드 장로가 영국 런던에 있는 의회 단체와의 모임에서 종교인은 사회에 동기를 부여할 힘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다.

옥스 장로가 미국 캘리포니아 주의 종교 회의에서 교회와 정부 사이의 존중을 호소하고 있다.



크리스토퍼슨 장로가 브라질에 있는 신앙인에게 “종교의 자유는 평화의 초석이 됩니다.”라고 말씀하고 있다.



우흐트도르프 회장과 부인 해리어트가 미국 캘리포니아 주의 종교 지도자들을 만나고 있다.



래스번드 장로가 브리검 영 대학교 학생들에게 그리스도께서 사랑한 것같이 사랑하라는 그분의 가르침을 따르라고 권고하고 있다.

십이사도 정원회의 디 토드 크리스토퍼슨 장로는 2015년 4월, 브라질 상파울루의 브라질 이슬람교 사원에 모인 초종파 그룹에게 “종교의 자유는 여러 철학이 대립하는 세상에 평화의 초석이 됩니다.”라고 말씀했다. 그는 종교의 자유에 대한 브라질의 굳건한 지원을 기념하는 행사에서 이슬람교인, 천주교인, 재림교인, 유대교인, 복음주의 교인, 후기 성도, 토착 심령주의자, 무종교인 및 그 밖의 사람들이 포함된 청중에게 포르투갈어로 이렇게 말씀했다. “개별적으로나 다른 사람들과 함께하는 공동체로서나, 국내나 외국에서나, 공석에서나 사석에서나, 그리고 예배와 의식, 실천과 가르침에서, 사람들이 스스로 선택한 종교 또는 믿음을 고수하고 표현할 수 있는 자유를 보존하고 보호하기 위해 함께 힘을 모아 평화를 추구하기를 빕니다.”

십이사도 정원회의 쿠엔틴 엘 쿠 장로는 2015년 5월, 호주 시드니에 있는 노트르담 대학교의 연례 종교의 자유 강좌에서 연설하며 “신앙인은 종교의 자유를 보호하는 데 앞장서야 합니다. 이 종교의 자유로부터 다른 여러 기본적인 자유가 파생됩니다. 우리는 자신의 종교를 신봉할 권리뿐만 아니라 각 종교 나름의 교리와 규율을 집행할 권리를 보호해야 합니다.”라고 말씀했다.

십이사도 정원회의 로널드 에이 래스번드 장로는 칠십인 선임 회장으로 봉사하던 2015년 9월, 미국 유타 주 프로보에 있는 브리검 영 대학교 학생들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했다.

“여러분 연령대에 있는 일부 사람들은 종교 단체가 애초에 왜 정치에 관여하는지 의아해하며 종교적인 사람들이 그런 행동을 할 때 그 동기에 대해 종종 회의적인 시선을

보내기도 합니다.” “종교는 정치적 논의에 참여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 집단의 통일된 목소리가 최근 몇 년 동안 더욱 커져 “여러분이나 저와 같은 종교와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또 다른 희생자가 될 위험”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래스번드 장로는 이 주제와 관련하여, 학생들 세대의 활발한 참여가 필요하다고 말씀했다. “우리는 동정심과 존중 및 공정성에 대한 여러분 세대의 자연스러운 이해가 필요합니다. 또 이런 복잡한 문제들을 헤쳐 나가는 데 여러분의 긍정적인 성향과 결의가 필요합니다.” 래스번드 장로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요한복음 13:34)는 구주의 계명으로 시작하는 것이 그 해답이라고 말씀했다. ■

news.lds.org에서 더 많은 교회 소식과 행사에 관한 기사를 볼 수 있다.

가치관이 다른 사람 사랑하기

의명

나는 자녀들이 높은 도덕적 가치관을 지닌 사람으로 성장하도록 노력을 기울이고 있었다. 하지만 아이들에게 모범이 되었던 한 사람의 잘못된 선택으로 인해, 내가 가르치려 노력했던 모든 것이 수포가 되는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나의 시누 제이니(가명)는 복음 안에서 성장했고 매우 충실했던 교회 회원이었다. 성전에서 결혼하고 행복하게 사는 것처럼 보이던 제이니가 이혼을 하게 되자 동네 사람들은 소문을 퍼트리고 제이니를 비판하기 시작했다. 제이니는 여러 친구와 거리를 두었고 결국에는 교회를 멀리하게 되었다.

그녀는 앤디라는 청년과 데이트를 시작했고, 오래 지나지 않아 둘은 제이니의 집에서 함께 살았다. 나는 아이들에게 뭐라고 해야 할지 걱정이 되었다. 나의 어린 세 딸은 제이니 고모를 무척 좋아했다. 우리 집안은 서로 정말 친하게 지냈을 뿐 아니라 제이니가 아이들의 무용 교사였기 때문에 일주일에 몇 번씩 만났다.

여러 달 동안 아이들은 앤디가 자주 찾아온다고 생각했지만, 결국 나는 제이니와 앤디가 같이 살고 있다는 사실을 아이들에게 설명해 주어야 했다. 나는 그 둘이 내린 결정은 심각한 죄라고 설명했다. 딸들은 이해하는 것처럼 보였고, 우리는 복음 원리에 따라 살아가는 것의 중요성을 두고 훌륭한 토론을 했다.

그 다음에 더 안 좋은 일이 생겼다. 제이니가 가족에게 자신의 임신 소식을 기쁘게 전한 것이다. 다시 나는 이 소식이 아이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 걱정이 되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이런 방식으로 그분의 자녀를 지상에 데려오기 원하시지 않는다는 사실을 아이들이 알고 있을까? 이런 일이 주변에서 일어나는 것을 보면서 아이들이 이런 상황을 받아들일 만하고 정상적인 것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을까?

이 새로운 소식을 아이들에게 전하고 싶지 않아서 나는 몇 주간 고민했다. 한 달 후 제이니와 앤디는 결혼하기로 했다. 결혼한 다음에 임신 발표를 하지 왜 미리 말했을까?

화가 나서 속이 부글부글 끓었다. 어떻게 하면 제이니가 별인 일과 별개로 제이니를 사랑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고모의 선택과 별개로 고모를 계속 사랑하라고 아이들을 가르칠 수 있을까? 어느 날 내 여동생이 같은 와드에



진리에 대한 확고한 결심

“다른 사람과 그들의 믿음에 대해 관용과 존중심을 보인다고 해서 우리 마음속에 있는 진리를 향한 결심과 우리가 맷은 성약을 저버리는 것은 아닙니다. …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와 다른 믿음이나 견해에 대해, 그리고 그런 입장을 취하는 사람에 대해 관용과 존중심을 보이는 가운데 우리의 진리를 수호해야 합니다. …

마찬가지로, 우리가 가르칠 의무가 있는 우리 자녀와 그 외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도 진리에 관한 우리의 의무는 매우 중요합니다. 물론, 가르치는 노력은 오직 상대방의 선택의지를 통해서만 열매를 맺기에 늘 사랑과 인내와 설득으로 임해야 합니다.”

델린 에이치 옥스 장로, 십이사도 정원회, “진리와 관용 사이에 균형 맞추기”, 리아호나, 2013년 2월호, 32, 33쪽.



어떻게 하면 고모의 선택과 별개로 고모를 계속 사랑하라고 아이들을 가르칠 수 있을까?

다니는 임신한 청녀의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이 청녀는 계속 교회에 나왔고 앞으로 자기 인생에 다가올 특별한 일에 대해 행복해하고 들떠 있는 것 같았다. 그 청녀는 이 상황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듯 보였고, 다른 청녀들은 그런 그녀의 모습에 혼란스러워했다.

하지만 이 청녀 어머니의 방문 교사였던 내 동생은, 이 청녀가 자신을 곤경에 빠뜨린 잘못된 선택에 대해 비참해하며 셀 수 없는 밤을 울다 잠들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몇 주간 괴로운 시간을 보낸 후에, 그 청녀는 자기 행동에 대해서 계속 슬퍼하거나, 앞으로 나아가며 행복하게 지내거나 둘 중 하나를 선택하기로 했다. 그리스도의 속죄 희생 덕분에 이 청녀는 자신의 선택의 결과를 받아들이고 회개를 통해

다시 한 번 깨끗해질 수 있었다. 제이니도 비슷한 과정을 거친 것은 아닌지 궁금해졌다. 자신의 선택을 후회했지만, 그 결과를 바꿀 수 없어서 상황을 담담하게 받아들이고 그저 살아가기로 한 것이라면?

심하게 비판만 할 뿐, 예수 그리스도께서 기대하시는 방식으로 사랑하지 못한 나 자신이 부끄러웠다. 구주의 생애에 비추어 생각해 보니, 구주께서는 늘 죄인을 찾아서 말씀과 모범을 통해 가르치시고 사랑하셨다는 것이 기억났다. 바로 이러한 사랑이 사람들의 마음을 감화시켜 변하게 하였다.

나는 내 생각과 일치하는 방식으로 행동하는 사람들은 사랑했지만, 그들이 실수하는 순간 마음속으로 비난한 적이 많았음을 깨달았다. 난 얼마나

위선적이었던가! 회개의 필요성을 느꼈다. 나는 죄를 지지하지 않으면서 죄인을 사랑하는 방법을 배워야 했다. 마침내, 나는 제이니에 대해 품고 있던 분노를 놓아 버리고 그녀를 다시 한 번 진정으로 사랑할 수 있었다.

나는 자녀들과 또 한 번 훌륭한 토론을 했다. 나는 결혼을 한 후에 아기를 갖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해 말했다. 우리는 집안에 새로이 아기가 태어나는 날을 고대하게 되었다. 우리는 모두 제이니를 지지해 주고 싶었고 그녀 인생의 이 특별한 시기를 함께하고 싶었다. 우리 아이들은 제이니 고모가 무엇인가를 잘못했음을 깨달았지만, 여전히 고모와 앤디 고모부를 사랑한다. 우리는 이 아름다운 가족이 언젠가 우리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품 안으로 돌아오기로 결정하길 바란다. ■

교사 평의회가 불러온 변화

한 교사 평의회에서 들은 한 마디의 조언은 가르치는 방법뿐만 아니라 그 이상의 것을 바꾸어 놓았다.



교사 평의회는 샌드라 커텔(중앙)의 교수법 향상에 도움이 되고 있다.

샌드라 커텔

나는 나이가 꽤 많다. 그래서 청녀반 공과 교사로 부름을 받았을 때, “이런! 왜 하필 나지?”라는 생각이 들었다.

나는 청녀들의 필요 사항에 맞춰 적절하게 공과를 준비하려고 많은 노력을 기울였고 청녀들이 무엇을 배웠는지 또 한 주 동안 배운 것을 어떻게 실천했는지 이야기해 주기를 바랐다. 하지만 내가 질문을 하면 보통 침묵이 이어졌다.

우리 와드의 첫 교사 평의회 모임에서, 한 교사가 공과 시간에 청소년들의 참여를 유도하는 것이 어렵다고 말했다. 그때 다른 교사 한 분이 “침묵이 흘러도 괜찮아요”라고

대답했다. 때로 사람들은 대답하기 전에 질문에 대해 생각할 시간이 조금 필요하다.

교사 평의회 모임에서 들은 이러한 조언은 나의 교수법뿐만 아니라 내가 가르치는 반원들에게도 변화를 가져왔다. 나는 이에 관하여 생각을 많이 했다. 다음번 청녀 공과 시간에, 한 주 동안 어떤 복음 원리를 적용해 봤는지 물어보았다. 평상시처럼, 침묵이 찾아왔다. 하지만 바로 다음 주제로 넘어가는 대신에, 나는 교사 평의회 토론 시간을 기억하며 조용히 이야기했다. “서둘러 답하지 않아도 돼요.”

왜 교사 평의회 모임을 하는가?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복음을 배우고 그에 따라 생활하기 원하는 사람들은 누구나 하나님 아버지를 닮아갈 수 있다. 복음을 배우고 그에 따라 살아가는 법을 배우는 데 교사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교사를 돋기 위해, 제일회장단과 십이사도 정원회는 교회의 와드 지부에서 교사 평의회 모임을 하도록 권고했다. 매달 하는 평의회 모임을 통해 교사와 지도자는 교수법에 관한 아이디어를 나누며 함께 배울 수 있다.

시행된 지 얼마 안 되었지만, 교사 평의회는 이미 교사와 반원 모두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 아래는 교사 평의회가 있음에 감사하며 이를 잘 활용하고 있는 회원들의 이야기이다.

- “지원 시스템이 있다는 사실은 제게 힘이 됩니다. 교사로서 우리는 가르치는 것이란 혼자 하는 일이라고 생각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평의회와 포럼에서 어려운 점들과 생각과 느낌을 나누고 부름에 대한 이해력을 갖춘 사람들에게서 피드백을 받을 때 그런 생각이 바뀝니다.” —프레스턴 스트랫퍼드
- “교사 평의회 모임을 통해 제가 배운 것은, 반원들이 배우는 과정을 더 원활하게 만드는 데 제 노력이 큰 비중을 차지한다는 것입니다.” —마거릿 툴러
- “어떻게 하면 교사가 ‘공과를 가르치는 법’이 아니라 ‘사람을 가르치는 법’을 더 잘 배울 수 있는지에 관한 아이디어를 얻게 되어 좋았습니다.” —리처드 페이티



- “더 좋은 질문을 하는 방법과 더 많은 참여를 유도하는 방법을 논의할 때 정말 유익했습니다. 우리가 잘 하고 있는 부분과 더불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분을 이야기할 수 있다는 사실은 저에게 영감을 줍니다.” —肯 소넨버그
- “교사 평의회는 교수법을 향상시켜 더 훌륭한 교사가 될 수 있게 한다는 점에서 효과가 있었습니다. 교사로서의 기술을 향상하면, 반원 모두에게 축복이 될 수 있습니다. 교사 평의회에 있는 동안, 영적으로도 성장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 브렌트 넬슨
- “교수법 향상에 관한 생각을 넓힐 수 있어서 기뻤습니다.” —카미유 프론크

교사 평의회 및 구주께서 보여 주신 방법으로 가르침에 관한 자료를 더 찾아보려면 Teaching.lds.org/kor를 방문하십시오.

이렇게 말하는 순간, 대화가 시작되었다. 청녀들이 마음을 열기 시작했고 감미로운 경험들을 나누어 주었다. 교사 평의회 모임에서 침묵에 관해 간략한 조언을 해 준 교사분께 즉시 감사의 인사를 전하고 싶었다. 그 한 가지 원리에 따라 행동했을 뿐인데 어떻게 그렇게 금방 큰 변화가 올 수 있었는지 놀라울 따름이었다.

하지만 나는 그 원리뿐만 아니라 그와 함께 깨닫게 된 다른 원리들이 어떤 변화를 불러오고 있는지 깨닫지 못했다. 교회 모임이 끝난 후, 한 청녀의 어머니가 내게 와서는 딸이 자기에게 선생님이 정말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분인 것 같다는 말을

했다고 알려 주었다.

그러한 이야기가 나에게 얼마나 특별했는지 말로 다 할 수 없다. 나는 그때, “내가 이 청녀들에게 뭘 가르쳤었나?”라는 생각이 들었다. 하지만 나는 분명히 무엇인가를 가르치고 있었나보다. 내가 부름을 받은 데에는 어떤 목적이 있었으며 교사 훈련 모임은 그 목적을 이루는 데 도움이 되었다. ■
글쓴이는 스코틀랜드에 산다.

여러분의 교수법을 바꿈으로써 반원들의 삶에 변화를 가져다줄 수 있는 방법에 대해 더 많은 것을 배우려면 Teaching.lds.org/kor를 방문한다.

데일 지 렌런드 장로

충실한 종

쿠엔틴 엘 쿡 장로

십이사도 정원회



반대쪽: 렌런드 장로와 형제들(아니다. 린다. 게리)은 유타에서 스웨덴어를 하며 자랐다. 부모인 오케와 마리아나는 1950년에 성전에서 인봉받기 위해 스웨덴에서 유타 주로 이주했다. 당시에는 북유럽은 물론 유럽 전역에 성전이 없었다. 오른쪽: 렌런드 장로 부부와 딸 애슐리는 6년 동안 미국 메릴랜드 주 볼티모어에 거주했다. 렌런드 장로는 그곳의 존스 흉킨스 병원에서 전공의 과정과 심장병 전문의 과정을 마쳤으며, 렌런드 자매는 메릴랜드 대학교의 법학 대학원을 다녔다.

데 일과 루스 렌런드는 더없이 숨 가쁜 삶을 살았다. 부부는 20대 후반에 미국 메릴랜드 주 볼티모어에서 살고 있었다. 데일이 유타 대학교에서 의과 대학을 마치자 그들은 서부에서 동부로 이주했고, 데일은 그곳에 있는 Johns Hopkins School of Medicine[존스 흉킨스 의과 대학교]에서 힘들지만 명망 있는 전공의 과정을 시작할 수 있었다. 어여쁜 어린 딸 애슐리도 함께였다. 데일은 사랑하는 아내 루스가 암 치료를 받는 중이었지만 순종하는 마음으로 감독으로 봉사할 부름을 받아들였다.

데일은 와드 회원을 방문할 때면 애슐리를 데려가곤 했다. 한번은 부녀가 한 저활동 회원을 방문하던 날이었다. 렌런드 장로는 이렇게 기억한다. “저는 누구도 제 옆에 있는 사랑스러운 꼬마 소녀를 문전박대하거나 돌려보내지 못하리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는 전에 화를 내며 자신의 보좌를 쫓아버렸던 남자의 집에 가서 문을 두드렸다.

그러자 문이 꽉 차도록 체구가 큰 남자가 문을 열고 나타나서는 렌런드 감독을 노려보았다.
그때 느닷없이 네 살 난 애슐리가 끼어들었다.
“저기, 안에 좀

들어가도 될까요?”

놀랍게도 남자는 이렇게 말했다. “그러럼 들어오너라.”

셋은 안으로 들어가 자리에 앉았고, 남자는 렌런드 감독에게 자신은 교회가 참되다고 믿지 않으며 예수 그리스도도 믿지 않는다고 했다. 애슐리가 장난감을 갖고 노는 동안 남자는 계속 화를 내며 말을 이었다. 마침내 아이는 의자에서 일어나 작게 오므린 손을 아빠 귀에 갖다 대며 큰 소리로 속삭였다. “아빠, 아저씨에게 진리를 전하세요.”

렌런드 감독은 진리를 말하고 간증을 전했다. 그는 그 일을 이렇게 회상한다. “그분의 태도가 누그러졌고 영이 집안에 임했습니다.”

렌런드 장로는 이제 십이사도 정원회의 일원으로서 온 세상에 진리를 전할 기회를 얻었다.(교리와 성약 107:23 참조) 그는 이렇게 말한다. “사람들이 어디에 살든지 그들의 삶에 그리스도의 속죄를 가져다주고자 도울 때 가장 큰 기쁨을 느낍니다. 저는 세상에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사람으로서 이 부름을 통해 더 큰 관점으로 더 많은 곳에서 그 일을 할 기회를 얻게 되리라 생각합니다.”





복유럽 전통 속에 성장하다

데일 거너 렌런드는

1952년 11월 3일 미국 유타 주 솔트레이크시티에서 태어났다. 그는 형제들과 함께 스웨덴어를 쓰며 자랐다. 어머니 마리아나 안데손은 스웨덴 출신이며, 아버지 마츠 오케 렌런드는 핀란드 서부에 있는 스웨덴어 사용 지역 출신이었다. 그들은 1950년 스웨덴에서 유타로 이민을 왔다.

데일의 부모는 스토퍼홀름에 있는 교회에서 만났고 결혼을 결정한 후 반드시 성전에서 결혼하기로 마음을 굳혔다. 당시 유럽에는 성전이 없었기 때문에 스위스 베른 성전은 1955년에 현납되었음 그들은 솔트레이크 성전에서 인봉받기 위해 유타 주로 갔다. 렌런드 장로의 일곱 살 손아래 누이인 린다 시 모어 자매는



장성한 사 남매가 부모에 대해 깨달았던 바를 이렇게 말한다. “영어도 못 하시고 경제적으로도 여유롭지 못하셨지만, 복음과 성전 결혼의 축복을 받기 위해 삶의 터전을 떠났던 부모님이 얼마나 훌륭하고 신앙심 깊은 분들이었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데일이 열한 살이 되었을 때 솜씨 좋은 목수이자



건축업자였던 그의 아버지는 스웨덴에서 3년간 건축 선교사로 봉사하는 부름을 받았다. 가족은 핀란드 헬싱키와 스웨덴 예테보리에서 지냈다. 그들은 교회의 작은 지부에 나갔고 자녀들은 스웨덴 공립 학교에 다녔다. 데일의 한 살 손아래 누이인 아니타 엠 렌런드는 이러한 변화 속에서 겪은 어려움 중 하나를 이렇게 회상한다. “처음에는 충격을 받았어요. 저희 형제들은 집에서 스웨덴어를 쓰기는 했지만 문법이나 맞춤법 등은 몰랐거든요.”

데일은 소년 시절 몰몬경을 읽고 간증이 강화되는 것을 경험했다. 스웨덴의 선교부 회장은 아론 신권 청남들에게 몰몬경을 읽도록 권유했고, 당시 열두 살이던 데일의 형 게리는 그 과제를 실천했다. 열한 살이던 데일도 몰몬경 읽기에 도전했고 몰몬경을 다 읽은 후 그 책이 참된지 기도로 여쭈어 보았다. 렌런드 장로는 이렇게 회상한다. “이런 분명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네가 그 책을 읽는 내내 내가 그것이 참됨을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리고 그것은 놀라운 경험이었습니다.”

데일과 형제들이인 게리, 아니타, 린다는 다시 미국으로



렌드 장로 부부와 딸(위).
2016년 솔트레이크시티에서
열린 RootsTech 가족 역사
대회에서 말씀을 전하는 렌드
장로. 반대쪽: 1977년 솔트레이크
성전에서 결혼한 렌드 장로
부부는 언제 어느 곳에 부름받은
주님께 봉사했다.



돌아와서도 계속 스웨덴어로 말하고 기도했던 것을 기억한다. 또한, 그들은 부모님이 경전 지식을 대단히 강조했다고 회상하며 이렇게 말했다. “부모님께 우리의 생각이나 주장을 밝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경전을 사용하는 것이었어요.” 아니타는 농담조로 이렇게 덧붙인다. “저희 집에서 경전 지식은 선택 사항이 아니라 생존을 위한 필수 사항이었죠.”

놀랍게도, 게리와 데일은 동시에 스웨덴 선교부에서 봉사하도록 부름받았다. 두 사람은 동반자가 된 적은 없었지만 스웨덴어 실력을 발휘하여 2년 이상 선교사로서 주님께 봉사할 수 있었다. 렌드 장로는 선교 사업은 힘들지만 훌륭한 경험이었다고 말한다. “하나님과 약속을 맺고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고자 최선을 다했다는 점에서 선교 사업은 삶이 바뀌는 일이었습니다.”

가장 놀라운 축복

1974년 선교 사업을 마치고 돌아온 데일은 유타 대학교에 다녔다. 우수한 학생이던 그는 화학 학사 학위를 받았다. 그의 형제나 가까운

친구라면 그가 어떤 일을 하건 끊임없이 보여 주었던 능력, 집중력, 근면, 그리고 혁신 등의 면모를 기억한다. 게리는 이렇게 감탄할 정도이다. “동생은 제가 이제껏 본 사람들 중 제일 열심히 일하는 사람입니다.”

데일은 다니던 와드에서 루스라는 젊은 여성을 만났다. 루스는 당시 그 스테이크 회장단의 일원이었던 멀린 알 리버트의 딸이었는데, 리버트 형제는 후에 칠십인 정원회에서 봉사했다. 데일의 기억으로, 자신은 용기를 내어 루스에게 데이트를 신청했으나 처음에는 거절당했으며, 몇 달 후 다시 데이트를 신청해서야 승낙을 얻었다고 한다. 그러나 루스의 이야기는 좀 다르다. 루스는 데일이 성찬식에서 선교 사업 경험에 관해 전한 말씀을 듣고 감동했던 기억이 있다. 루스는 데일과 더 알아가던 차에 데이트 신청을 받자 가슴이 설렜지만 어떤 파티를 준비하고 주최해야 했던 상황이라 거절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그래서 다시 데이트 신청을 받자 루스는 기쁘게 그것을 받아들였다.

데일과 루스는 1977년 솔트레이크 성전에서 결혼했다. 당시 그는 유타 대학교에서 의과 대학에 다녔고, 그녀 역시 솔트레이크시티에 있는 사우스 고등학교에서 교편을 잡고 있었다. 렌드 장로는, “교회에서 활동 회원이 되겠다고 결정한 것을 빼면 아내와 결혼한 것이 제 인생에서 가장 놀라운 일입니다.”라고 단언한다. 1980년 렌드 장로가 의과 대학을 졸업한 일주일 뒤 딸 애슐리가 태어났다.

그 뒤, 렌드 장로는 의학 공부를 계속하기 위해 일 순위로 선택했던 Johns Hopkins Hospital[존스 흉킨스 병원]에서 일하게 되어 여간 기쁘지 않았다. 가족은 메릴랜드 주 볼티모어로 이사했고 그곳에서 그는 병원의 의료진으로 일했다.

시련을 통한 성장

1981년, 렌런드 자매는 난소암을 선고받았다. 그녀는 두 차례 수술을 받았고 9개월 동안 항암치료도 받았다. 아내와 딸을 돌보느라 어려움을 겪던 일을 떠올리며 렌런드 장로는 이렇게 말한다. “마음이 아팠습니다. 제 기도가 하늘에 닿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퇴원하여 집으로 온 루스는 병약한 상태였지만 그들은 함께 기도하기를 원했다. 렌런드 장로는 아내에게 기도해 줄 수 있는지 물었다. “아내의 첫 마디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무슨 일이 일어나든지 저희가 영원히 함께 살 수 있게 해 주신 신권 권능에 감사합니다.’였습니다.”

그 순간 그는 아내와 하나님께 특별한 친밀감을 느꼈다. 렌런드 장로는 말한다. “전에는 영원한 가족이 무엇인지를 머리로 이해했지만 이제 마음으로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아내의 병으로 저희 가족의 인생 항로는 달라졌습니다.”

렌런드 자매는 병에 대한 생각을 떨쳐내기 위해 법학 대학원에 다니기로 했다. “그저 ‘뭔가 좋은 일을 이끌어내지 않는다면 이 일은 그저 나쁜 경험이 되겠지.’라고 생각했습니다.” 렌런드 자매의 말이다. “젊어서 암에 걸리고 아이를 하나밖에 갖지 못할 것으로 계획한 적은 없었습니다. 제가 살 수 있을지도 의문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는 법학 대학원에 가는 것이 올바른 결정이라고 느꼈습니다.”

렌런드 자매는 계속하여 치료와 학업을 병행했고 렌런드 장로도 전공의 과정을 이어갔다.

볼티모어 도심의 감독

렌런드 장로는 3년간의 전공의 과정을 마치고 심장학 전문의의 길에 들어설 무렵 볼티모어 와드의 감독 부름에 관한 접견을 하게 되었다. 당시 메릴랜드 주 볼티모어 스테이크의 제1보좌였던 브렌트 페티는 그 접견을 기억한다. 그와 스티븐 피시플리 스테이크 회장은 모두 렌런드



장로와 접견하는 동안 “성령의 강한 영향력”을 느꼈다.

페티 형제는 그가 직장과 가족 등 당면한 문제 속에서도 “대단히 훌륭한 감독으로 두각을 나타냈다.”라고 회상한다. 페티 형제는, 작년에 렌런드 장로가 십이사도 정원회에 부름을 받자 볼티모어 와드의 회원들뿐 아니라 대부분은 후기 성도가 아닌 렌런드 장로의 의대 동료들도 기뻐했다고 전한다.

그들은 렌런드 장로를 향한 사랑을 표현하며 그의 봉사와 탁월한 도덕성에 경의를 표했다.

눈부신 업적

1986년 렌런드 자매가 메릴랜드 대학교 법학 대학원을 졸업하고 렌런드 장로가 3년간의 내과 전공의 과정과 3년간의 심장병 전문의 과정을 마치자 그들은 유타 주로 돌아갔다. 렌런드 자매는 유타 주 법무부 장관 사무실에서 법률 일을 시작했고 렌런드 장로는 유타 대학교에서 의과 대학 교수가 되었다. 렌런드 장로는 18년 동안 유타 대학교 부속 병원 심장 이식 프로그램의 의료 책임자를 역임했다. 그는 2000년에 솔트레이크시티에 있는 인터마운틴 헬스 센터의 심장 마비 예방 및 치료 프로그램 책임자를 지내기도 했다. 이 프로그램은 이식 가능한 심장 펌프와 완전 인공 심장을 다루는 일이었다. 국제적으로 저명한 심장 전문의인 도널드



총관리 역원으로 봉사하는 부름을 받아들이기 위해 심장병 전문의로서의 성공가도에서 물리난 렌런드 장로가 첫 번째 받은 임무는 아프리카 남동 지역 회장단에서 봉사하는 것이었다. 반대쪽 몬순 회장의 집무실에서 하인리히 호프만의 구주라는 그림을 보고 마음을 뺏긴 렌런드 장로는 자신의 집무실에도 같은 그림을 걸었다.

비 도티 박사는 LDS 병원 재임 시절 렌런드 박사의 동료이자 베이었다. 도티 박사는 말한다. “그는 뛰어나게 훈련했고, 깊은 집중력을 발휘했으며, 유능한 행정력을 갖추었고, 동정심도 있는 탁월한 사람이었습니다.”

독실한 천주교 신자로 렌런드 박사와 오랫동안 함께 일했던 에이 지 키포리 박사는 렌런드 박사를 가리켜, 그가 심장 전문의로서 그 분야의 선두 주자였으며 “성품, 성실, 겸손, 동정심이 타의 추종을 불허한다.”라고 말한다. 또한, 그는 이렇게 덧붙인다. “[그는] 사람들이 최고의 능력을 발휘하게 했습니다. 그는 그 모든 것을 조용히 해냈습니다. 사람들의 말에 귀 기울였고 그들을 배려했으며 함께 일하는 사람들의 성공에 대단한 관심을 두었습니다.” 렌런드 박사는 조용한 모범으로 사람들을 이끌었으며 동료들의 가족에게도 항상 관심을 기울였다.

키포리 박사는 특히 렌런드 박사가



동정심으로 환자를 대하는 모습에 주목했다. 가령, 렌런드 박사는 교통수단이 없는 환자가 있으면 그 환자의 집까지 상당한 거리를 운전해 가서 환자를 차에 태워 다시 병원까지 데려오곤 했다. 키포리 박사는 이런 일이 놀라울 뿐이라고 했다.

칠십인으로서의 봉사

렌런드 장로는 솔트레이크 대학교 제1스테이크에서 5년간 스테이크 회장으로 봉사한 뒤, 2000년에 유타 지역에서 지역 칠십인으로 봉사하도록 부름을 받았다. 그리고 그 후 2009년 4월에는 칠십인 총관리 역원으로 부름받았다. 그가 처음 받은 임무는 아프리카 남동 지역 회장단에서 봉사하는 것이었는데, 이곳은 25개국에 걸쳐 교회 단위 조직이 있는 지역이다.

렌런드 장로는 부부가 이 부름을 받고 어떠했는지를 다음과 같이 말한다. “당연히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최정상에 올랐는데 직장을 그만두시는군요.’라고 말했습니다. 분명 사실이겠지요. 그렇지만 주님께서 저희가 최정상에 올랐을 때를 필요로 하신다면, 그때가 저희가 봉사할 시간이라면, 당연히 당장 그렇게 해야지요.”

렌런드 장로는 자신의 영웅인 아내를 가리켜, “아내가 더 큰 희생을 치렀습니다.”라고 말한다. 렌런드 장로는 남편과 봉사하기 위해 자신이 소유한 법률 회사의 회장직과 몇몇



특별한 증인으로 부름받다

2015년 9월 29일, 렌런드 장로는 예상치 못한 전화 한 통을 받았다. 제일회장단 사무실에서 걸려온 전화였다. “저는 [교회 행정 건물에서] 토마스 에스 몬슨 회장님과 두 분의 보좌들께 따뜻한 환대를 받았습니다.

자리에 앉자 몬슨 회장님께서 저를 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렌런드 형제님, 저희는 형제님이 십이사도 정원회의 회원으로 봉사하도록 부름을 드립니다.’

렌런드 장로는 깜짝 놀라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는 겸손하게 부름을 받아들였으며 그때를 이렇게 회상한다. “몬슨 회장님께서는 제가 넓이 나간 것을 느끼셨는지 저를 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형제님을 부르셨습니다. 주님께서 그 사실을 제게 알려주셨습니다.’”

집무실로 돌아온 렌런드 장로는 문을 닫고 무릎을 끊은 뒤 기도드렸다. 그리고 마음을 가라앉힌 뒤 아내에게 전화를 했다. “아내는 놀라워하면서도 주님과 그분의 교회와 저에게 절대적인 헌신을 보였습니다.”

딸 애슐리는 이렇게 말한다. “아버지께서 가지고 계신 탁월함은 하늘의 축복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버지는 이 부름을 위해 평생토록 봉사하시며 준비되어 오셨습니다. 아버지의 넓은 마음은 사랑으로 가득하십니다.”

렌런드 장로의 형인 게리도 이와 비슷한 말을 한다. “[동생은] 자신에게 온 부름을 위해 시험을 겪고 봉사하면서 오래전부터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이 일은 준비된 더 큰 계획의 일부이고, 저는 기꺼이 동생을 지지합니다.”

렌런드 장로는 부름의 중요성을 깊이 생각하며 이렇게 말한다. “저는 부족한 사람이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의 구주라는 사실만은 분명히 압니다. 저는 그분이 살아 계시며 그분은 저의 구주이자 여러분의 구주이심을 간증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것이 참됨을 압니다.” ■

이름난 이사직을 내려놓았다. 렌런드 장로는 말한다. “저희는 아프리카로 가서 그곳의 성도들에게 무엇이 정말 중요한지를 배웠습니다.”

어느 일요일, 렌런드 장로는 콩고 중부의 회원들에게 무엇이 당장 어려운지를 물은 일이 있었다. 그들은 선뜻 어려움을 떠올리지 못했다. 렌런드 장로는 재차 물었다. 마침내, 뒷자리에 있던 노신사가 일어나서 말했다. “렌런드 장로님, 어떻게 저희에게 어려움이 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있는데 말입니다.” 렌런드 장로는 그 경험을 돌이켜 보며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저는 이 콩고의 성도들처럼 되고 싶습니다. 음식을 위해 매일 기도하고, 주신 음식에 매일 감사하고, 가족이 있어 감사해하는 그들처럼 말입니다. 그들은 아무것도 없지만, 다 가지고 있습니다.”

렌런드 장로는 지역 회장단에서 봉사한 5년 동안 광대한 아프리카의 남동 지역을 수천 킬로미터 여행하며 회원과 선교사들을 방문했다. 그 지역의 여러 나라에서 프랑스어를 공용어로 썼기 때문에 프랑스어를 공부하기도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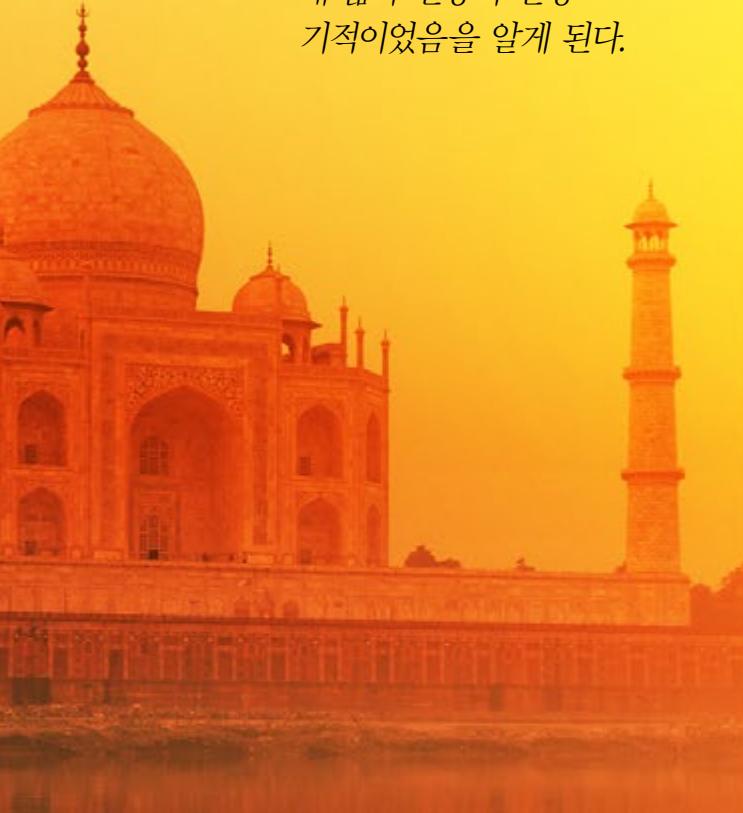
당시 아프리카 남동 지역 회장단과 함께 일했던 십이사도 정원회의 제프리 알 헐런드 장로는 렌런드 장로를 가리켜 이렇게 말한다. “누구도 렌런드 장로만큼 그 지역과 그곳 사람들과 그들의 필요 사항에 자신을 쏟아붓지는 못했을 것입니다. 그는 그곳 사람들을 알고 그들의 문화를 사랑하기 위해, 그리고 성도들이 구속의 빛이 있는 곳으로 나아가도록 돋기 위해 쉬지 않고 일했습니다.”

인도에서 시작하여 개척자로 걸어온

나의 여정



인도의 시골에서 “밀림의 소년”으로 시작하여 지금 이곳에 이르기까지의 내 여정을 돌아보면, 나는 내 삶과 신앙이 진정 기적이었음을 알게 된다.



소년 사진: 웬디 김스 카일리·타지마할 사진: 페일리 뉴턴 베경, 우편 사진 © ISTOCK/THINKSTOCK



망갈 단 딥티가 존 샌토시 뮤랄라에게 구슬한 내용

나는 인도에서 동고츠 산맥으로 둘러싸인 밀림의 작은 마을에서 태어났다. 내가 18개월이 되었을 무렵 우리 가족은 콜람 강 제방에 자리 잡은 댄그라팔리 마을로 거처를 옮겼다. 부모님은 바구니에 나를 담아들고, 걸어서 거기까지 가셨다. 마을에는 스무 가구 남짓이 살았고 주민들이 사는 오두막에는 전기도 들어오지 않았다. 학교도 병원도 버스 정류장도 없었다. 식수를 얻으려면 강바닥을 파고들어 갔다. 나는 밀림과 들판에서 놀았고, 늪지에서 죽마를 타기도 하고 강에서 수영도 하며 어린 시절을 보냈다.

내 조상들은 자그달푸르 바스타르의 마하라자(왕)의 통치 아래에서 힌두교 사원의 승려였다. 그러나 정치 상황이 위험하리만큼 불안정해지자 할아버지와 가족들은 코트페드로 피신했다. 그들은 독일 루터 교회의 선교 지역에서 피난처를 얻었으며, 할아버지는 그곳에서 사람들을 돌보며 약초로 사람을 치료하는 아유르베다를 업으로 삼으셨다. 할아버지는 이곳에서 기독교로 개종하는 길을 택하셨다.

아버지는 전도사 겸 구루(영적 지도자)가 되어 기독교 신앙을 이어 가셨다. 나는 태어나자 기독교 신앙의 전통을 물려받아 망갈 단 딥티(“선”, “선물”, “빛”이라는 뜻)라는 이름을 얻었다.

나는 어린 시절에 꼬박꼬박 독일 루터 교회에 나갔다. 우리는 종종 다 같이 기도하러 산으로 가기도 했다. 비가 내리던 어느 날, 기도하던 무리가 모두 비에 흠뻑 젖었는데, 목사님 한 분이 비를 멈추어 주십사 청하며 주님께 간절히 기도를 드렸다. 그러자 놀랍게도 비가 그쳤다. 하나님과 기도에 대한 내 신앙은 그렇게 시작되었다.

몰몬교는 기독교인가?

8학년을 마친 나는 학교를 그만두고 코트페드에 있는 3년 과정의 신학교에 들어갔고 아버지처럼 전도사로 임명되었다. 그리고 코트페드 근방에서 몇 년간 모임을 이끌다가 인도 북부로 거처를 옮겼고, 그곳에서 기독교 복음주의 문학계에서



나온 서적들을 판매하기 시작했다. 그러다 *Is Mormon Christian*[몰몬교는 기독교인가?]라는 책을 접하게 되었다. 그 책은 어딘가 강하게 마음을 끄는 데가 있어서, 나는 그 책을 읽어 보기로 했다.

책에는 몰몬과 그들의 믿음을 비판하는 내용이 많이 실려 있었다. 그럼에도, 특히 신회의 개념이라든지, 몰몬 예배의 요소요소, 그리고 일부다처제의 역사같이, 책의 여러 부분에 마음이 끌렸다. 그렇지만 무엇보다 흥미로웠던 것은 그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따서 명명되었다는 점이었다. 더 알고 싶은 호기심이 일었다.

어느 날 기도를 하는데 몰몬 교회에 관해 알아보아야겠다는 영감이 들었다. 나는 유타 주 솔트레이크시티에 교회의 본부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편지를 쓰기로 마음먹은 뒤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 책임자 앞, 미국 유타 주 솔트레이크시티”라고 주소를 적어서 편지를 보냈다.

사도에게서 배우다

1959년, 교회 선교사부의 라마르 윌리엄스 형제가 내 편지에 대한 답으로 조셉 스미스의 간증과 신앙개조, 그리고 몰몬경을 보내왔다. 나는 그것을 모두 공부한 뒤 그것이 참됨을 확인했다. 그러나 이도에는 나를 가르쳐 줄 선교사나 회원이 없었다.

그러다가 1961년 1월에 십이사도 정원회의 스펜서 더블유 김볼(1895~1985) 장로가 텔리를 방문했다. 나는 그분과 함께 사흘 동안 아그라의 타지마할과 다람살라를 여행했고, 마치 스펜지처럼 그분이 주신 복음 가르침을 받아들였다. 김볼 장로가 방문한 마지막 날, 나는 침례받을 준비가 되어 있었다. 나는 1961년 1월 7일에 아무나 강에서 김볼 장로에게서 침례를 받았다. 호기심에 찬 구경꾼들이 많이 있었지만 공식적인 증인은 김볼 자매였다. 그리고 그날 저녁에 나는 화이트 반았다.

아무 방해 없이 주님의 사도께 가르침을
받았던 그 사흘은 내 인생 최고의 시간
중 하나였다. 그분은 이제 내 특별한 몰몬
치구연기에 이별을 가스 아파다.

회원과 함께하기를 각망하며

키볼 장로가 떠나고 난 뒤 친구들에게 내

개종 경험을 전하자 친구들은 나를 조롱했다. 하지만 나는 복음이 참됨을 알았고 그것을 부정할 수는 없었기에 새 일을 찾기로 했다. 나도 아버지처럼 의류 사업을 시작했다. 그러나 나는 교육을 더 받지 않는다면 발전할 수 없다는 사실을 차츰 깨달았다. 이십 대 중반에 들어선 내가 학교로 돌아간다는 것은 매우 두려운 일이었지만, 나는 그 후 9년 동안 교육을 받았다. 오전에 일을 하고 저녁에 공부를 했다. 모든 수입이 교육에 들어갔다. 나는 단단히 결심을 했으며, 신성한 도움을 구하는 기도를 드렸다. 나는 아그라 대학에서 철학, 사회학, 예술 분야에서 학사 학위를 목표로 공부했고, 마침내 메리트 대학에서 법학 학위 과정을 밟게 되었다.

그 9년 중 초반에, 텔리에는 미국 대사관에서 일하던 쇼트레프트라는 한 후기 성도 가족이 있었다. 나는 그 집에서 갖는 성찬식 모임에 참석하려고 텔리를 오갔다. 1962년에는 십이사도 정원회의 리차드 엘 에번즈(1906~1971) 장로가 우리를 방문했고, 1964년에는 십이사도 정원회의 고든 비 힙클리(1910~2008) 장로가 우리를 방문했다. 힙클리 장로에게 화환을 걸어 드리고 여러 해 동안 모은 십일조를 담은 단지를 전해 드렸던 기억이 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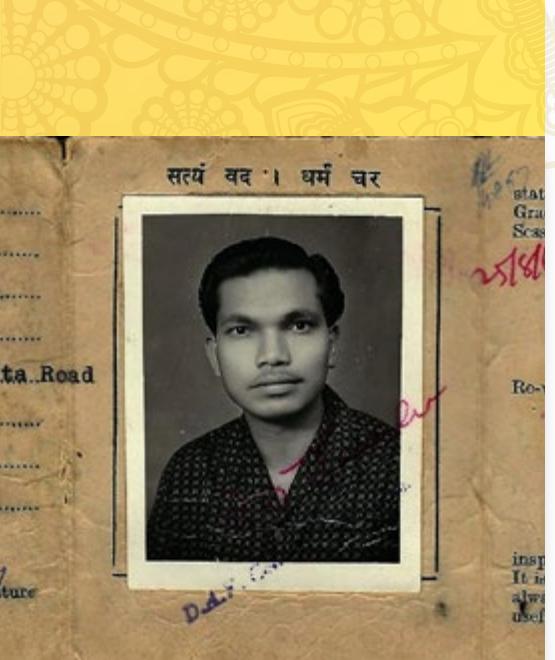
아쉽게도 이런 교제의 순간들은 도움이 되기는 했지만 자주 이루어지지 않았고, 인도에 있는 동안은 다른 성도들과 지속적인 교제를 나눌 길이 전혀 없었다. 이 일로 나는 마음이 복잡해졌다. 한 해 한 해 흐르면서 고독한 마음은 나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고 나는 인도에서는 미래가 없음을 깨달았다. 나는 신권을 갖고 싶었고 성도들과 함께 살고 싶었다.

개천자가 되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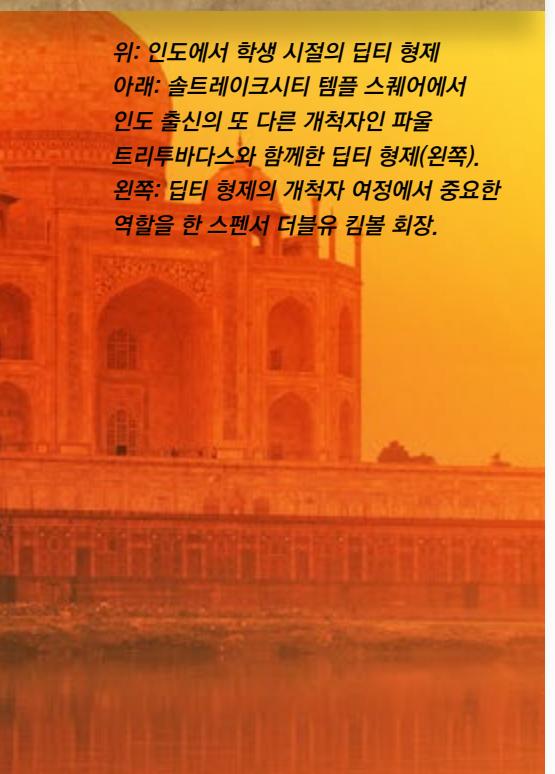
성도들과 더 가까이 지내야 함을 깨달은 나는 법학
공부를 그만두고 캐나다로 이민을 갔다. 앨버타 에드먼턴에
도착하자 나는 가장 가까운 와드로 갔다. 나는 해리
스미스 감독을 만났고 곧바로 그 와드에서 소속감과
우정을 느꼈다. 앤다우먼트를 받기 전이었지만 앨버타
카드스턴 성전에도 갔다.

나는 솔트레이크시티로 가서 훌륭한 나의 친구
킴볼 장로와 라마르 윌리엄스 형제를 놀라게 해
드리고 싶었다. 마침내 1969년 봄, 침례를 받은 지
8년만에 나는 솔트레이크시티로 가서 킴볼 장로를





위: 인도에서 학생 시절의 딥티 형제
아래: 솔트레이크시티 템플 스퀘어에서
인도 출신의 또 다른 개척자인 파울
트리투바다스와 함께한 딥티 형제(왼쪽).
왼쪽: 딥티 형제의 개척자 여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 스펜서 더블유 김볼 회장.



만났다. 그분은 기뻐하며 그날의 나머지 시간을 나와 함께해 주셨다.

솔트레이크시티에 머무는 동안 나는 머리를 자르려 이발소에 갔다. 나는 이발사에게 간증을 전했는데, 그도 개종자였다. 순서를 기다리던 한 신사가 우연히 우리 얘기를 들더니 자기가 인도에 갔던 일을 이야기했다. 신사는 내 이발 비용을 치르더니 나를 저녁 식사에 초대했고 차를 몰아 브리검 영 대학교에까지 나를 데려다주었다. 교정은 인상적인 모습이었다. 나는 학업을 계속하고 싶지만 여력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내 학비로 1,000달러를 지불해 주겠다고 했다. 놀랍기도 하고 더없이 고맙기도 했다.

나는 브리검 영 대학교에서 운영하는 사회사업 프로그램에 참여했다. 1972년, 브리검 영 대학교를 졸업한 나는 유타 대학교에서 석사 과정을 밟기 위해 솔트레이크시티로 옮겼다. 그 뒤에는 미국 캘리포니아로 가서 임상 심리학 박사 학위를 받았고, 가정 폭력을 멈추는 방안을 다루는 과정들을 가르쳤으며, 책을 한 권 쓰기도 했다. 이제 나는 은퇴하여 아내 웨ン디와 함께 미국 네바다 주에 살고 있다.

내게는 개인적으로 무수한 갈등과 도전, 시련을 겪던 때가 있었다. 나는 복음에 집중하고 성전의 축복을 받으면서 인생의 많은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었다.

그분의 놀라운 계획

나는 종종 인도의 시골에서 “밀림의 소년”으로 시작하여 지금 이곳에 이르기까지의 여정을 돌아본다. 그리고

내 삶과 신앙이 진정 기적이었음을 깨닫는다. 주님은 내가 기대했던 것보다 훨씬 더 아름답게 내 삶을 수놓아 주셨다. 주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선지자인 스펜서 더블유 김볼 회장의 가르침을 받고 인생 여정의 중요한 순간들을 그분과 함께 걸었다니 얼마나 멋진 일인가.

나는 종종 김볼 회장과 함께 보낸 시간을 돌아보곤 한다. 그분은 가족과 애영을 가거나 소풍을 갈 때, 그리고 추수감사절과 크리스마스 저녁 식사에 나를 초대하셨다. 그때도 나는 그분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요 선지자셨음을 알았다.

그분이 매우 편찮아서 병석에 계실 때 나는 마지막으로 그분을 찾아뵈었다. 그런데도 그분은 여전히 미소 띤 얼굴로 나를 안아 주셨다. 김볼 회장은 내가 만난 첫 번째 후기 성도였으며, 나는 그분이 절대 나를 버려두지 않으시리란 것을 알고 있었다.

나는 선지자와 회복된 복음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한다. 우리 교회는 오늘날 세상에 필요한 신성한 본보기이다. 교회 덕분에 나는 교육을 받을 수 있었고 한 인간으로서 성장할 수 있었다. 기도가 참됨을 알게 된 그날이 감사하고, 기꺼이 고요하고 작은 소리를 귀기울여 들으며 교회에 대해 알아보고자 했던 그날이 감사하다. 주님께서 내 삶을 빛어 주시도록 내가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길 수 있었음이 감사하다. 우리가 그의 나라를 먼저 구하면 그밖의 모든 것이 우리에게 더해질 것임을 나는 안다.(마태복음 6:33 참조) ■

글쓴이는 인도 텔랑가나 출신이다.



사르밧의 과부처럼: 금식 헌금의 기적

금식 헌금을 더 후하게 낼까 생각하던
차에, 사람이 빵 부스러기를 주님께 드리면
주님께서는 반드시 온전한 빵 한 덩어리로
보답하신다는 것이 생각났다.

포 니엔 (펠리페) 처우와 페트라 처우

전 세계적으로 많은 가족이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특히 경제 위기의 시기에 말이다.¹ 여러 해 전, 경제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몇몇 가족을 보며 우리 지역 와드에서도 그 위기의 영향을 느낀 적이 있었다. 그해 초, 우리 감독님은 가난한 사람을 돋기 위해 금식 헌금을 후하게 내라는 스테이크 회장님의 권고를 회원들에게 전했다.

지도자들은 회원들에게 각자 처한 상황을 살펴보고 금식 헌금을 더 후하게 낼 여력이 있는지 고려해 보도록 부탁했지만, 얼마를 내야 하는지가 구체적으로 언급되지는 않은 상태였다. 그런데 영은 오래전 제일회장단 제1보좌였던 매리온 지 롬니 회장(1897~1988)의 권고를 우리 마음에 떠올려 주었다. “저는 여러분이 교회와 왕국 건설을 위하여 기부한다고 해서 재정적으로 더 가난해질 수는 없다는 확신을 갖고 있습니다. … [사람이 빵 부스러기를 주님께 드리면 주님께서는 반드시 온전한 빵 한 덩어리로 보답하십니다.] 저는 그 사실을 경험했습니다. 교회 회원들이 금식 헌금을 배로 낸다면 그들의 영성 또한 배가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염두에 두고 헌금을 [후하게] 내야 합니다.”²

우리 가족은 금식 현금을 더 내려면 희생을 감수해야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루니 회장님의 가르침과 약속을 깊이 생각해 보았다. 지금까지 풍성한 축복을 받았던 우리는 금식 현금을 더 내고 싶다는 강한 열망을 느꼈다.

무엇보다, 우리 가족이 이기적인 성향을 이겨 내기를 바랐다. 워낙 물건을 손에 넣고 욕망을 채우기에 급급한 사회에서 사는지라, 우리는 자녀들이 이기적인 모습으로 성장할까 걱정이었다. 그러나 스펜서 더블유 킴볼(1895~1985) 회장님의 다음 말씀에서 우리는 희망을 얻었다. “금식의 법을 지키[면] 방종과 이기심을 극복하는 힘이 내면에서 샘[솟게 될 것입니다.]”³

금식 현금을 더 후하게 낸 지 석 달이 채 안 돼, 우리는 많은 축복을 눈으로 확인하기 시작했다. 식료품 비용을 아낄 수 있었고 유류비도 줄어드는 것 같았다. 아이들의 요구가 줄었고 집안에서 이기심도 거의 사라졌다.

가령, 지역에서 열린 식량 모으기 행사에 기부할 때는, 더 많이 내도록 오히려 아이들이 우리를 격려하기 시작했다. 한 해의 식량 비축 상태를 점검해 보니 실제로 우리는 2년 치 식량이 비축된 상태였다. 게다가 전에는 한 달에 23kg짜리 쌀 한 포대가 필요했다면 지금은 같은 양으로 두 달을 먹을 수 있었다. 마치 우리가 비축한 식량이 점점 불어나고 있는 것 같았다.

사르밧의 과부 이야기가 떠올랐다. 기근이 들었던 때, 선지자 엘리야는 한 과부에게 물과 떡을 달라고 청했지만 그녀는 줄 것이 없었다. 과부는 이렇게 말했다.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 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 뿐이라 내가 나뭇가지 둘을 주워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열왕기상 17:12)

선지자는 과부에게 약속했다. “그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와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열왕기상 17:14~15) 과부와 아들이 마지막 한 끼를 먹을 양만 남아 있던 통은 이제 과부와 아들은

물론 다른 사람들이 여러 날을 먹어도 될 만큼 채워져 있었다. 현금을 바치자 우리 가족도 이와 비슷한 축복을 받았다.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겪을 때는 금식 현금을 후하게 내고 궁핍한 자를 돌보기가 어려울 것이다. 사르밧의 과부처럼 우리 자신이 궁핍할 때는 특히나 그렇다. 금액과 상관없이 후한 금식 현금을 내려면 주님을 믿고 우리를 돌보시겠다는 그분의 약속을 믿는 신앙을 가져야 한다. 그러나 주님은 당신의 약속을 지키시며, 우리 가족은 기꺼이 나누려 할수록 더 많이 축복받는다는 사실을 경험으로 배웠다.

루니 회장님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다. “가난한 사람들을 돋기 위하여만 주지 마시고 자신의 복지를 위하여도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재산과 시간을 현납함으로써 여러분 자신을 하나님의 왕국에 내어줄 수 있도록 후하게 내십시오.”⁴ 금식 현금을 더 후하게 낸 덕분에 우리 가족은 가난한 자를 돌보며 기쁨을 느꼈고, 우리의 영적인 복리에서 힘을 찾았다.

우리는 그저 기꺼운 마음으로 작은 부스러기를 바쳤을 뿐이지만, 우리는 그 보답으로 큰 덩어리를 받았다. 기꺼운 마음으로 금식 현금을 후하게 바치자 비축해 둔 식량은 배 이상 불어났다. 참으로, 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로 여자와 어린이 외에 오천 명을 먹이신 후 남은 조각을 열두 바구니에 차게 거두신(마태복음 14:16~21 참조) 주님의 권능은 사르밧 과부의 통을 채우시고 우리 가족의 비축 식량을 불어나게 하신 것과 똑같은 권능이다. 그러나 우리가 얻은 가장 큰 유익은 식량이 불어난 것이 아니라 우리 가정에 이기심이 줄고 영성은 늘었다는 것이었다.

풍족하지 않을 때조차도 교회의 금식 현금에 후하게 바치면 주님께서는 우리의 노력을 배가시켜 주시고 우리의 이해를 넘어서는 축복을 주신다는 것을 간증한다. ■

글쓴이들은 미국 유타 주에 산다.

주

1. 예를 들어, 헨리 비 아이어링, “[이것이] 내가 기뻐하는 금식[이] … 아니겠느냐”, 리아호나, 2015년 5월호, 22~25쪽 참조.

2. Marion G. Romney, Welfare Agricultural Meeting, Apr. 3, 1971, 1.

3. 스펜서 더블유 킴볼, “마음이 청결한 자가 됨”, 성도의 빛, 1978년 10월호, 124쪽.

4. 매리온 지 루니, “금식의 축복”, 성도의 빛, 1982년 12월호, 4쪽.



금식: 성스러운 특권을 소중히 여기십시오

“금식의 법을 실천하는 사람들에게는 영적으로나 현세적으로 기적이 온다는 것을 간증드립니다. 제게도 그런 기적이 왔음을 간증합니다. 이사야가 기록한 것처럼 저는 참으로 한 번 이상 금식하며 외쳤고, 진실로 하나님께서는 “내가 여기 있다”(이사야서 58:9)라고 응답하셨습니다. 최소한 매달 그런 성스러운 특권을 소중히 여겨 금식 헌금과 인도주의 기금과 영구 교육 기금, 선교사 기금을 내실 때는 여건이 허락하는 대로 넉넉히 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넉넉하게 주실 것임을 약속하며, 여러분의 도움을 받는 사람들은 여러분의 이름을 영원히 복되다 할 것입니다.”

제프리 알 훌런드 장로,
십이사도 정원회, “우리는
모두 구걸하는 자가 아니나?”,
리아호나, 2014년 11월호, 42쪽.

여러분이 가르치는 청소년을 이해한다

우리가 가르치는 청소년에 대해 더 알려고 노력할 때
그들의 참된 개종으로 향하는 문이 열릴 것이다.

많은 청소년의 열정과 활력 덕분에 그들을 가르치고 조언하는 일은 기쁨이 된다. 그러나 개중에는, 성장하고 어른스러워지면서 신체적인 변화에 적응하는 문제에서부터 학교에서의 스트레스, 그리고 복음대로 사는 삶을 단념시키려는 문화적 압박에 이르기까지 사사건건 어려움을 겪는 청소년도 있을 것이다. 청소년은 자신을 이해하고 자신에게 관심을 기울여 주는 교사가 필요하다. 그들에게는 배우고, 또 배운 것을 실천할 안전한 환경을 조성해 줄 길잡이가 필요하다. 다음은 구주께서 보여 주신 방법으로 계획하고 준비하여 청소년을 가르칠 때 그들에 관해 알면 도움이 될 사항들이다.

1. 청소년은 교리를 배우길 원하며 또 배울 필요가 있다. 청소년은 복음의 표준에서 멀어져 가는 세상 속에서 영원한 진리에歸주려 있다. 그들은 “사물을 있는 그대로 … 사물을 장차 있을 그대로”(야곱서 4:13) 배우고 싶어 한다. 이런 것들은 복음 교리 안에서 찾을 수 있다. 우리는 경전에 있는 교리와 살아 있는 선지자와 사도들의 가르침, 그리고 교회의 다른 공식적인 자료들에 초점을 맞추어 가르쳐야 한다. 그리고 청소년이 스스로 이런 자료들을 공부하도록 격려해야 한다. 교리의 효과는 강력하다.(앨마서 31:5 참조)

2. 청소년은 자신의 정체성을 확립하는 단계에 있다. 그들은 자신이 누구인지, 그리고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지 알아내려고 애쓰고 있다. 그들은 장래에 맡게 될 역할을 위해 준비해 나가는 가운데, 주님께서 자신을 위해 계획하신 바가 무엇인지, 그리고 자신이 기대되는 바를 모두 이룰 수 있을지 궁금해할 것이다. 우리는 부모와 교사로서 청소년이 자신의 미래를 확신하도록 영감을 주고 그때를 위해 준비하도록 인도할 수 있다. 우리는 그들이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고 복음의 표준

위에 삶을 정립하도록 도와야 한다. 또한, 성전의 중요성을 비롯하여 하나님의 왕국을 세우는 일에서 그들이 맡은 역할을 가르쳐야 한다.

3. 청소년은 우리가 그들에게 관심이 있는지를 알아차린다. 청소년은 우리가 그들에 대한 사랑과 개인적인 관심이 있음을 알 때 진심으로 복음을 배우려는 마음을 갖는다. 그들의 말에



귀를 기울인다. 그들에게서 긍정적인 면모를 찾고 그것을 토대로 가르친다. 청소년에 대한 믿음을 표현하고 그들이 가치 있고 필요한 존재라는 확신을 준다.

4. 청소년의 관심사는 다양하다. 청소년은 모두 각양각색이다. 우리는 그들의 개인적인 관심사, 필요 사항, 그리고 어려움을 알아야 한다. 그러려면 정기적으로 계획된 모임이나 공과, 활동을 넘어서서 청소년에게 다가가야 할지도 모른다. 우리는 그들을 알아 감으로써 영을 통하여 그들의 필요 사항에 관한 통찰력과 영감을 얻을 수 있으며, 이 필요 사항에 따라 학생들을 가르치는 방법은 달라질 수 있다. 청소년들은 우리가 그들의 삶에 진정으로 관심을 두고 있다고 느낄 때 우리의 가르침과 간증에 더 마음을 열 것이다.

5. 청소년은 자신의 질문에 대한 답을 스스로 찾을 수 있다. 모든 나이의 학습자가 복음에 대한 깨달음과 통찰을 발견하는 즐거움을 누릴 수 있지만, 이는 특히 자신의 가치와 신념을 개발하는 청소년에게 더욱 중요한 일이다. 개인적으로 복음을 깨닫고 이를 실천할 때, 복음이 주는 가르침은 지속적인 영향을

미친다. 청소년에게 답을 주는 대신, 그들이 스스로 답을 찾도록 권유하고 영감을 주는 교수법을 사용한다. 이는 더 깊은 개종으로 이어질 것이며, 그것이 바로 모든 복음 가르침의 궁극적인 목적이다.

6. 청소년은 서로 가르칠 수 있다. 청소년은 배운 것에 대한 의견을 나누는 데 흥미를 느끼고, 그들이 아는 것을 이야기하기를 좋아한다. 그들은 우리의 모범과 가르침을 통해 구주께서 보여 주신 방법으로 가르치는 법을 배울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우리가 이끌어 주면, 그들은 공과의 일부를 가르치거나 짧은 토론을 이끌어 보면서 이런 과정을 시작할 수 있을 것이다. 청소년이 경험을 쌓고 자신감을 얻으면 가끔 공과 전체를 가르치는 기회를 그들에게 줄 수 있다. 청소년들이 서로에게 배울 때, 그들은 다른 가치관을 가진 사람들에게서 오는 압력에 굴하지 않도록 서로를 강화하게 된다.

7. 청소년은 지도력을 배우고 있다. 반 및 정원회 회장단은 또래들을 인도할 성스러운 부름을 맡고 있다. 그러나 지도력을 경험한 뒤에도, 모임을 이끌고 다른 사람의 학습을 도우며 봉사하는 법에 관해서는 우리의 인도가 필요할 것이다. 또한, 그들은 가정에서 맡은 중요한 책임 속에서 지도력을 발휘할 기회를 얻기도 한다.

8. 청소년은 부모의 모범과 다른 어른들의 모범을 보며 배운다. 교사로서 우리가 맡은 중요한 책임 한 가지는 청소년, 지도자, 그리고 부모 사이의 관계가 강화되도록 돋는 것이다. 청소년의 질문 중에는 우리의 도움을 받아 그들이 스스로 답을 찾을 수 있는 질문도 많지만, 부모나 지도자에게 답을 얻는 편이 나은 질문도 있다. 우리는 청소년들이 부모에게 향하게 하고 가족의 유대를 튼튼히 하도록 그들을 격려해야 한다. 또한, 여러분은 청소년의 부모와 정기적으로 소통하면서 그들이 공과에서 무엇을 배우고 있는지를 공유하고 그들의 재능, 성장, 그리고 그들이 긍정적으로 이바지하는 부분 등 우리가 관찰한 바를 부모에게 알린다. 부모들이 자녀를 가르칠 때 우리가 도울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물어보아도 좋다.

청소년의 개종을 도우려면 부모, 지도자, 고문, 교사, 세미나리 교사가 힘을 합해야 한다. 청소년을 위해 모두 함께 협력할 때, 여러분은 혼자서 하는 것보다 훨씬 더 강력한 학습 경험을 청소년들에게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

추가적인 아이디어를 보려면 새로운 교재인 구주께서 보여 주신 방법으로 가르침의 “청소년을 가르친다” 부분을 본다.(teaching.lds.org/kor에서 온라인으로 볼 수 있다)



“너희의 어린 자들을 보라”

어린이를 가르치는 법 배우기

“[예수께서] 그들의 어린아이들을 하나씩 안으시고, 그들을 축복하시며, 그들을 위하여 아버지께 기도하시더라. … 그리고는 무리에게 말씀하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의 어린 자들을 보라 하시더라.”(제3니파이 17:21, 23)

현 재 부모이거나 지금까지 어린이를 가르치는 부름을 받은 적이 있다면 여러분은 훌륭한 축복을 받은 것이나 다름없다. 십이사도 정원회의 엠 러셀 밸라드 장로는 이렇게 가르쳤다. “[여러분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늘의 어린이들을 사랑, 신앙의 불꽃 및 그들의 존재 가치에 대한 이해심으로 감싸 주라는 명을 받은 사람들입니다.]”¹

어린이들은 여러분에게 기쁨을 가져다주며 좋은 모범이 되겠다는 동기를 부여한다. 어린이들의 충실함, 사랑, 신뢰, 그리고 소망을 이해할 때 우리는 주님과 더 가까워질 수 있고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라]”(마태복음 18:3)는 그분의 계명을 더 잘 이해하게 될 것이다.

다음은 구주께서 가르치신 방법으로 어린이들을 사랑하고 가르치기 위해 노력할 때 어린이들에 대해 기억할 여덟 가지 사항이다.

1. 어린이는 기꺼이 믿는다. 그들은 진리를 잘 받아들인다. 정확한 교리를 어린이들이 이해할 수 있는 말과 모범으로 단순하고 명확하게 가르친다.

2. 어린이는 성신의 영향력을 인식할 수 있다.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복음에 관해 이야기하거나 노래할 때 느끼는 평화와 사랑, 기쁨은 성신으로부터 온다는 것을 가르친다. 그 느낌들이 간증의 한 부분임을 이해하도록 돕는다.

3. 어린이는 개념을 문자 그대로 이해한다. 복잡한 비유는 어린이들을 혼란스럽게 할 수 있다. 가정과 가족, 그리고 어린이를 둘러싼 환경 등 어린이에게 익숙한 일이나 활동을 참고하여 가르친다.

4. 어린이는 배우기를 원한다.

어린이는 다양한 경험과 감각을 통해 배우는 것을 즐긴다. 특히 시각 자료와 수업에 참여하는 기회에 잘 반응한다. 어린이들이 몸을 움직이고 탐구하며 새로운 것을 시도해 보게 한다.

5. 어린이는 나누고 돋기를 원한다. 어린이는 서로 가르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교사를 가르칠 수 있는 부분도 있다. 지금 어떤 내용을 배우고 있는지 이야기해 달라고 부탁한다. 어린이들에게 성구 읽기, 그림 들어 주기, 질문에 답하기, 칠판에 적기 등의 기회를 준다.

6. 어린이는 사랑이 넘치며 자신이 사랑받기를 원한다. 어린이가 천부적으로 지닌 친절하고 사랑스러운 행동들을 강화할 기회를 찾아본다. 여러분의 사랑과 감사를 표현하고 그들의 말을 경청함으로써 자신감을 높여 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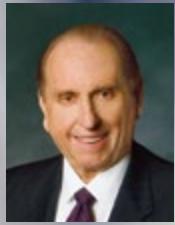
7. 어린이들은 여러분의 모범을 따른다. 여러분은 스스로 깨닫지 못하는 순간에도 어린이들을 가르치고 있다. 어린이들은 여러분이 어떻게 원리를 가르치고 그것을 실천하는지 알아차릴 것이다. 여러분의 의로운 모범은 어린이들이 간증을 키우는 데 강력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8. 어린이들은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 짧다. 산만한 행동은 그들이 피곤하고 배가 고프다는 의미이거나 여러분이 말한 것을 이해하지 못했다는 의미일 수 있다. 또한, 몸을 움직일 필요가 있다거나 지루하다는 의미일 수도 있다. 그들은 반복, 다양성, 간단한 이야기, 노래, 활동을 통해 배우기를 좋아한다. 어린이들이 수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격려한다. ■

추가적인 아이디어를 보려면 새로운 교재인 구주께서 보여 주신 방법으로 가르침의 “어린이를 가르친다” 부분을 본다.(teaching.lds.org/kor에서 온라인으로 볼 수 있다.)

주

1. M. Russell Ballard, “Great Shall Be the Peace of Thy Children,” *Ensign*, Apr. 1994, 60.



“어린아이들의
웃음으로 우리의
마음이 기쁘게
되기를 바랍니다.
어린아이들의 신앙으로
우리의 영혼이
위로받기를 바랍니다.
어린아이들의 사랑으로
우리가 선행을 하도록
영감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토마스 에스 몬슨 회장,
“소중한 어린이,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 리아호나,
2000년 6월호, 9쪽





매리온 디 행크스
(1921~2011) 장로
1953년부터
1992년까지 칠십인
정원회 일원으로
봉사함

성전 예배

하나님을 아는 열쇠

성전에서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지상에서 사셨던 방식으로 사는 법을 배우고,
그분과 아버지께서 지금 살고 계신 삶을 살 준비를 할 수 있습니다.

저 는 솔트레이크 성전의 성전 회장으로 봉사하기 시작한 후 성전 참석자와 나누었던 간절하면서도 진심어린 첫 번째 대화 중 하나가 생생히 기억납니다. 사려 깊은 한 젊은 숙녀는 배움과 가르침의 집인 성전의 기능에 관한 해당 성구를 꼼꼼히 읽었습니다. 그 자매님은 “영생”은 하나님과 그리스도,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요한복음 17:3)를 아는 것임을 깨달은, 꽤 지각 있는 여성이었습니다. 자매님은 또한 우리가 아버지를 알기 위해 배우며, 궁극적으로 그리스도를 통해 아버지께 돌아간다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제가 그 자매님에게 드린 간증은, 성전 내의 모든 것은 결국 그리스도와 하나님 아버지를 가리킨다는 것이었습니다. 의식과 성약의 효력은 속죄를 있게 한 구주의 사랑과 위임된 권세, 곧 “하나님의 아들의 반차를 죽는 성 신권”(교리와 성약 107:3)의 권세 안에 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과 가슴에는 성전 예배가 어떻게 주님을 아는 데 핵심이 되는 열쇠인지 아직 분명히 이해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

그리스도, 경전, 성전, 가정

성전은 우리 자신을 깨끗하게 하여 그 결과로 성결하게 하는 환경을 제공하는 점에서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성전은 우리가 그리스도에 대해 배우는 동안 인생의 가장 귀한 은사로

인도하는, 그분에 관한 개인적인 지식과 증거에 이르게 할 수 있습니다.

성전에서의 배움과 예배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영생을 배우는 대학이 될 수 있습니다. 커틀랜드에서의 현납 기도에서는 이런 간청을 주님께 드린 바 있습니다. “무릇 이 집에서 예배드릴 모든 자가 … 지혜의 말씀을 가르침 받게 하시고, …

그들이 당신 안에서 성장하며, 성신의 충만함을 받[게 하시옵소서.]”(교리와 성약 109:14~15)

이 간청이 과연 의식과 의례로 성취될까요? 부분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아담과 이브가 지상 생활의 초기에 알게 되었듯이, 우리가 목적과 상징을 이해한다면 말입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우리는 메시지의 본질, 곧 영원한 진보의 원리를 통해 영생에 대하여 배웁니다. 그것은 우리가 주님과 성약을 맺는 몇 가지 단순한 원리에 관한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고,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로마서 5:10) 구원을 받는다고 바울이 로마인에게 한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이 말씀이 제게 의미하는 바는, 그분의 거룩한 생애에서 볼 수 있는 원리들이 우리를 승영이라고 알려진 충만한 구원으로 인도한다는 것입니다. 승영이란 곧 사랑하는 사람들과 더불어 아버지와 아들과 함께 사랑과 배움이 있고, 봉사하고 성장하는, 하나님 수준의 창조적인 삶입니다. 성전에서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지상에서 사셨던 삶,



그리고 그분과 아버지께서 지금 살고 계시는 삶의 방식을 배울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생애에서 중심이 되는 원리

그리스도의 생애에서 중심이 되는 원리들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그 원리들을 성전에서 배우며 그것들은 우리가 주님과 맺는 성약과 관련이 있습니다. …

주님께서는 어쩌면 그분 당신과 아버지만이 이해하는 방식으로 사랑하셨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그 방식을 배우기 위해, 그리고 줄 수 있을 만큼 충분히 사랑하는 법을 배우기 위해 이곳에 있습니다. 저는 전쟁터에서, 병원의 병실에서, 그리고 부모 또는 자녀가 드러나지 않는 조용한 영웅으로서 비이기적인 헌신을 보이는 상황 속에서 참으로 주님의 방식대로 사랑하고 희생하는 법을 배운 이들이 있음을 보았습니다.

우리가 베풀과 보살핌, 자비와 친절이라는 노정을 선택하고 따를 때, 그런 것들이 선택적 요소가 아닌, 복음의 정수임을 알게 됩니다.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은 품위와 명예, 이타심, 예의 바름, 그리고 훌륭한 취향입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어떤 사람이며, 또 무엇을 기꺼이 주고자 하는가가 참으로 중요합니다. … 우리는 주님의 뜻과 인도를 배우고 받아들이면서 매일, 매시간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 무엇을 기꺼이 줄 것인지를 결정합니다.

구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 살아남은 제자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다. 당시 사도들은 베드로가 이끌고 있었고, 그는 힘든 순간에 주님을 부정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성령 강림, 즉 영의 임재하심이 일어났고, 신앙이 흔들리던 이들이 증거를 얻고 간증 안에서 힘있게 일어섰습니다. 사도행전 1장부터 5장까지에 나오는 이 이야기는 5장 마지막 구절에서 극적인 효과가 고조됩니다. 가말리엘은 동료들을 중재하여 사도들에게 기회를 주고 시간을 좀 더 주자고 합니다. 그리하여 사도들은 그리스도에 관해 가르치고 전파하기를 중단하라는 경고를 재차 받고, 한 차례 더 채찍질을 당한 후 석방됩니다. 기록에는 사도들이 그리스도를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겨지게 되었음을 기뻐하면서 그곳을 떠났다는 내용이 실려 있습니다. 그런 후, “그들[은]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였습니다.]”(사도행전 5:42)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성전을 나설 때, 제3니파이 17장 3절의 가르침처럼 우리에게 무언가가 일어나야 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너희 집으로 가서, 내가 말한 것을 깊이 생각하며, 너희가 깨달을 수 있도록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간구하고, 내일을

위하여 너희 마음을 예비하라. 내가 다시 너희에게로 오리라.”

성전 예배를 통해 오는 정결하게 하는 힘

정결하게 하는 영은 우리로 하여금 사랑과 형제애를 연단하고, 주님의 뜻을 찾고 따르며, 봉사하고, 나누고, 사랑하고, 건전한 표준에 충실하며, 먼저 하나님의 왕국을 구하는 그런 새로운 사람이 되도록 이끌 수 있습니다.

우리는 가정에서의 삶을 정화해야 하며 가정을 매일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고 전파하는” 곳이자 언제나 그분을 따르는 곳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우리 가정과 가족, 그리고 개인의 삶은 배움의 중심, 비이기적인 행동과 봉사의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루퍼스 존스의 말을 빌리자면, 이렇습니다. “천사처럼 보이고 내적으로 영성을 드높인다고 해서 성도가 되는 것은 아니다. 성도란 빛과 힘의 초점이 되어 이를 발하는 존재라야 한다. 진정한 성도란 훌륭한 어머니, 좋은 이웃, 사회에 건설적으로 기여하는 사람, 함께 있을 때 주변을 밝혀 주고 축복이 되는 사람이다. 진정한 성도는 천국에서 온전히 실현되는 삶의 유형을 어떤 특정한 부분에서 드러내 보이는 역동적인 그리스도인이다.”¹

성전 및 성전 예배의 의미를 이해하기 위해 제게 분명하고도 중요한 열쇠가 되었던 부분에 대해 생각해 보겠습니다. 1836년, 주님은 선지자 조셉 스미스에게 커틀랜드 성전 현납식에서 드릴 기도문을 계시해 주셨으며, 그 기도는 교리와 성약 제109편이 되었습니다. 성전의 기본적인 의미를 이해하기를 진심으로



바라는 사람은 이 기도문을 읽고 또 읽되, 감동과 영감을 주는 첫 24절을 특히 정독해야 합니다. 5절은 깊이 숙고할 만한 아름다운 문장입니다. “이는 우리가 큰 환난 가운데서 이 일을 이루었으며, 우리의 살림이 궁핍한 중에서도 우리의 재물을 드려 당신의 이름을 위하여 한 집을 지은 줄 당신께서 아심이오니, 그리하였음은 인자께서 자기 백성에게 스스로를 나타내실 곳을 가지시게 하려 함이니이다.”(교리와 성약 109:5; 강조체 추가)

주님은 성전에서 어떻게 당신 백성에게 자신을 나타내실 수 있을까요?

우선, 저는 성전의 원리와 의식 및 성약의 아름다움과 강한 타당성을 통해 그분께서 자신을 나타내실 수 있다고 믿으며, 또한 성전 예배를 통해, 즉 생각과 마음이 영과 조화를 이루고 있으며 인내심을 가지고 배움을 갈망하고 자신의 삶을 그리스도께서 보여 주신 이상적인 삶으로 변화시키려는 소망을 지닌 이들에게 주어지는 계시의 영과, 영을 통해 오는 다른 축복을 통해 그분께서 자신을 나타내신다고 믿습니다.(제3니파이 27:21; 27 참조)

다음 한 가지 예는 성전에서 주님께 봉사하는 동안 인내심을 발휘하는 사람에게 오는 영적인 힘을 보여 주기에 충분할 것입니다. 저는 어느 날 새벽 네 시 반쯤, 세찬 눈을 뚫고 성전에 무사히 도착할 수 있었던 것에 감사하며 성전으로 들어갔습니다. 성전 안의 한적한 대기실에서 지팡이에 의지하여 생각에 잠긴 한 분과 우연히 마주쳤는데, 그분은 제가 깊이 존경하는 분이었습니다. 그분은 저처럼 성전 봉사자들이 입는 흰옷을 입고 계셨습니다. 저는 밝게 인사한 후, 그토록 이른 아침에 그곳에서 무얼 하고 계시느냐고 여쭈었습니다.

그분은 대답했습니다. “행크스 회장님, 제가 여기서 무얼 하고 있는지는 잘 아시지 않습니까? 의식 봉사자로서 임무를 수행하려고 여기 있지요.”

“네, 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눈보라를 뚫고 이곳에 도착하셨는지 궁금하군요. 방금 라디오에서 팔리스 캐니언의 모든 교통이 사실상 차단되다시피 한 상태라는 말을 들었거든요.”

그분이 대답했습니다. “제게는 나무도 타고 오를 수 있는 사륜 구동차가 있죠.”

저는 이렇게 맞장구를 쳤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곳에 오지 못했겠죠. 게다가 저는 여기서 그리 멀지 않은 곳에 사니까요.”

그런 다음 뉴스에서 전했듯이 협곡에 바리케이드가 쳐 있는 데도 어떻게 이를 건너 오셨느냐고 여쭈었습니다. 그분의 대답은 제가 그분을 처음 보았을 때 목장주이자 스테이크 회장님이셨던



그분을 떠올리게 했습니다. 한 스테이크 대회 전에 그분과 함께 오후 시간을 보내면서 보았던 그분은 말을 타고 다니시던 건강하고 강인한 분이었습니다. 그분은 관절염과 고령 탓에 문자 그대로 몸이 움츠러들었고, 세상을 떠날 날이 머지않은 분이셨습니다. 또 거동할 때는 큰 통증을 느끼셨습니다. 그날 아침 그분은 이런 대답을 하셨습니다. “행크스 회장님, 저는 그 도로공사 직원 중 여럿을 태어날 때부터 알아 왔는데, 그들은 제가 꼭 가야 한다는 것과 필요하다면 제가 산을 넘어서라도 가려 하리라는 걸 잘 알고 있었죠! 그들은 제 트럭 성능과 제가 어떤 사람인지도 잘 알고 있고요. 그래서 그들은 필요하다면 바리케이드를 옮겨 줍니다.”

그분은 그 이른 아침에 당신의 성스러운 일을 시작하고자 충실하고 충성스럽게 그곳에 계셨습니다. 그런 신앙을 지니고 그처럼 헌신하는 이들은 성전에서 발전하게 됩니다. ■

1993년 2월, 브리검 영 대학교에서 전한 말씀에서 발췌함. 말씀 전문은 *Temples of the Ancient World*, 도널드 더블류 페리 편(1994)에 나와 있다.

주

1. Rufus Jones Speaks to Our Time (1961), 199.



조셉 더블유 시타티 장로
칠십인 정원회

성약을 지킴으로써 하나님을 영화롭게 합시다

하나님을 믿는 신앙으로 말미암은 가장 큰 축복은
우리가 성약을 지킴으로써 그분을 영화롭게 하는 가운데 찾아옵니다.

19 85년, 시타티 자매와 저는 케냐 나이로비에서
로저 하워드라는 분을 만났습니다. 그분은 아내
아일린과 장년 선교사로 봉사중이었습니다.

그분들은 집에서 열리는 작은 모임에 우리를 초대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 회원의 모임에 참석한
것은 그때가 처음이었습니다. 우리는 그 첫 모임에서 영을
느꼈고, 그 이후로 매주 일요일에 교회에 참석했습니다.

그 후 몇 달이 지나고, 우리는 아홉 살이던 아들과 함께
로저 형제님에게 침례를 받았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로저
형제님과 아일린 자매님은 선교 사업을 마치고 고향으로
돌아갔습니다. 우리는 몇 년마다 그들에게서 꾸준히 소식을
들었습니다.

2010년 초, 시타티 자매와 저는 마침내 로저 형제님을
다시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분의 나이는 거의 아흔 살에
가까웠습니다. 고령으로 쇠약해진 그는 힘겹게 보행 보조기에
의지하고 계셨습니다. 그토록 오랜 세월을 건너 서로를
마주하자, 우리는 둘 다 이루 말할 수 없는 기쁨을 느꼈습니다.
포근히 서로를 보듬으면서 눈물이 하염없이 흘러내렸습니다.
서로에게, 그리고 복음이 가져다준 놀라운 선물에 깊은 감사를
느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왕국의 같은 시민으로 신앙 안에서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 순간을 만끽하자니, 마음속에 경전 구절이 떠올랐습니다.
“영혼의 가치가 하나님 보시기에 큼을 기억하라. …”

“그리고 만일 너희가 이 백성에게 회개를 외쳐 너희 온
생애 동안 수고하여 단 한 영혼이라도 내게로 데려오면, 나의
아버지의 왕국에서 그와 함께 누리게 될 너희의 기쁨이 얼마나
크겠느냐!”(교리와 성약 18:10, 15)

영혼을 하나님의 왕국으로 데려오는 이들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대한 축복을 약속받았습니다. 구주께서는 이렇게
밝히셨습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요한복음 15:16)

로저 형제님은 이듬해에 돌아가셨습니다. 저는 그분이
하나님 안에서 평안한 사람이었음을 분명히 느꼈습니다.
그분은 복음을 나눔으로써 저희 삶에 깊은 영향을 주었습니다.
교회에서 봉사하는 훌륭한 청년 및 장년 선교사 부대의 모범과
더불어, 그분이 이웃에게 현납하신 봉사의 모범은 우리가
하나님을 찬미하는 한 가지 방법을 보여 줍니다.

성약으로 맺어진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된 예수 그리스도 교회의 회원인 덕에, 우리는 모두
성약을 통해 하나님 아버지와 개인적인 관계를 단단히
맺습니다. 모든 성약은 의식으로 확인되며, 우리는 그 의식을
받음으로써 기꺼이 성약을 받아들이고 지키겠다는 다짐을
표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가 그분 안에서 신앙을



행사할 때, 우리가 각 성약에 따르는 의무를 온전히 이행하도록 이끄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모든 구원의 성약과 의식을 맺고 지켜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를 돋독히 할 때, 우리는 그분을 찬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성약을 지키는 자들을 그분의 영으로 축복하셔서 그들을 인도하고 강화하십니다. 이제 하나님 아버지와 관계를 맺는 일에서 가장 중요한 성약을 살펴봅시다.

침례 성약

침례는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를 맺게 되는 첫 번째 성약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겸손히 낮추고 … 상한 마음과 통회하는 심령으로 나아와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진실로 회개하였음[을] … 교회 앞에 증거하며, [우리]의 죄사함을 얻도록 그리스도의 영을 받아들였음을 진실로 [우리]의 행위로써 나타[냄으로써]”(교리와 성약 20:37) 그 의식을 받을 자격을 갖춥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받들고자 하며 끝까지 그를 섬기려는 결심을 가[지고]”(교리와 성약 20:37), “서로의 짐을 져 가볍게 하고자 하며, … 슬퍼하는 자들과 함께 … 슬퍼하고, … 위로를 필요로 하는 자들을 위로하며, … 참으로 죽을 때까지 어느 때에나 무슨 일에나, [우리가] 있게 될 어느 곳에서나 하나님의 중인이 [됨을]”(모사이야서 18:8~9) 우리가 행위로 나타내 보일 때, 우리는 성약을 지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약을 지키면, 하나님께서는 성신의 은사를 통해 우리를 축복하시는데, 이 성신의 은사를 통해 성신이 우리와 지속적으로 함께하게 되고, 이로써 우리는 우리가 하는 모든 일에서 인도와 지침을 얻고 영생으로 향하는 길에 오르게 됩니다.(모사이야서 18:9~10 참조)

저는 침례를 받은 후에 큰 기쁨을 느꼈고 영으로 충만해지는 것 같았습니다. 침례를 받은 이후로도 제가 하나님을 특히 가까이 느낄 때마다 저는 계속해서 이런 기쁨과 영을 느꼈습니다.

신권의 맹세와 성약

침례 성약을 지키는 남성은 신권의 맹세와 성약의 단계로 들어서는 자격을 갖추게 됩니다. 우리는 안수례, 즉 머리 위에 손을 얹는 의식을 통해 그것을 받습니다. 신권 성약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구원을 위해 봉사하겠다는 성약입니다. 부름을

영화롭게 하며(교리와 성약 84:33 참조) “[우리의] 온 마음과 능력과 생각과 힘을 다하여 그를 섬기[고]”(교리와 성약 4:2) “하나님의 영광만을 전념하여 구하는 눈과 함께 신앙, 소망, 자애와 사랑[을 지닐 때]”(교리와 성약 4:5) 우리는 하나님을 드높이게 됩니다.

충실한 신권 소유자가 받는 주님의 축복에는 “영으로 성결하게 되어 몸이 새로워지[는]”(교리와 성약 84:33) 것도 포함됩니다. 그들은 모세와 아브라함의 축복을 받는 상속자가 됩니다.(교리와 성약 84:34 참조) 후기 선지자와 사도들은 신권을 영화롭게 하는 자들의 훌륭한 본보기입니다. 그분들의 삶은 주님께서 그들을 영화롭게 하고 계심을 나타내는 증거가 됩니다.

성전 의식과 성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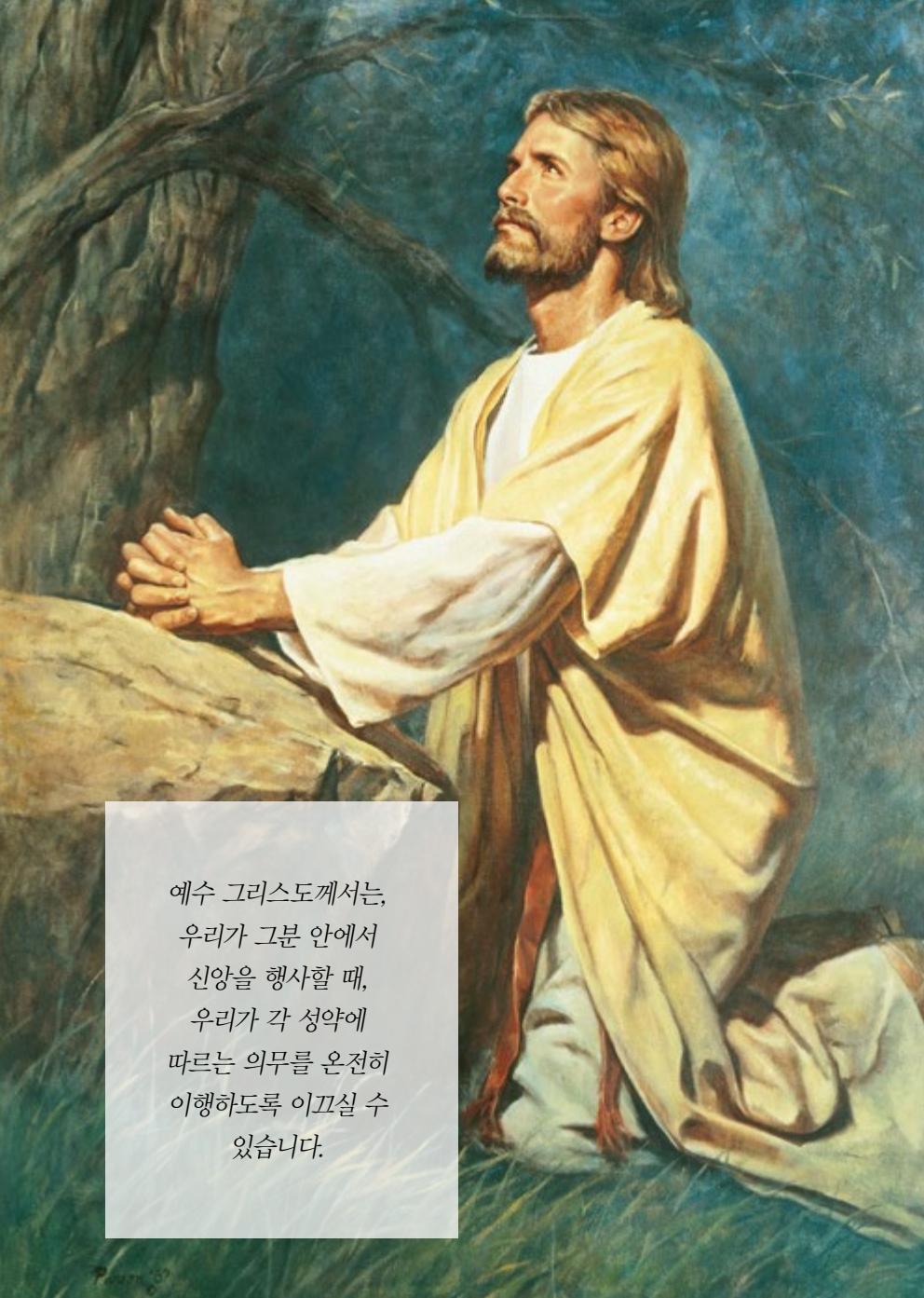
보다 높은 신권을 합당하게 지니는 형제, 그리고 합당한 자매는 성전에서 성스러운 의식을 받고 성스러운 성약을 맺을 수 있습니다. 성전 의식과 성약을 통해 우리는 이생의 목적을 이해하고 영생을 예비하도록 배웁니다. 우리는 의식을 받고 영원한 결혼의 성약과 가족 인봉의 단계로 들어섭니다. 하나님과 그분의 모든 자녀를 위한 구원 사업에 우리의 삶을 헌납하겠다고 약속합니다. 신앙을 가지고 이러한 성약을 지키면, 우리는 영의 인도를 받고 필멸의 삶에서 일어나는 시련을 극복할 힘을 얻습니다. 또한 하나님이 자녀에게 주시는 가장 큰 축복인 승영을 얻을 자격을 얻게 됩니다.(교리와 성약 14:7 참조) 승영, 또는 영생이란, 우리가 가족과 함께 하나님 아버지와 같은 삶을 살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찬식

매주 안식일에 합당하게 성찬을 취하는 일은 교회 회원에게 필수적입니다. 이 의식으로 우리는 계속하여 기꺼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받들고 우리가 맺은 모든 성약을 지키겠다는 결심을 새로이 합니다. 또한 마지막까지 의 안에서 견딜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권능을 불러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우리가 맺은 모든 성약에 연계된 모든 축복을 받기에 합당해집니다.

의로운 소망

성약을 깨뜨리는 것은 하나님을 모욕하는 일이며, 만일 그렇게 하면, 약속된 어떤 축복도 받을 수 없습니다.(교리와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가 그분 안에서
신앙을 행사할 때,
우리가 각 성약에
따르는 의무를 온전히
이행하도록 이끄실 수
있습니다.

성약 82:10 참조)

사무엘상 2장 12~17, 22~34절에는, 제사장 엘리의 아들들이 저지른 악행이 나옵니다. 그들은 아버지의 지위를 이용하여 이익을 쟁겼는데, 이는 신권 성약에 어긋나는 일이었습니다. 그들은 회막 문에서 수종 드는 여인들과 부도덕한 행동에 탐탁하고, 이스라엘 백성의 희생물인 고기를 부정한 방법으로 사사로이 취하며 욕망을 채우려 했습니다. 주님께서는 엘리의 아들들은 물론, 그들을 막지 못한 엘리에게 혹독한 벌을 내리겠노라고 하셨습니다.

이러한 육욕은 우리가 하나님과 맺은 성약을 지키겠다는 결심으로 이겨 낼 수 있습니다. 신을 믿지 않던 타락한

사람과 맞섰던 애굽의 요셉이 보여 준 예처럼 말입니다.(창세기 39:9, 12 참조)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영화롭게 하시고 그에게 맞서는 모든 악의 계획을 이겨 내도록 도와주셨습니다. 요셉은 능력을 발휘하여 애굽에서 두 번째로 힘 있는 자이자, 이스라엘 가문의 보존을 위해 하나님께서 돌보시는 그분의 도구가 되었습니다.(창세기 45:7~8 참조)

만약 유혹에 넘어간다면,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를 회복하고 싶다는 열망이 우리를 참된 회개로 이끌 것입니다. 그러면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는 우리가 또다시 합당한 사람이 되도록 도울 것입니다.

선지자를 따르십시오

그리스도께서는 그분의 교회를 세우시면서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목사와 교사를 선택하셨는데, 이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었으며]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게]”(에베소서 4:12~13) 하려 함이었습니다.

살아 계신 선지자와 사도들께서는 “가족 생활의 행복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에 근거를 들 때 가장 훌륭하게 성취될 수 있[으며] 성공적인 결혼과 가족은 신앙, 기도, 회개, 용서, 존경, 사랑, 동정심, 일 그리고 건전한 오락 활동 등의 원리 위에서 이루어지고 유지된다.”라고 가르치십니다.(“가족: 세상에 전하는 선언문”, 리아호나, 2010년 11월호, 129쪽)

가정과 가족은 성약에 기초하여 하나님과의 굳건한 관계를 맺기 위한 토대를 마련합니다. 살아 계신 선지자들의 영감에 찬 가르침을 따를 때, 우리는 견고한 가정을 이루고, 성약을 지킬 힘을 얻을 것이며, 우리 신앙의 가장 위대한 축복을 성취하게 될 것입니다. ■

복음을 소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9 80년 초, 우리 가족은 독일 서부에 살았다. 우리는 독일 카이저슬라우테른 군인 스테이크 회원이었다. 그 당시, 우리 지역 지도자들은 선교 사업을 강조했다.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의 친구들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구하는 훌륭한 영의 자녀들을 보내 주셨다는 말씀을 들었다.

나와 아내 제니는 그 말씀이 참되다고 믿었다. 지도자들은 우리 각자에게 복음에 관심을 보일 만한 비회원 친구들을 찾아보라고 권고했다. 나와 아내는 대략 열 명의 목록을 만든 뒤, 목록에 적힌 친구들을 위해 금식하고 기도하여 누구에게 먼저 다가갈 것인지 정해야 했다. 우리는 내 사무실에서 일하는 두 명의 남자 동료와 접촉해 보기로 했다. 나는 먼저 크리스라는 젊은 미혼 동료에게 말을 건네 보았는데, 그 당시 그는 관심이 별로 없어 보였다. 다음으로, 우리는 어린 자녀를 둔 착하고 친절한 브루스 햄비라는 동료와 이야기해 보기로 했다.

“여 보, 전화기를 내려놓으세요.”
아내가 말했다. “당신이 브루스와 복음에 관해 이야기를 나누는 동안 기다리고 있을게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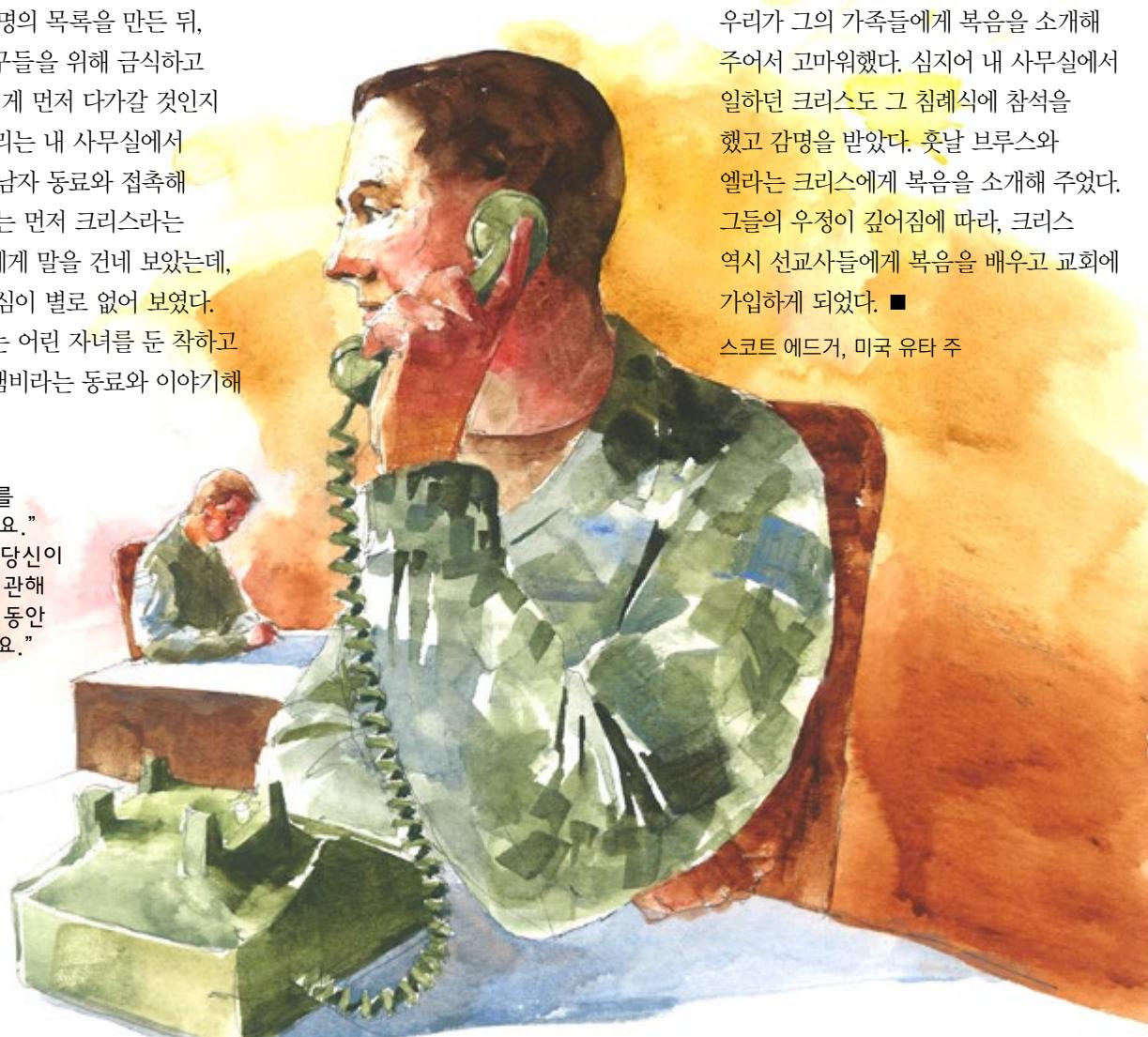
그러나 며칠이 지났는데도 나는 그에게 복음에 대해 나누는 것을 걱정하고 있었다. 마침내 어느 날, 아내가 사무실로 전화를 걸어 내게 물었다. “브루스와 이야기를 나눠 보셨어요?” “아직은 아니지만, 곧 이야기해 볼게요.” 그러자 그녀는 브루스가 사무실에 있는지 물어봤고, 나는 그렇다고 대답했다. 그녀는 즉각 이렇게 말했다. “여보, 전화기를 내려놓으세요. 당신이 그와 이야기를 나누는 동안 기다릴게요.”

나는 전화기를 내려놓고 초조한 마음으로 브루스에게 다가가 이렇게

물어보았다. “브루스, 내가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 회원이라는 것을 알고 있던가?” 그는 그렇다고 대답했다. 나는 말했다. “우리 교회에 대해 더 알아보지 않겠나?” 그는 대답했다. “좋습니다. 더 알아보고 싶군요.”

그 후 몇 주 동안, 브루스와 그의 아내 엘라, 그들의 딸 타냐는 우리의 집에서 저녁 식사를 하며 선교사들과 만났다. 그들은 복음 토론에 참여했고, 우리와 함께 교회 모임에 참석했다. 그들은 복음을 받아들였으며 침례를 받았다. 정말 근사하고 행복한 날이었다. 브루스는 우리가 그의 가족들에게 복음을 소개해 주어서 고마워했다. 심지어 내 사무실에서 일하던 크리스도 그 침례식에 참석을 했고 감명을 받았다. 훗날 브루스와 엘라는 크리스에게 복음을 소개해 주었다. 그들의 우정이 깊어짐에 따라, 크리스 역시 선교사들에게 복음을 배우고 교회에 가입하게 되었다. ■

스코트 에드거, 미국 유타 주





나는 놀랍게도 위안과 도움이
필요한 어느 저활동 자매와
복도에서 마주쳤다.

나는 부족하다고 느꼈다

상 호부조회 회장으로 부름을 받았을 당시, 나는 바쁜 젊은 어머니였다. 나는 교회 안에서 자랐고 교회의 가르침에 따라 살아왔다. 그러나 나는 내가 부족하다는 것을 알았고, 우리 와드에서 어려움에 부닥친 자매들을 내가 제대로 돌볼 수 있을지 걱정이 되었다. 어느 일요일, 교회에서 나는 유난히 낙담하게 되었다. 온종일 나를 찾는 자매들이 와서 자신들의 이야기를 털어놓았다. 몇몇은 복지에 대한 도움이 필요했고, 또 어떤 이들은 내가 그저 그들의 말에 귀 기울여 주기를 바랐다. 성찬식이 시작되려고 하는데 안으로 들어가지 말라는 영의 속삭임을 느꼈다. 성찬식이 시작했을 때, 나는 놀랍게도 복도에서 어느 저활동 자매와 마주쳤다. 그녀는 위안과 도움이 필요한 상태였고 성찬식 모임이 끝날 때까지 기다릴 수 없는 상황이었다.

교회 모임이 끝나고 난 뒤, 나는 완전히 기진맥진했다. 차를 타고 집으로 돌아오는 내내 나는 울고 있었다. 내 머릿속에서 다음과 같은 말이 울렸다. “감독님과 이야기를 나눠 보아라!” 감독님이라면 내가 어떻게 해야 부름에

관한 부담을 덜 수 있을지 조언해 주시리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러나 나는 교회에서 긴 일과를 보내셨을 감독님을 더는 귀찮게 하고 싶지가 않았다. 감독님께 전화하는 것을 미루어야겠다고 마음먹었을 때, 전화가 왔다. 감독님의 전화였다. 그는 즉시 내게 전화를 해야 한다는 느낌을 받으셨다.

나는 감독님께 그동안 너무 많은 일을 동시에 해결해야 해서 힘들었던 점과 더 많은 자매를 돌볼 수 없어서 아쉬웠던 점을 말씀드렸다. 그분은 내 말을 끝까지 들어주셨다. 우리는 그날 제기되었던 몇몇 자매의 복지 관련 문제들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나누었다. 그리고 나니 기분이 한결 나아졌다.

대화가 끝나고, 나는 말했다. “어떻게 하면 제 어깨 위의 짐을 가볍게 할 수 있을지 감독님께서 조언해 주실 거라고 생각했어요.” 감독님은 자신이 그런 말을 해줄 수 있다면 좋겠다고 말했지만, 아쉽게도 그런 조언을 주시지는 않았다.

비록 내 문제에 대한 대답을 듣지는 못했지만, 전화를 끊고 난 후 기분은 훨씬 나아졌다. 나는 주님께서 내게 필요한 인도와 힘을 주셨다고 느꼈다.

그러나 다음 몇 주 동안 다시 불안감이 찾아왔고, 나는 더 나은 상호부조회 회장이 되기 위해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알고자 기도했다. 어느 날, 연차 대회 말씀을 듣는 도중 몇몇 단어들이 내 주의를 끌었고 성신이 강하게 내 마음 속 깊이 임했다. 나는 내가 왜 그리도 부족하다고 느꼈는지를 깨닫게 되었다. 그 이유는 나 혼자만의 힘만으로는 말 그대로 내가 부족했기 때문이었다.

감독님은 내게 성신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범을 통해 알려 주셨다. 교회에서 받은 부름을 수행하는 비결은 우리 자신의 재능이나 수완에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영의 인도를 따르는 것이었다. 오랜만에 처음으로 평안과 확신이 느껴졌다.

나는 여전히 경험이 부족하고, 예전처럼 가족과 바쁜 시간을 보낸다. 그러나 나는 더는 내 부름을 완벽하게 해내야 한다는 부담을 느끼지 않는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내가 그분의 뜻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것들을 주신다. 또한, 우리가 계명을 지킨다면 우리의 노력을 영화롭게 해 주실 것이다. ■
익명, 스웨덴 스톡홀름

할머니를 찾아서

내가 후회하고 있는 일 중 하나는 한 번도 친할머니와 함께 앉아서 그분의 삶에 관해 이야기를 나누며 후손을 위해 그분에 대한 기록을 남길 적이 없다는 것이다. 할머니가 돌아가시고 난 후, 아버지와 삼촌은 할머니께서 당신 자신을 대수롭지 않은 사람으로 여기셨고 종종 “누가 나같은 사람에 대해 알려고 하겠어?”라고 말씀하시곤 하셨다고 알려 주셨다.

집안 형편으로 우리 가족은 어쩔 수 없이 할머니의 옛집으로 이사를 들어가게 되었다. 그러자 행복했던 추억들과 함께 마음에 품었던 후회가 밀려왔다. 이사 후 며칠이 지난 어느 날 밤, 나는 할머니의 옛날 앨범 몇 권과 유품 상자를 살펴보았다. 거기에는 삼촌이 쓰셨던 오래된 편지와 옛날 성전 추천서, 심지어 할아버지의 장례식 순서지까지 있었다. 이 수집품들을 보고 있자니, 혹시 또 다른 것들이 있을지 궁금해졌다.

갑자기 다락을 살펴보고 싶은 생각이 들어, 다락에 들어가니 어떤 자루가 눈에 들어왔다. 그 안에는 쓰레기통이나 베릴 법한 낡은 파란 서류철이 들어 있었다. 그 서류철에서 나는 할머니가 30년 전에 쓰신 자서전의 시작 부분을 발견했다. 나중에 안 사실이지만, 놀랍게도 가족 중에는 이 사실을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 아버지와 삼촌 말이 사실이었다. 할머니는 자신을 너무나도 대수롭지 않게 여겼던 나머지, 자서전을 쓰기 시작했다는 사실을 아무한테도 언급조차 하지 않았던 것이다.

그날 밤 나는 여덟 장의 기록을 살살이 읽어 내려가면서 할머니에 대한 많은 사실을 알게 되었다. 고등학교

시절이 어땠는지, 할아버지를 어떻게 만나셨는지, 그리고 할머니와 할아버지가 함께 운영하셨던 극장 문을 닫는 일이 얼마나 속상하셨는지 등등.

그 기록을 읽자니 할머니가 곁에 계신 듯했다. 내가 뜻하던 것처럼 할머니의 이야기를 직접 듣지 못한 일로 더는 걱정하지 말라고 이르시는 것만 같았다. 할머니가 직접 쓰신 삶의 기록을 읽은 것은 무척이나 귀중한 경험이었고, 내가 오랫동안 품고 있던 마음의 회한을 내려놓게 해 주었다. 그 경험은 주님의 친절하신 자비를 다시 확신하게 해 주었으며, 그와 더불어 가족역사란 그저 이생에서 몰랐었던 조상들을 찾는

것만은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해 주었다. 가족 역사는 우리가 사랑하는 이들에 관해 더 알아가는 과정이자 이 세상에서 소중한 시간을 함께했던 이들에 대해 더욱 많은 것을 발견해 내는 일이다.

다른 일가 친척들과 앉아 그들의 이야기를 기록할 때 만일 가족들이 누가 자신들의 이야기를 궁금해하거나 하겠느냐고 묻는다면, 나는 그들의 이야기가 남겨질 가치가 있으며, 후손들이 이를 고마워할 것이라고 확실히 말해 줄 것이다. 귀중한 기록을 남겨 주신 우리 할머니에게 내가 감사를 드리듯이 말이다. ■

루우벤 워즈워스, 미국 유타 주



지구 반대편에 있는 성전

심 대 후반, 나는 가족의 반대를 무릅쓰고 교회에 들어왔다. 이십 대였을 때 아버지가 돌아가셨고, 그 이후로 나는 가족 역사를 시작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나는 어린 자녀들을 키우느라 정신없이 바쁜 아내이자 엄마가 되었다. 그 바람에 가족 역사 사업도 중단되고 말았다.

우리 가족 중에는 교회에 다니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기 때문에, 내게는 가족 역사를 탐구하려는 간절한 소망이 있었다. 나는 가족 역사를 알아보는 그 시간이 정말 좋았고, 늘 가족 역사를 할 시간이 더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다.

내가 서른세 살이 되었을 때, 건강이

나빠지기 시작하면서 내 삶은 예기치 못한 전환점을 맞았다. 가족들과 함께 동네 주변을 산책하는 일조차 힘에 부치게 되었다. 토요일에 두 시간 정도 집안을 청소하는 일은 생각조차 할 수 없었고, 겨우 진공청소기라도 돌리면 그나마 다행이었다. 전에는 주변에 친구들이 참 많았는데, 옛날처럼 사람들을 챙기지 못하니, 그 많던 친구들은 몇 남아 있지도 않았다.

내가 가족 역사를 다시 시작한 것은 바로 그 즈음이었다. 딸아이가 내 남편 가족의 조사를 시작하였다. 아이는 내가 몇 년 동안 매달려 있던 일을 하루 저녁에 끝냈다. 나는 친정 쪽 가족 몇

세대를 마무리하여 가족 사업을 마칠 수 있도록 성전에 이름을 제출했다. 나는 성전에 가서 내가 직접 우리 가족을 위해 의식을 받기를 항상 바라왔지만, 내 건강과 성전까지의 거리를 고려하면 그건 불가능했다.

이름을 제출하고 나니, 눈물이 났다. 내 가족들을 위한 의식이 집행되는 특별한 날에 나는 정작 함께할 수 없기에 그분들이 실망하실 것 같은 느낌이 들었기 때문이었다. 일주일 후, 나는 성전 사업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FamilySearch.org에 로그인을 했다가 놀라운 일을 보았다. 내가 제출했던 분들의 의식이 거의 끝나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작업을 하고 있는 사람들은 가나 아크라 성전의 회원들이었다! 나는 지구 반대편에 있는 회원들이 얼마 되지 않는 내 가족들을 위해 이 성전 사업을 하고 있다는 사실에 적잖이 놀랐다. 우리 가족을 위해 성전을 향해 길을 나서는 가나 사람들의 희생을 생각하니, 다시금 눈물이 쏟아졌다.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었던 일을 그분들이 해주었다. 성전에 방문해서 내 가족들에게 성전 의식의 축복을 이루어 준 가나 아크라 성전 구역의 회원들에게 감사할 뿐이다. ■

로빈 에스타브룩스, 미국 버지니아 주



갑 자기 다락을 살펴보고
갑 싶은 생각이 들었고,
다락에 들어가자마자
쓰레기통에 버릴 법한 어떤
자루가 눈에 들어왔다.

조기 귀환에 관한 대처

제니 룰린스

아 버지가 출장 차 집을
떠나 계시던 터라, 선교
임지에서 돌아오는
비행기에서 내려 절뚝거리며
걸어오는 나를 맞아줄 사람은
어머니뿐이었다. 어머니는 나를 안아
주셨고 우리는 함께 울었다.
온갖 검사를 다 했는데도
의사들은 뭐가 문제인지를 찾아내지
못했다. 선교 사업을 아홉 달이나
남긴 채 선교사 명찰을 떼다니,
이보다 힘든 일은 없었다. 선교
사업을 제대로 마치지 못한 나는
패배자가 된 기분이었다.

선교사를 꿈꾸며

내 계획 속에는 항상 선교사가 되는
것이 들어 있었다. 오빠가 선교 임지로
떠나던 날에는 오빠를 배웅하려고
선교사처럼 옷을 차려입고 직접 만든
명찰도 달았던 나였다. 2012년에
선교사로 봉사할 수 있는 연령이
변경된다는 발표가 날 무렵 막 열아홉
살이 되었던 나는 그 발표가 내 기도의
응답이라는 것을 알았다. 춤이 절로
나오던 그날, 나는 서류를 작성하고
의사와 약속을 잡았으며, 그 주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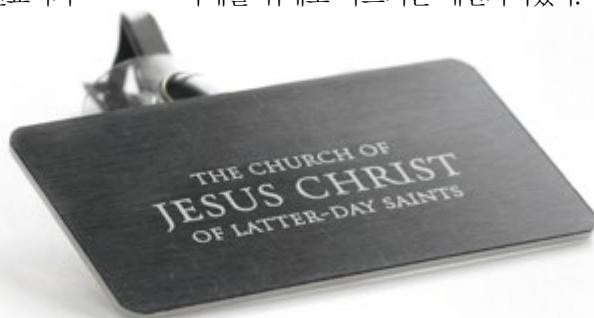
**건강상 이유가 있다
하더라도 선교 사업 중에
일찍 귀환한다는 것은
충격적인 경험이 될 수 있다.
적어도 나에게는 그랬다.
하지만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는 뒤로 물러서는 대신
앞으로 나아갈 수도 있다.**

있었지만 나에게는 선교사가 되는
것보다 놀라운 일은 없었다.

선교 사업을 시작한 지 팔
개월에 접어들 무렵, 동반자와 나는
자전거를 받게 되었는데, 그것은
선교부의 차량 부족 때문이었다.
오랫동안 자전거를 타지 않았던
터에 어떻게 치마를 입고 자전거를
탈지 장담할 수는 없었지만 그래도
나는 설레는 마음을 누를 수가
없었다. 그런데 몇 주가 지나자
옆구리가 아파지더니 간헐적으로
통증이 찾아왔다. 나는 그것을
무시하고 일에 전념했다.

그러다 통증이 잣아지고 더
심해지다가 급기야 어느 날 밤, 동반자가
나를 응급실로 옮겨야만 하는 상황이
되었다. 여러 가지 검사를 거쳤지만
의사들은 내 통증의 원인을 찾지 못했다.

나는 그 후 몇 주간 하나님 아버지께
통증이 가시게 해 달라고 기도했으며
여러 차례 신권 축복을 받았다. 그러나
통증은 그저 심해질 뿐이었다. 어떤
자세를 취해도 아프기는 매한가지였다.





그러나 나는 고통에 익숙해질 수 있다고 생각하며 일을 계속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러던 어느 날 나는 길가에서 쓰러지고 말았고 꼼짝도 할 수 없었다. 검사를 받기 위해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여전히 돌아온 결과는 원인 불명이라는 것이었다. 나는 느긋하게 마음먹으려 애썼고 동반자들과 함께 버스 정거장의 벤치에 앉아서 버스를 기다리는 사람들을 가르쳤다. 토론 내내 통증을 참으려고 입술을 깨문 채 말이다. 지나치게 자신을 몰아붙였던 탓에 나는 결국 다시 병원으로 실려 갔다. 계속 선교 사업을 밀고 나가면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 될 것이 분명했다. 나는 수차례 기도한 끝에 건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집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응답을 받았다.

앞으로 내딛는 한 걸음

집에 아주 돌아왔다는 것을 실감하자 나는 충격에 휩싸였다. 그런데도 나는 신앙을 지키고 경전 공부를 계속하려고 인간힘을 썼다. 가족들은 이 상황에 잘 대처해 주었지만, 주변의 다른 사람들은 이런 일에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알지 못했다. 그들은 계속해 나에게 질문을 해 댔고 나는 마음을 다잡기가 어려웠다. 그런데 한 남자분이 예기치 않게 전화를 하셔서는 당신의 아들도 오래전에 선교 사업을 하다가 일찍 귀환했다는 얘기를 하셨다. 그분은 이 시련이 내 신앙과 행복을 깨트릴지도 모르며 그것은 조기 귀환한 많은 선교사가 심심찮게 겪었던 일이라며, 이렇게 말씀하셨다. “명심하세요. 자매님이 의롭게 생활하려고 최선을 다해 노력하는



의롭게 생활하려고 최선을 다해 노력하는 한, 이 일은 항상 앞으로 나아가는 걸음이 될 것이다.

한, 자매님이 어찌해 볼 수 없는 일이 일어난다 하더라도 그 일은 항상 앞으로 나아가는 걸음이 될 거예요.”

나는 그 말씀을 좌우명으로 삼아 이듬해 동안 거기에 의지했다. 여덟 달 동안 거의 걸을 수가 없었는데도, 사람들은 내가 조기 귀환을 했다고 하면 여전히 나를 비판하려고 했다. 훨씬 좋지 못한 건강 상태로도 선교 사업을 마친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었다. 그들은 내가 선교 사업을 마치지 못한 이유를 이해하지 못했다. 내가 건강상의 문제를 겪고 있었는데도 말이다. 선교 사업을 그렇게도 사랑했는데 이런 말을 듣는 것은 정말 고통스러운 일이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게 시련을 주신 목적이 있으시며, 이 일은 내가 앞으로 나아가는 걸음이 되리라는 믿음이 내겐 있었다.

나는 다시 학교에 다녔고 데이트를 시작했다. 나는 눈에 띠게 발전하고 있었다. 그러나 선교 사업을 생각하면 언제나 마음 한편이 괴로울 것 같았다.

그러다 한 친구가 구주의 속죄는 모든 고통과 괴로움을 치유할 수 있다는 사실을 내게 되새겨 주었다. 나는 그의 도움으로 선교 사업을 생각하며 행복해 할 수 있었다.

나는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했다. 나는 내 고통에 대하여, 그리고 치유와 위로를 얻고자 들인 노력에 대하여 말씀드렸으며, 내 괴로움을 거두어 주실 수 있는지 여쭤 보았다. 기도를 마치자 주님은 내 눈을 열어 주셨고, 나는 그분의 관점으로 내 선교 사업을 바라볼 수 있었다. 내가 봉사한 것이나 일찍 귀환한 것은 모두 내가 주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이 되게 하시려는 그분 계획의 일부였다. 나는 귀환한 후 그분께서 마련해 주신 기적들을 볼 수 있었다. 힘겨운 시간이었지만 이제 나는 내가 조기 귀환했다는 사실을 편안한 마음으로 돌아볼 수 있다. 하나님은 내게 가장 좋은 것을 주고 싶어 하신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다.

조기 귀환한 선교사가 그 상황에 대처하는 여섯 가지 방법

귀환은 받아들이기 힘든 일이지만, 노력한다면, 조기 귀환을 앞으로 나아가는 명예롭고 유익한 걸음이 되게 할 수 있다. 다음은 나에게 도움이 되었던 일들이다.

그리스도께 나아간다. 어떤 이유로 집에 돌아오게 되었든지 그리스도는 문제의 해결을 도와주실 수 있다. 그분의 속죄는 회개만이 아니라 위안과 이해, 치유를 위한 것이기도 하다.

이 일이 앞으로 나아가는 걸음이 될 수 있음을 기억한다. 영에 합당하게 생활하고 최선을 다하는 한 아무리

걸림돌로 보이는 것이라도 도약의 발판이 될 수 있다.

경전을 공부하는 습관을 유지한다.

하나님은 성신을 통해 말씀하신다. 우리는 무엇보다도 경전을 진지하게 공부하고 적용함으로써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갈 수 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평안하게 하시겠다는 일념으로 경전의 한 장 한 장을 쓰셨음을 깨닫게 될 것이다.

바쁘게 생활한다. 엄격히 통제되고 바쁘게 움직이던 선교사 생활에서 돌아와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맥없이 시간을 보내기 일쑤며, 무력하고 슬프게 지내는 시간이 많아진다. 이는 사단이 바라는 것이다. 하나님은 우리가 훌륭한 대업에

“열심히 노력”하기를 바라신다.(교리와 성약 58:27 참조) 그렇게 해야 우리가 행복해지기 때문이다.

기도로 도움을 구한다. 하나님 아버지는 위안과 인도라는 축복을 마련해 두고 기다리신다. 우리는 구하기만 하면 된다. 어떤 시련이든 그것을 극복하려면 주님의 도움이 필요하다.

사람들이 좋은 뜻에서 그렇게 말했으리라고 여긴다. 진심으로 나를 염려하지만 내 상황에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모르는 사람들 탓에 기분이 상하기가 쉬울 것이다. 나를 응원하는 사람들에게 집중하고 나를 비판하는 사람들은 용서한다.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조기 귀환한 선교사를 돋는 다섯 가지 방법

집으로 돌아오자 사람들은 나를 어떻게 대해야 할지 잘 모르는 것 같았다. 다음은 그들이 알았더라면 좋았을 몇 가지 사항들이다.

비판하지 않는다. 조기 귀환한 사람들은 몸이든 마음이든 정신이든, 혹은 가족이든 치유 또는 조정 과정을 겪는 중이다. 애쓰며 힘겨워하고 있는 이들에게 친절히 대한다.

질문은 하지 않는다. 염려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은 참으로 좋은 일이지만 캐묻는 듯한 질문은 독이 될 우려가 있다. 아무리 친절한 의도에서라도 일찍 귀환한

선교사를 주공하지 않는다. 다른 방법으로 지지해 주며 사랑을 보인다.

그들이 바쁘게 움직이도록 돋는다.

선교사 규칙과 활동에서 벗어나 가정에서의 여유로운 시간과 새로운 선택에 적응하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다. 그들에게 생산적이고 즐거우며 유익한 일을 찾도록 도와준다.

그들이 스스로 계시를 받게 한다.

그들이 선교 임지로 다시 돌아갈 것인지를

선택하는 문제는 그들과 하나님 아버지 사이의 문제이다. 그들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권고를 따르도록 격려하고, 그들 스스로 답을 얻으리라고 믿는다.

친구가 된다. 아마도 조기 귀환한 선교사에게는 이 점이 가장 어려운 시련 중 하나일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믿음에 대해 의문을 갖게 된다. 그렇다고 그들이 행복해질 수 없다거나 발전할 수 없다는 뜻은 아니다. 그들은 어떤 상황에서도 기꺼이 자신을 사랑해 줄 친구가 필요하다. ■

글쓴이는 미국 유타 주에 산다.



프랑스에서 굳건하게 생활하기

민디 앤 셀루
교회 잡지

헬

리콥터 조종사가 되기 위한 훈련을 받을 기회는 아무에게나 흔하게 주어지지는 않는다. 그렇지만 24살인 피에르 오가 프랑스에서 군에 입대했을 때, 그는 그런 기회를 잡을 수 있었다. 총 4년의 훈련 기간 중 2년 차에 접어든 피에르는 그가 직면한 환경에도 불구하고 모범적인 신앙인으로 살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피에르는 친구들과 가족, 그리고 고향인 렌 시에서 멀리 떨어져 있다. 그가 복무하고 있는 군 부대는 보르도 시에서 외곽으로 한 시간 반 정도 떨어진 곳에 위치해 있다. 가장 가까운 집회소가 한 시간 정도 떨어진 곳에 있으므로 주 중에는 회원들과의 교류가 활발하지 못하다. “군대에서 교회 회원으로 지내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피에르는 말한다. “왜냐하면 군대에는 수많은 유혹이 있고, 교회와는 정반대 되는 환경이기 때문입니다.” “군대에서는 여러분의 행동보다는 여러분이 어떠한 사람인가로 주로 평가를 받습니다.” 피에르는 자신이 교회 회원이기에

군대에서 흔히 하는 일인 음주, 흡연, 외설물 보기, 파티 같은 것을 하지 않는다는 것을 주변 사람들이 알아주기를 바란다. 그가 주위 사람들의 존경을 얻을 수 있도록 노력하는 동안 어려운 일들도 있었지만, 기도와 경전 공부를 통해 그는 자신의 간증을 굳건히 유지할 수 있었다. 그는 이렇게 설명한다. “저는 자기 전에 꼭 경전을 읽으려고 노력하고 기회가 있을 때마다 기도하려고 노력합니다.”

“학교에 다니는 내내 경전을 읽고 기도하면서 저는 비록 복음의 모든 것을 이해하지는 못했지만, 하나님께서 살아 계시며 언제나 곁에 계신다는 사실은 분명히 알게 되었습니다.” 피에르는 말한다.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올바른 길에서 벗어나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경전 공부는 피에르의 학교 생활과 현재의 군 복무를 모두 지탱해 주는 지지대가 되어 주었다. 군에 입대하기 전, 피에르는 캐나다 퀘벡 주 몬트리올 선교부에서 선교 사업을 했다. 그곳에서 그는 그의 간증과 복음에 대한 이해를

**프랑스 군인이자
교회 회원인
피에르는 신앙의
모범을 보이기 위해
기도와 경전 공부에
의지한다.**

강화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여러 방법들 가운데 경전은 가장 명확한 수단들 중 하나입니다.” 그는 말한다.

매일 기도하고 경전 공부를 하면서 피에르는 영감을 받을 뿐만 아니라 부대 내의 동료들에게 모범이 된다. 비록 그와 그의 동기들이 가진 공통점이 애국심 이외에는 많이 없더라도, 피에르는 경전의 가르침에 따름으로써 “그의 종교에도 불구하고” 가 아니라 “그의 종교로 인해” 동료들의 존경을 받는 사람이 될 수 있음을 알고 있다. ■



피에르에 대하여

좋아하는 음식은 무엇인가요?

갈레트 브르통[breton galette](프랑스 서쪽 지방에서 유래한 와플처럼 바삭한 음식)을 좋아합니다. 그리고 빵, 치즈, 소시지, 파테[*pâté*](갖가지 재료를 한데 섞은 것을 갈아서 빵에 발라먹는 음식, 역자 주)를 좋아합니다.

여가 시간은 어떻게 보내나요?

친구들과 놀러 나가는 것을 좋아합니다. 종종 우리는 나가서 그냥 식사하고 이야기를 나눕니다. 아내와 쇼핑을 하러 가거나 영화를 보는 것도 좋아합니다. 또한, 저는 독서와 운동을 즐깁니다. 특히 달리기와 수영을 좋아합니다.

프랑스에서 이성 교제는 어떻게 합니까?

미국에서는 서로 잘 모르는 두 사람이 일단 데이트를 하면서 서로에 대해 알아가고 친구가 되기도 하는데, 이곳에서는 단순히 친구 사이라고 해서 데이트를 나가기는 쉽지 않습니다. 미국에서 데이트하는 방식에 익숙한 사람이 아니고는 말이죠. 교회 지도자들은 독신 성인 활동을 많이 하고자 노력하십니다. 그런 모임들을 통해서 많은 사람을 만나볼 수 있고 대규모의 그룹 데이트를 할 수 있습니다. 저도 이러한 모임을 통해서 아내를 만났습니다.

프랑스의 교회

회원 수 37,812명

와드 및 지부 107개

가족 역사 센터 67개

선교부 2개

성전 1개(건축 중)

숫자로 본 프랑스

인구: 6천 6백만 명 (2015년 추산)

4만 개의 샤포[*châteaux*](중세의 성채, 영주의 저택, 궁전들)

한 해에 8천만 명의 여행객들이 프랑스를

방문함-세계에서 가장 많은 여행객이 방문하는 국가



로널드 에이 래스번드
장로
십이사도 정원회

성전 축복을 정당하게 요구하는 방법

성 전은 주님의 집이며, 죽은 자를 위한 침례와 성전 결혼과 같은, 가족을 영원히 하나로 묶어 주는 성스러운 의식들을 통해 구주의 가르침을 재확인하는 장소입니다.

여러분이 삶에서 무엇에 집중하고 주의를 기울여야 할지 고민이 될 때, 또는 인생에서 굳건한 기초를 세우고자 할 때, 저는 여러분 각자가 개인적으로나 가족으로서 성전 예배를 중요한 습관으로 삼으시기를 권고합니다. 이미 여러분 중 많은 분들이 이렇게 하고 계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에 관해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표합니다.

제일회장단은 교회의 모든 회원들에게
서한을 보냈습니다. 이것은 분명
여러분과 제게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시간과 사정이 허락하는대로,
회원들은 여가 활동 대신 성전을
방문하시도록 권고합니다.”

성전에 충실히 참석하면서 선지자, 선견자, 그리고 계시자들이 약속하신 축복들도 떠올려 보시기를 바랍니다. 토마스 에스 몬슨 회장님은 이러한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성전으로

오십시오. 마음의 짐을 주님 앞에
내려놓으십시오. 그렇게 한다면 여러분은
미래에 관해 새로운 용기와
자신감으로 충만해질 것입니다. 주님을
신뢰하십시오. 그렇게 한다면 그분께서
여러분을 안아 주시고 품어 주실 것이며
하나님이 계신 해의 왕국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¹

성전 예배를 통해 받을 수 있는 또 다른 위안의 축복은 이 시대에 우리에게 불어닥치는 폭풍으로부터 보호와 평화를 받을 수 있다는 약속입니다. 주님의 성전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의 백성들을 모으기 위해 세우신 가장 아저한 장소 중 하나입니다.

모든 성전의 외벽 정면에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주님께 거룩함/주님의
집.” 저는 주님의 모든 성전이 이 지상에
그분께서 세우신 피난처라는 사실을
간증드립니다. 상황이 허락하는 한 더
자주 성전에 참석하기를 권유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약속한 축복과 보호를 정당하게
요구하십시오 ■

2009년 2월 10일 브리검 영 대학교 영주



여러분은 이 말씀을 어떻게 적용해보았습니까?

성전이 주님의 집이라는 사실을 제가 느끼고 확신하게 해 주었던 것은 바로 제가 그곳에 갈 때마다 느끼는 평안이었습니다. 가족이 군인인가 때문에, 저는 세계 여러 성전을 방문해 보았고 그때마다 똑같이 평온하고 편안한 느낌과 영을 느꼈습니다. 성전에서 느꼈던 평온함을 통해 저는 이 생에서의 제 역할과 더 나은 사람이 되는 방법을 더 온전히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일상에서 느끼는 압박감을 다루는 능력도 향상시켜 주었습니다.

제네시 비. 미국 유타 주

모임 말씀에서 발췌함. 영어로 된 전문은 speeches.bvu.edu에서 볼 수 있다.

주

1. Thomas S. Monson, quoted in Dell Van Orden, "San Diego Temple: 45th House of the Lord Dedicated in 'Season for Temple Building,'" *Church News*, May 8, 1993, 12.

해답을 찾아서

하나님은 왜
우리가 결혼적령기에
이르기도 전에
그렇게 일찍부터
로맨틱한 감정을
갖게 하시는 걸까?

물 론 이성에게 끌리는 감정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니며 궁극적으로 결혼의 성스러운 목적을 이루는 데 도움이 된다. 하지만 우리는 왜 이러한 감정을 적절하게 통제하며 행동하게 되기 훨씬 전부터 이러한 감정을 느끼게 되는 걸까?

이생은 순종을 시험받는 기간이며 순결의 법은 순종해야 하는 가장 중요한 계명 가운데 하나이다. 이 시험은 사춘기 이후에 더 힘들어지는데 호르몬(또한, 자유방임적 문화)은 “해 봐, 해 봐, 해 봐”라고 우리를 부추기지만, 그리스도의 빛과 성신(뿐만 아니라 경전, 선지자, 부모님, 지도자)은 우리에게 “기다려, 기다려, 기다려.”라고 할 것이다. 우리가 기다리라는 메시지에 마음을 기울일 때, 우리는 우리의 합당성을 증명하고 우리의 성숙함과 도덕적 수양 정도를 보이는 것이다. 도덕적 수양이란 “옳은 일을 택하기 위해 선택의지를 일관되게 행사하는 것이다. 설령 어려운 일이라 해도 그것이 옳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다.]”(디 토드 크리스토퍼슨, “도덕적 수양”, 리아호나, 2009년 11월호, 105쪽)

인생의 여러 시험과 마찬가지로, 이렇게 할 때 우리는 성전에서 인봉되는 것을 포함하여, 영원무궁토록 더 큰 축복을 받기에 합당함을 증명할 수 있다. ■



그리스도가 살아 계시던 때와
같은 기적이 오늘날에는
왜 일어나지 않는가?

구 주께서 베푸신 기적은 “신성한 가르침의 일부”일 뿐 아니라 “신성한 행위”였다.(Bible Dictionary “Miracles”) 병 고침 및 다른 기적은 오늘날에도 교회에서 계속 볼 수 있다. 그런 것들이 항상 극적인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은 아니고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이 그 경험을 성스럽게 여기기에 늘 공개적으로 이야기되지는 않지만 말이다. 여러분은 자신의 삶 속에서 또는 가족이나 조상의 삶 속에서 기적을 찾고 싶어 할지도 모른다. 우리는 기적을 바랄 수도 있지만, 하나님 아버지는 그분의 시간에 그분의 방법으로 응답하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

기적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일부이다. 기적은 자상에 신앙이 있다는 표징이며(이어서 12:12 참조) 영의 은사이다.(교리와 성약 46:21 참조) ■

친구들의 압력, 그리고 맥주

드디어 친구들과 파티를 하게 되었다.
그런데 모두 술을 마시고 있었다.





좋은 친구는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그렇듯 가장 중요한 것들, 즉 영원한 목적을 위해 계획하는 사람들과 어울리십시오.”

President Thomas S. Monson, “Decisions Determine Destiny”(Brigham Young University devotional, Nov. 6, 2005), 4, speeches.byu.edu.

키아라 블랑코

열 두 살 때, 새로 다니게 된 학교의 몇몇 친구들이 생일 파티에 나를 초대했다. 처음으로 이 친구들과 함께하는 자리로 초대받은 파티였다. 그러나 부모님께 파티에 가도 되는지 여쭤 보자 파티가 너무 늦게 시작해서 안 된다고 말씀하셨다.

얼마 후 또 다른 파티에 초대받았다. 다시 부모님께 여쭤 보았지만 부모님은 이번에도 안 된다고 하셨고 나는 화가 났다. 난 좀 즐거우면 안 되나?

그러다 나와 가장 친한 친구 하나가 파티를 계획했다. 나는 그 파티에 가장 먼저 초대된 친구 중 하나였다. 이번 파티는 다른 파티에 비해 일찍 시작했다. 가까운 친구들만 초대되었고 장소도 우리 집에서 멀지 않았다. 나는 부모님께 가도 되는지를 여쭤 보았고 드디어 허락이 떨어졌다! 신이 났다.

마침내 그날이 왔다. 부모님은 나를 파티에 데려다주시며 밤 10시에 태우러 오겠다고 하셨다. 안에 들어가 보니 친구들이 있었다. 하지만 20분이 지났는데도 생일의 주인공인 친구는 보이지 않았다.

잠시 후, 한 남자애가 우리 앞에 다가와 “피스토 마실 돈 가져왔어?”라고 물었다. 그 아이는 나에게 손동작으로 “피스토”가 맥주를 의미한다는 것을 알려 주었다. 친구들은 그 아이 말대로 돈을

내기로 했다. 나는 수중에 돈이 없어서 친구들이 그러는 동안 자리를 옮겨 다른 친구들과 함께 있기도 했다.

마침내 한 시간이 지나서야 생일의 주인공이 나타났다. 친구에게 축하 인사를 하고 이야기를 나누는데 큰 트럭이 도착했다. 차에서 다섯 명의 남자가 나오더니 맥주 두 상자를 내렸다. 모두 주변으로 모여들어 맥주를 나누어 갖기 시작했다. 내 친구들도 그쪽으로 가버렸고 나는 혼자 서서 친구들이 서로 맥주를 마시겠다고 안간힘을 쓰는 모습을 지켜보았다.

친구들이 곁으로 와서 나에게도 맥주를 권했다. 나는 “난 됐어.”라고 말했다. 친구들은 한 번 더 맥주를 강요했다. 나는 다시 싫다고 했다.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고 이상한 기분이 들었다. 마치 긴장감 넘치는 영화의 주인공이 되어 낯선 곳에서 함정에 빠진 것만 같았다. 그러나 경적 소리가 들렸다. 부모님이셨다! 나는 잘 있으라는 말만 남기고 자리를 빠져나와 차로 뛰어갔다.

그리고 차에 올라타 가쁜 숨을 내쉬었다. 그리고 조금 전까지 내가 얼마나 위태로운 환경에 있었는지 생각해 보기 시작했다. 엄마가 괜찮은지 물으셨다. 나는 대답했다. “네, 그런데 좀 놀라운 일이 있었어요.”

“뭐가 놀라운데?” 아빠가 물으셨다.

“친구들이 모두 술을 마셨어요. 전 너무 놀라서 뭔가 이 상황을 벗어날 수 있는 일이 일어나기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결국 엄마 아빠가 오셨고, 드디어 빠져나왔어요.” 차 안의 시계를 보니 아직 밤 10시가 채 되지 않은 시각이었다.

엄마가 말씀하셨다. “그게 바로 세상의 파티란다. 그래서 지난번 파티들에 가지 말라고 했던 거야.”

나는 그날 밤 기도하면서 부모님이 일찍 도착하신 것에 대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드렸다.

교회의 회원들은 세상 속에 살지만 세상과 같지는 않다. 만일 내가 계속 그런 파티에 갔더라면, 나는 결국 지혜의 말씀을 어기고 순결의 법까지도 어기게 되었을지도 모른다. 대부분은 교회 회원이 아니지만 내가 아는 많은 사람이 그렇게 되었다. 회원이라 하더라도 굳건한 상태를 유지하지 않는다면 그런 일을 범할 우려가 있는 것이다.

나는 내가 술을 마시지 않기로 했다는 것이 기쁘다. 나는 그 일이 있고서 친구들이 나를 놀릴 것으로 생각했지만 결국 친구들은 내 표준을 알기에 나를 더 존중해 주었다. 그 후로 나는 나에게 해로운 것은 싫다고 말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었다. ■

글쓴이는 멕시코 살티요에 산다.



과학,
그리고
진리를
향한 탐구

여러분이 복음에 관해 알고 있는 바와 과학을 통해 배운 지식 사이에
충돌이 있어 보이더라도 걱정할 필요는 없다.

알리시아 케이 스탠튼

여드름이 심해서 피부과에 갔는데 피를 뽑는 것이 치료법이라는 이야기를 듣는 광경을 상상해 보라. 말도 안 되는 치료법이라고 생각될 수도 있지만, 몇 세기 전만 해도 터무니없는 일은 아니었다. 그 당시에는 상당한 양의 피를 뽑아내는 것이 소화 불량, 정신 이상, 또 심지어는 여드름을 비롯한 대부분의 질병에 대한 표준 치료법으로 여겨졌다. 이에 의문을 품는 사람은 없었다. 그들은 왜 그랬을까? 무엇보다도, 사혈법은 여러 다른 문화에서 수천 년 동안 사용해 온 방법이었으며, 의사들이 과학적인 관점으로 의학에 접근하기 시작할 때까지는 아무도 이 관행에 의문을 품지 않았기 때문이다. 마침내 서양 의사들은 사혈법을 더욱 면밀하게 조사한 끝에, 몇 가지 특별한 질병의 경우 외에는 이 치료법 사용을 전면 중단했다.¹

우리는 이 역사 속의 예에서 어떤 믿음이 널리 받아들여지거나 오랫동안 퍼져 있다 하더라도 그 믿음이 반드시 진리는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된다. 아울러 과학은 참된 진리를 드러내는 훌륭한 도구가 될 수 있음을 알게 된다.

이 점은 후기 성도들에게 매우 중요한 원리이다. 진리를 알면 (“아뇨, 고맙지만 오늘은 피를 뽑지 않겠어요!”와 같은) 타당한 결정을 내리는 데 도움이 될 뿐더러 복음에 대한 이해를 더해 주기도 한다. 브리검 영 회장은 이렇게 가르쳤다. “복음에 속하지 않은 진리란 없습니다. … 여러분이 하늘이나 지상에서 진리를 발견할 수 있다면, … 그것은 우리 교리에 속하는 것입니다.”²

‘왜’ 그리고 ‘어떻게’

물론 우리는 과학이 우리가 아는 진리에 어떻게 이바지하는가를 이야기할 때, 과학이 어떤 종류의 진리를 드러낼 수 있는지, 또 어떤 종류의 진리를 드러낼 수 없는지를 분명히 구분하고 이해해야 한다. 과학을 대하는 한 가지 방법은 과학이 어떤 종류의 질문에 답할 수 있고 또 답할 수 없는지를 물어보는 것이다.

미국 뉴욕대학교 렌셀러 폴리테크닉 대학에서 화학 공학을 전공한 앤런 맨그럼 자매는 이렇게 설명한다. “과학은 어떤

일이 어떻게 일어나는지를 설명해 주기는 하나, 그 일이 왜 일어나는지를 설명하지는 못합니다.” 맨그럼 자매는 이에 덧붙여 종교는 지구가 왜 창조되었으며, 우리는 왜 이곳에 있는가와 같은 이유를 설명해 준다고 말한다.

저명한 물리학자 알베르트 아인슈타인 또한 종교와 과학은 서로 다른, 상호보완적인 목적이 있다고 믿었다.

그는 이렇게 썼다. “과학은 사물이 무엇인지를 밝힐 수는 있을지언정,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알아내지는 못한다. [과학의] 영역을 벗어나는 경우, 온갖 종류의 가치 판단이 여전히 필요하다.”³

이 말은 후기 성도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첫째, 우리는 과학적 이해가 계속 변화하리라는 것을 안다. 무엇보다도 과학은 우리 주위의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이해할 수 있는 더 나은 방법을 모색하는 것이 전부이다. 그렇다면, 인생에서 “왜 우리는 여기에 있는가” 또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를 알려고 최근의 연구를 살펴볼 필요는 없다. 우리는 불변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의지하여 옳고 그름
사이에서 결정을
내리는 데 도움을
얻을 수 있다.





모든 것은 조화를 이룬다

십이사도 정원회 회장이자 저명한 심장 전문의인 러셀 엠 넬슨 회장은 종교와 과학이 어떻게 함께 조화를 이루는지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씀했다.

“과학과 종교 사이에 충돌은 없습니다.” “충돌은 과학이나 종교, 또는 양측 모두에 대한 불완전한 지식에서 비롯됩니다. … 진리가 과학 연구실에서 나오든, 주님의 계시에서 나오든, 진리는 호환됩니다.”⁴

따라서 여러분이 지구의 나이나 공룡, 진화, 또는 과학실에서 배운 다른 어떤 것이 복음과 어떻게 양립하는지 의구심을 품은 적이 있더라도 문제 될 것은 없다! 모든 것은 조화를 이룬다. 하지만 여전히 많은 의문점이 존재한다. 아직 우리가 모든 것을 완전히 이해하지는 않으며 많은 것을 배우는 과정에 있기 때문이다. 캐나다 퀘벡 주의 약학 연구원 브라이언 다운 형제는 모든 것이 우리에게 알려질 날을 고대한다고 말했다.(교리와 성약 101:32~34 참조)

한편, “과학적 노력을 통해 우리 주위에 있는 세상의 신비를 모두 이해하기에는 우리 능력에 한계가 있습니다.”라고 그는 말한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하나님의 비밀과 그분의 자녀에 대한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을 이해하는 데 한계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이 복음에 관해 알고 있는 바와 과학을 통해 배운 지식 사이에 충돌이 있어 보이더라도 걱정할 필요는 없다. 실제로, 과학이 드러내는 것이 무엇이든 그것이 여러분의 신앙을 부정할 수는 없다.

따라서 과학을 좋아한다면, 가능한 한 관심이 있는 모든 분야를 배워라! 여러분의 신앙은 이롭게 작용하기까지 할 것이다. 서던버지니아 대학교 생물학과 부교수 리처드 가드너 형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한 신앙이 자신에게 큰 도움이 되었다며 이렇게 말한다.

“연구가 어려워지고, 아무것도 제대로 돌아가지 않아 막막해 보일 때가 있어요. 이런 상황은 연구를 하다 보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요. 하지만 복음의 축복에 대한 시각을 지니고 있었기에 그 상황을 헤쳐 나가는 데 도움이 되었죠.”

다운스 형제 역시 신앙이 과학 분야의 일에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한다.

“저는 늘 모든 것에는 논리와 질서가 있으며, 한 가지 의문을 오랫동안 열심히 연구하면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결국 제 마음을 열어 답을 얻게 하신다는 신앙을 품고 일합니다.”

과학적 발견에 기뻐하기

그리스도와 그분의 복음에 대한 우리의 신앙은 또한 과학적 진리이든, 영적 진리이든, 우리가 찾는 진리에 겸손하게 마음을 여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가드너 교수는 말한다. “과학에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이 많으며, 하나님이 아직 계시하지 않으셨기에 하나님에 관해 알지 못하는 것도 많습니다. 따라서 더 많은 정보가 우리에게 주어질 것이므로 열린 마음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며, 그러는 동안에는 걱정하지 않아야 합니다.”

예컨대, 어떤 이들은 단지 자기가 관찰한 세상에 관해 다른 방법으로는 설명할 수 없기에 하나님을 믿는다. 이런 믿음은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틈을 채우기 위해 믿는 하나님”이라고 불리며,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새로운 것이 과학적으로 발견될 때마다 신경이 곤두서게 된다. 가드너 교수는 다음과 같은 예를 든다.

“어떤 이들은 화석 진화 기록에 채워지지 않는 빈 공간이 있어(말하자면, 현재의 기록으로는 우리가 어떻게 지금의 모습에 이르게 되었는지 진화론적으로 설명할 수 없기에) 하나님을 믿어 왔습니다. 그런데 새로운 화석이 발견되어 이런 공간이 채워지면 우리의 신앙은 어떻게 될까요? 그보다 우리는 긍정적인 마음으로 성신을 통해 하나님으로부터 증거를 얻어야 하며, 그런 뒤 과학적 발견이 있을 때마다 걱정하는 대신 이를 기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식으로 접근할 때, 과학과 종교는 진리 탐구에 함께 도움이 되며, 결국 모든 진리는 같은 근원, 곧 하나님에게서 온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과학적 사실을 포함하여 그분께서 바라시는 것은 무엇이든 드러내실 수 있습니다.” 가드너 교수는 말한다. “그분은 분명 과학자, 발명가, 기술자들에게 영감을 불어넣으셨습니다. 그렇지만 모든 해답을 그냥 주시는 것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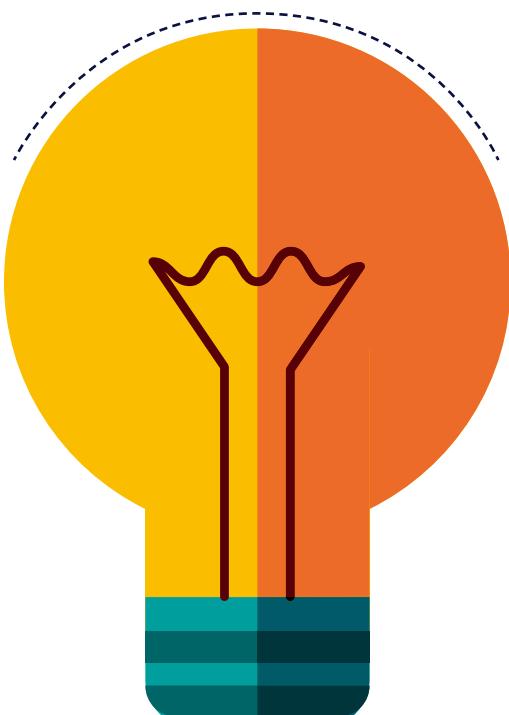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들과 우리가 두뇌를 사용하기를 바라시기에 과학을 탐구하게 하십니다. 그 대신 교회에 주시는 그분의 계시는 교회를 어떻게 조직해야 하는가, 특히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에게 나아와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에 관한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개인적인 계시의 주제는 어떤 것인가 될 수 있지만, 특히 그분께서 살아 계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며, 그리스도는 구원의 계획을 실행에 옮기셨다는 사실과 아울러 오늘날 우리에게는 살아 있는 선지자가 있고,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을 따를 수 있으며, 그렇게 하는 것은 참으로 가치 있는 일임을 알게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

글쓴이는 미국 유타 주에 산다.

주

- 예를 들어, K. Codell Carter and Barbara R. Carter, *Childbed Fever: A Scientific Biography of Ignaz Semmelweis* (1994) 참조.
- 교회 회장들의 가르침: 브리검 영 (1997), 16쪽.
- Albert Einstein, in "Science and Religion," in Ken Wilber, *Quantum Questions: Mystical Writings of the World's Greatest Physicists* (1984).
- Russell M. Nelson, in Marianne Holman Prescott, "Church Leaders Gather at BYU's Life Sciences Building for Dedication," *Church News*, Apr. 17, 2015, LDS.org.



분자 및 세포 생물학자 리처드 가드너 박사와 함께하는 질의 응답

박사님은 어떻게 과학에 흥미를 느끼게 되셨습니까?

식물학자인 제 아버지 때문에 과학에 흥미를 느끼게 되었죠. 저는 자라면서 아버지의 현미경과 그 밖의 실험실 장비를 가지고 놀고, 아버지가 식물과 곰팡이에 관해 하시는 이야기를 종종 듣곤 했습니다. 또 아홉 살 즈음에는 유전학자이셨던 할아버지께서 초짜리 몇 마리를 주셨죠. 고등학교에서는 들을 수 있는 과학 과목을 모두 수강했는데 특히 곤충 채집 숙제를 무척 좋아했습니다. 아주 어렸을 때 과학 박사 학위를 따야겠다고 마음먹었는데, 그 이유는 사물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알고 싶었고 또 배우는 것을 좋아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과학적 탐구로 박사님의 신앙은 어떻게 강화되었습니까?

하나의 세포 안에 있는 오묘함을 알면 알수록 저는 더욱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제게는 통상적인 세포 내 대부분의 학학 반응을 작은 글자로 도해한 큰 포스터가 두 장 있는데, 이런 모든 반응은 무언가에 의해 철저히 통제되고 있죠. 언젠가 이 포스터를 제가 가르치던 신권회 반에서 보여 준 적이 있었어요. 저는 그분들께 템플스퀘어와 그 밖의 후기 성도 방문자 센터에 있는 그리스도상을 떠올리게 했습니다. 이 조각상 뒤에는 우주의 그림이 있는데 '이 모든 것의 창조주가 여기 계시다!'는 것을 암시합니다. 그런데 저는 이 두 포스터를 그리스도상 뒤에 두자고 제안했죠. 그 포스터는 우주 그림만큼 아름답지는 않지만, 이 세포 내 학학 작용 역시 주님이 창조하셨고, 그분은 모든 것을 상세히 알고 계십니다.

박사님의 신앙은 과학 탐구에 어떻게 도움이 되었습니까?

제가 연구를 할 때나 주로 과학을 가르치는 지금이나, 신앙은 제게 매우 중요합니다. 신앙 없이는 완전한 지식을 얻을 수 없기 때문이죠. 세포가 어떻게 작용하는지를 알게 되더라도 세포나 우리가 왜 이 세상에 있는지를 알지 못한다면 저는 만족하지 못할 겁니다.



우고 이
마르티네스 장로
칠십인 정원회

준비하십시오 그리고 실행하십시오

자신을 준비하여 주님의 사업을 행하면 삶이 달라질 것입니다.

저 는 6년 동안 세미나리를 가르쳤습니다. 세미나리는 매일 아침 여섯 시 푸에르토리코에 있는 저희 집에서 열렸습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매일 수업을 준비한다는 것은 보통 일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배우고자 하는 소망을
지니고 오십시오

저는 즐겁게 준비했고 그로써 교회의 청소년들을 훨씬 더 사랑하는 마음을 키울 수 있었습니다.

저는 학생들이 세미나리에서 얻는 것은 대부분 그들의 준비 여부에 달려 있다는 점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만일 세미나리 수업에서 많이 얻고 싶다면 배울 부분을 예습하고 진심으로 숙고해 볼 것을 권고합니다. 지식에 대한 갈증을 가지고 수업에 오십시오. 언제나 배우고 싶어 하는 어린아이 같은 마음으로 오십시오. 서로 가르치는 일에 참여할 수 있도록 준비하십시오. 질문을 품고 오십시오. 다른 학생이나 수업에서 읽는 성구, 또는 교사의 말에서도 답을 얻을 것입니다.

어떤 공과나 교회 모임에서든 가장 훌륭한 가르침은 여러분이 준비되었을

때 생각으로 주어지는 영의 속삭임을 통해 옵니다. 그러한 생각을 기록하고 실천하십시오. 그리고 이와 관련된 성구나 연자 대회 말씀, 또는 교회 잡지의 기사들을 더 찾아보십시오. 그것들을 머리와 마음으로 숙고해 보고 봉사할 준비를 하십시오. 일단 여러분 내면에 이 진리가 자리 잡고 나면 주님께서 여러분을 도구 삼아 다른 사람들을 도우실 터니 말입니다.

나중에 저는 아내와 함께 선교부 회장으로 봉사하면서 세미나리가 선교 사업을 위한 훌륭한 준비 과정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세미나리에 충실한 학생들이 복음의 놀라운 권능으로 축복받는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그들은 삶에서 고난을 겪을 때 세미나리에서 배운 것들을 적용하며 그 상황을 헤쳐 나갔으며, 심지어

참여할 수 있도록
준비하십시오

저활동 회원이 되었다가도 다시 교회로 돌아왔습니다.

여러분은 주님께 매우 중요한 존재입니다. 정말로 그렇습니다. 청소년들이 할 일은 선교 사업을

준비하고, 그런 뒤 선교 사업을 행하는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은 계속하여 선교 사업을 하고 계속하여 준비함으로써 자신이 더 훌륭한 주님의 선교사가 되도록 인도받고 가르침 받으리라는 점을 이해해야 합니다. 선교 사업을 하는 데 선교사 명찰이 꼭 있어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이 맷은 성약 덕분에 여러분은 이미 가슴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항상 새겨서 달고 다니기 때문입니다.

가족 역사 및 성전 사업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컨대, 제가 봉사하는

여러분은 이 일을
해낼 수 있습니다

카리브 해 지역에서는 가족 역사 상담자로 청소년을 활용하는 스테이크의 경우 성전 사업을 위해 이름을 찾고 성전 사업을 하는 회원들의 비율이 다른 곳보다 더 높습니다. 한 스테이크에서는 선교 사업을 할 나이가 되기 전에 일 년 동안 가족 역사 상담자로 봉사하도록 부름받은 청소년이 스무 명이나 되었습니다. 이 청소년들은 회원들에게 가족 역사를 하는 방법을 보여 주며 가정 방문을 가는 도중에도 만나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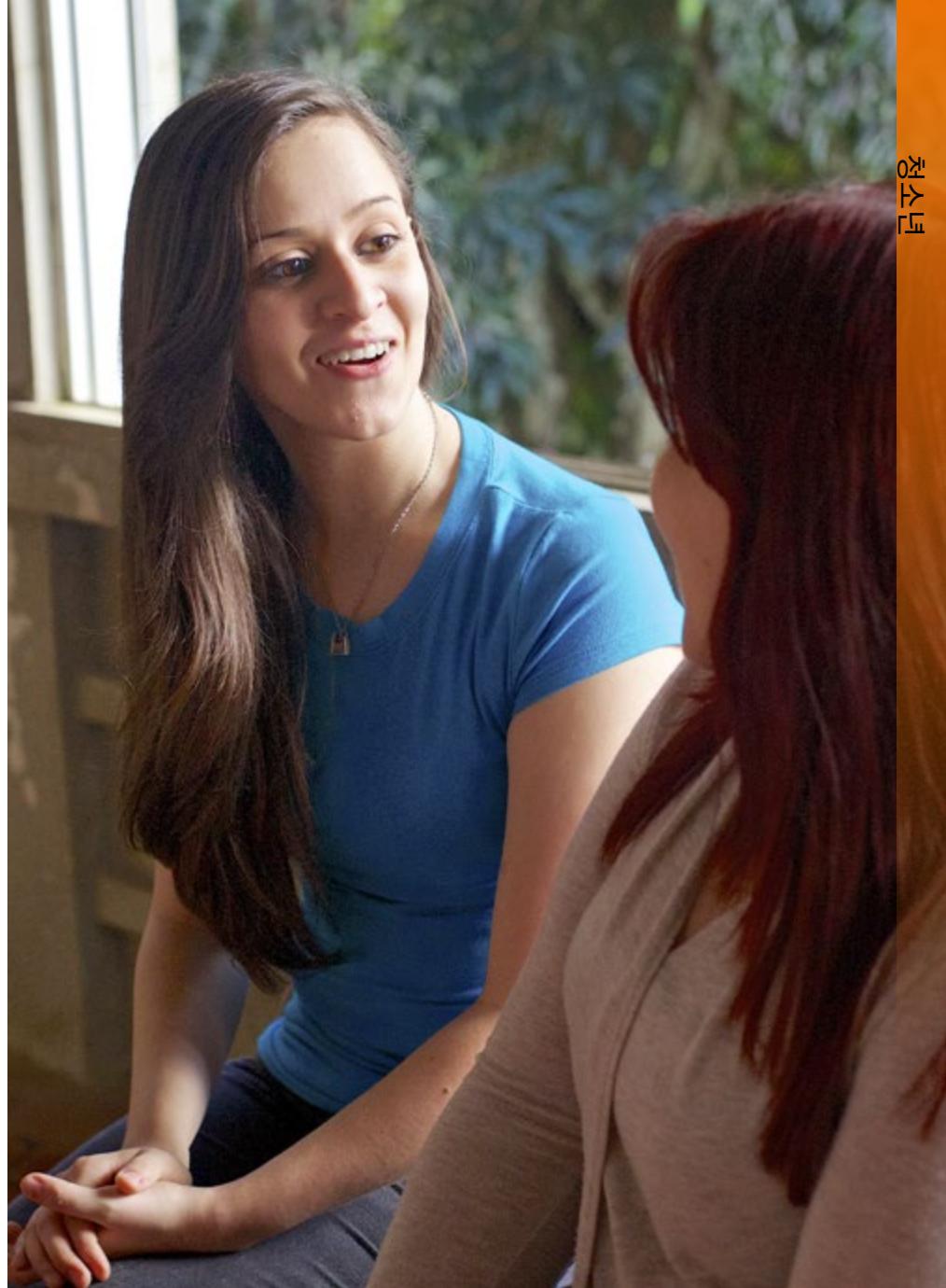
사람들에게 가족 역사와 성전에 관해 이야기를 나눕니다. 이것이 바로 선교 사업입니다!

저는 청소년들이 선교사로 봉사하게 되기 전에 강력한 방법으로 영을 느껴 보기를 바랍니다. 가정에서 느끼게 된다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다고 해도,

이 일은 여러분의 삶을
축복하고 변화시킬 것입니다

청소년 시기에 선교 사업과 가족 역사 및 성전 사업을 하면서 그런 영을 느끼기를 바랍니다. 그런 뒤 선교사 훈련원에 들어가서, “살면서 이렇게 강한 영을 느낀 것은 이곳이 처음입니다.”라고 말하는 일은 없기를 바랍니다. 그들은 그 전에 이미 그분의 영향력을 강하게 느껴 보았어야 합니다.

주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그분은 여러분이 행하는 가족 역사와 성전 사업, 그리고 선교 사업에 대한 이상을 가지고 계십니다. 여러분에게는 능력과 지식이 있습니다. 잘 준비하면, 여러분은 이 일을 해낼 수 있습니다. 이 일은 여러분의 삶을 축복하고 변화시킬 것입니다. ■



구주를 기억하여

에릭 비 머독

교회 잡지

우리는 매주 교회에 참석하여 성찬을 취할 기회를 얻는 축복을 누린다. 사실, 일요일에 교회에 가는 주된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이 때문이다. 그렇다면 성찬식이 그토록 중요한 이유는 무엇일까? 우리는 성찬식에서 한 가지 일을 행하기로 약속한다. 그 일 때문에 성찬식은 교회에서 가장 중요하고도 성스러운 의식 중 하나가 되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는 일이다.

구주를 기억하는 것이 성찬 기도문의 핵심이라는 점을 생각해 보자. 우리는 성찬 기도문에서 “항상 그를 기억[하겠다]”(교리와

성약 20:77, 79)고 약속한다. 일요일만이 아니라 항상 말이다. 항상 구주를 기억할 때 우리의 삶에는 그분의 표준과 가르침이 담길 것이며 강력하고도 지속적인 영향력이 함께할 것이다.

기억함으로써 한 젊은이가 받았던 도움

가령, 하나님의 천사가 앤마 2세에게 회개를 명하자 앤마 2세는 땅에 쓰러져 여러 날 동안 말을 하거나 움직일 수 없었다. 그러는 동안 그는 자신이 지은 죄를 떠올리며 고통스러워했다. 하지만 그때 그는 “[자신의] 부친[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세상의 죄를 위하여 속죄하시려 오실 것에 관하여 백성에게 예언하[는] 것을 들은 것을 기억[해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다. “이제 내 생각이 여기에 미치자, 내가 내 마음 속에서 부르짖기를,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쓰디쓴 담즙에 빠져 있고, 사망의 영원한 사슬에 둘러싸여 있는 나를 궁휼히 여기시옵소서 하였느니라. 그리고 이제 보라, 내가 이 생각을 하였을 때, 내가 더 이상 내 고통을 기억할 수 없었노니”(앨마서 36:17~19)

단지 그리스도를 생각한 것만으로도 앤마는 자비를 구하며 기도할 수 있었고, 이로써 죄책감이 사라지고 고통이 누그러졌으며, 회개에 이를 수 있었다. 우리도 앤마처럼 삶을 그리스도께 맡기고 복음대로 사는 데서 오는 기쁨을 경험할 수 있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속죄 권능을 기억하겠다고 선택하는 데서부터 시작된다.



성찬을 취함으로써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할 때 크나큰
축복이 찾아든다.



다음은 항상 구주를 기억하겠다는 약속을 지킬 때
받게 되는 추가적인 다섯 가지 축복에 관한 설명이다.

1. 그분의 영이 우리와 함께할 것이다

우리는 일요일에 성찬을 취하면서, 그리스도를 기억하고 그분의 계명을 지키며 그분의 이름을 받든다면 항상 그분의 영과 함께하리라는 약속을 되새긴다. 어려움이 가득한 세상에서는 길을 잊기가 쉽다. 그러나 성신을 동반한다면 “성신의 권능으로 [우리]는 모든 것의 참됨을 알게 [될 것이다.]”(모로나이서 10:5) 주님의 영은 우리를 인도하며, 방향을 제시하고 가르침을 주며 보호함으로써 우리를 축복할 것이다.

2. 그분은 우리가 유혹을 견디도록 힘을 주실 수 있다

유혹에 맞설 가장 훌륭하고 확실한 방어책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의 신앙이다.(앨마서 37:33 참조) 우리는 그리스도께 집중할 때 사탄의 거짓을 알아보고 그가 우리를 속이려 하는 것을 간파할 수 있다. 예수께서는 유혹을 직면하시고도 절대 굴복하지 않으셨기에 우리는 유혹을 마주할 때 그분께 의지할 수 있다. 니파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든] 자들은 결코 멸망하지 아니하겠고, 유혹이나 대적의 불화살도 그들을 이[기지] … 못할 것”(니파이전서 15:24)이라고 가르쳤다. 우리가 구주와 그분의 가르침을 기억할 때 그분은 우리를 들어 올리시고 유혹에 맞서 우리를 강화하실 수 있다.

3. 그분의 모범이 우리를 이끌 것이다

예수께서는 영생으로 가는 길을 말로만 알려 주시는 데 그치지 않으시고 친히 길을 이끌어 주신다. 그분은 이렇게 말씀하셨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라.]”(요한복음 14:6)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완전한 모범이시다. 예수께서는 지상에서 성역을 베푸시는 동안 사랑과 온유, 겸손, 연민을 가르치시고 모범으로 보이셨다. 그리고 타인을 가르치고 그들에게 봉사하며 그들을 사랑하는 데 시간을 쏟으셨다.

그분은 모든 면에서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셨다.(요한복음 5:30 참조)

성찬식에 관해 더 읽어볼 자료

구주와 성찬식에 관해 더 알고 싶다면 다음 자료를 읽어 본다.

- 제프리 알 홀런드,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성도의 벗, 1996년 1월호, 67쪽.
- 웨슬리 에이 에스플린, “성찬 - 영혼을 위한 재생”, 리아호나, 2014년 11월호, 12쪽.



또, 모든 면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본으로 세우셨고 당신의 모범을 따르도록 우리에게 권유하신다.

혹시라도 어디로 가야 할지, 무엇을 해야 할지 알지 못하는 상황에 놓인다면 우리는 구주를 기억해야 한다. 그분은 말씀하셨다.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요한복음 8:12)

4. 그분은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봉사하도록 도와주실 수 있다

예수님께서는 늘 다른 사람의 필요 사항을 자신의 필요 사항보다 우선으로 하셨다. 그분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셨다.]”(사도행전 10:38) 병자를 고치시고 이웃을 도우셨다. 우리는 예수님을 기억할 때 그분의 삶을 규정했던 이타적인 봉사의 행위들을 기억하게 된다. 또한, 우리는 다른 사람을 섬김으로써 그분을 섬기라고 명하신 것을 기억하게 된다. “너희가 너희 이웃을 섬길 때 너희는 다만 너희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것임[이니라.]”(모사이야서 2:1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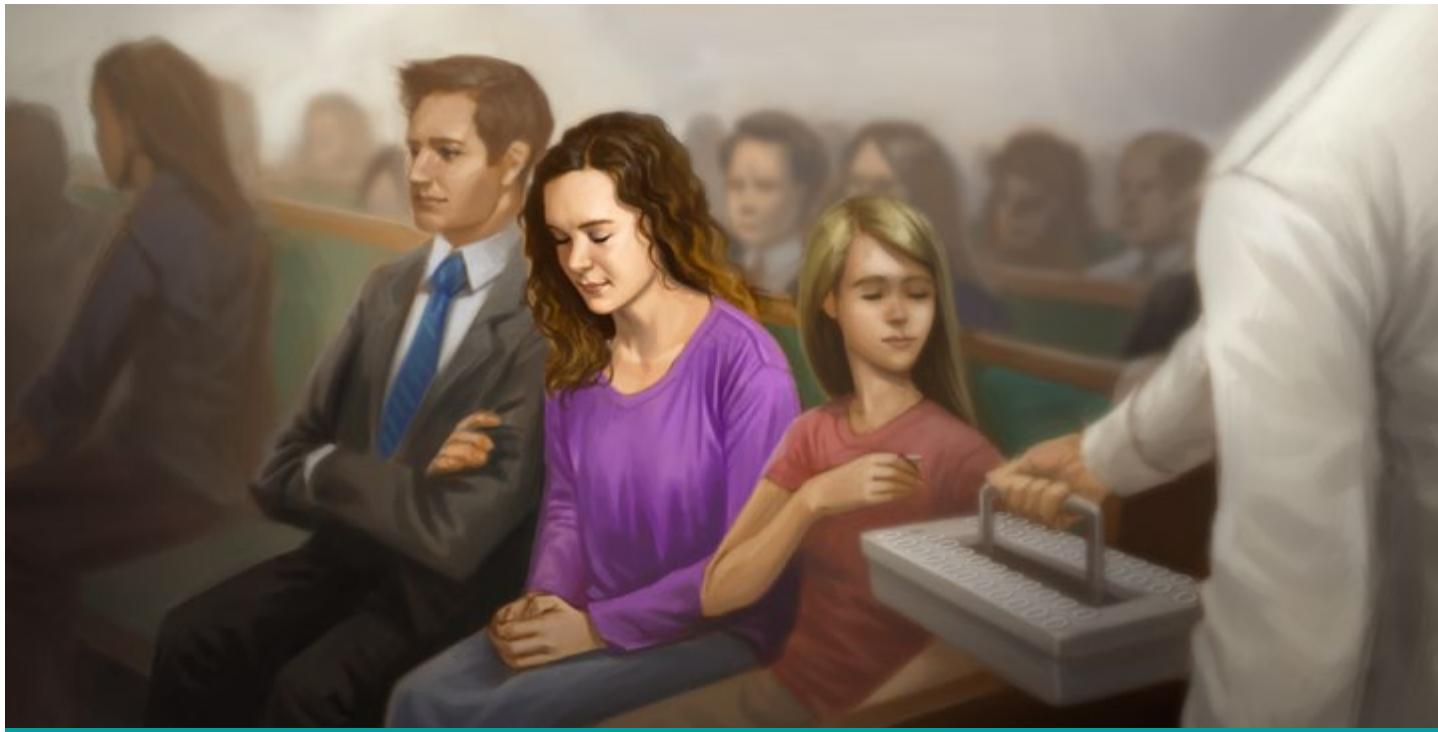
주님께서는 도움이 필요한 주변 사람들을 살필 수 있도록 우리의 눈을 열어 주실 것이다. 또한 우리가 가장 잘 봉사할 수 있는 방법으로 인도하실 것이다. 우리가 친절한 봉사라는 작고 단순한 일을 베풀 때 삶은 더욱 행복하게 되고 보람 있게 될 것이다. 그리고 우리는 다른 사람을 도움으로써 삶에서 화평과 기쁨을 느낄 수 있을 것이다.

5. 우리는 회개할 수 있다

진심으로 노력하더라도 완벽하게 계명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없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사명 덕분에 돌아킬 방법은 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할 때 그분의 속죄로 얻게 된 회개의 은사를 되새길 수 있다. 예수께서는 우리 모두에게 회개를 권하신다. 우리는 죄에서 멀어져 그분께 의지할 때 기쁨을 맛볼 수 있다. 우리가 변화하고자 하며 계명을 지키고자 진지하게 갈망할 때, 주님은 이렇게 약속하셨다. “보라, 자기 죄를 회개한 자, 그는 용서받으며, 나 주가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느니라.”(교리와 성약 58:42)

우리는 성찬을 취하며 항상 구주를 기억하겠다고 약속한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더 많이 기억할수록 그분은 우리 삶의 중심에 더 가까워지실 것이며, 우리가 온전히 잠재력을 발휘하도록 더 많이 가르치고 인도해 주실 것이다. 우리가 항상 구주를 기억한다면 구주께서는 항상 우리 삶을 축복하실 것이다. ■



성찬식의 의미

맥Kenzie 브라운

었다! 서둘러 단정한 치마를 걸치고 머리끈을 집어 든 뒤 교회로 차를 몰아 주차를 하고 안으로 뛰어들어갔다. 휴우! 성찬식을 시작하려고 감독님이 막 일어서시는 순간에 나는 연단에 올라가 앉았다.

그날은 말씀을 할 터여서 빠트린 것이 없는지 적은 내용을 재빨리 쓰 훑어보았다. 눈 깜짝할 사이에 성찬식이 끝났고 나는 주일학교로 향했다. 또 한번 성찬식이 무사히 끝났다!

그런가?

다음 한 주 동안 나는 의문이 들기 시작했다. 다시 일요일이 찾아왔고 성찬식이 진행되는 동안 나에게 성찬식이 어떤 의미인지를 생각하던

차에 불현듯 이런 생각이 들었다. 항상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겠다고 매주 다시 다짐하면서 얼마나 진심으로 그렇게 했는가?

변화가 필요했다. 그래서 주간 계획을 세워 보기로 했다.

- 한 주 동안 시간을 내서 내 행동을 돌아보고 내가 지은 죄에 대해 용서를 구하겠다. 또한, 전주 음악을 듣고 영을 느끼기 위해 반드시 교회에 일찍 도착하겠다.
- 성찬식 동안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속죄를 기억하겠다. 내가 잘하고 잘못한 일을 기도하는 마음으로 돌아보겠다. 스스로 “내가 …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이까” (마태복음 19:20

참조)라고 질문해 보겠다.

- 매주 성찬식이 끝날 때마다 내가 더 나은 사람이 되도록,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할 수 있도록 도움을 구하며 기도하겠다.

이 계획을 따르면서 나는 정말로 성찬식을 사랑하게 되었다! 나는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고 내 삶에 관하여 그분과 대화하는 것이 좋았다. 지난 한 주 동안 내가 한 행동과 관계없이 나는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에, 그리고 변화와 개선의 기회에 감사했다. 이제 나는 성찬식이 일요일만을 위한 것이 아님을 안다. 성찬식은 매일매일을 위한 것이다.

글쓴이는 미국 유타 주에 산다.

마음이 다른 곳에 가 있습니까?

“성찬 준비와 축복, 전달을 요청받거나 성찬을 취할 때,
구주와 여러분을 위한 그분의 속죄 의생에 대해 깊이 생각합니까?”

엠 러셀 밸러드 장로, 십이사도 정원회, “가장 위대한 청년 성인 세대”,
리아이나, 2015년 5월호, 68쪽



세상의 빛이 되는 법을 배우다

빅토르 드 헤수스 크루스 바르가스

나는 도미니카 공화국에서 태어났고 교회 안에서 성장했다. 내가 자라는 동안 내 주변에는 올바른 길을 따라가도록 도와주시려는 훌륭한 지도자들이 곁에 계셨다. 나의 꿈은 선교사로 봉사하고 다른 이들을 돋는 것이었다.

아버지는 우리가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도록 기회를 찾아 미국으로 가셨고, 그래서 어머니는 누이들과 나를 훌륭히 키우셨다. 때로 혼자라는 느낌이 들었지만, 살면서 어려움이 있으면 교회 지도자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눌 수 있었기에 나는 결코 혼자가 아니었다.

나중에 우리가 미국으로 이주했을 때, 나에게 큰 시련들이 찾아왔다. 우리는 작은 지부에 참석했고, 그곳에는 내게 도움을 주고자 하는 훌륭한 지도자들이 있었다. 하지만, 학교 친구들의 영향으로 인해 복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점점 힘들어졌다. 불행히도, 나는 어머니께 불친절하게 이야기하기 시작했고 어머니의 말씀을 잘 듣지 않았다.

매주 일요일 교회에 갔지만, 교회에 가고 싶다는 마음은 정말 없었다. 그리고 내가 정말 선교 사업을 가고 싶은지도 확신이 서지 않았다.

어느 날 아침, 그냥 몰몬경을 펼쳤는데, 내가 제일 좋아하는 경전 구절인 제3니파이 12장 14~16절이 바로 나왔다.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이 백성의 빛이 되라. 산 위에 놓인 성읍이 숨기울 수 없느니라.

보라, 사람이 촛불을 켜서 그것을 말 아래에

두느냐? 아니라, 오히려 촛대 위에 두나니, 이에 그것이 집안에 있는 모두에게 비취느니라.

그러므로 너희 빛을 이 백성 앞에 비취게 하여, 그들로 너희의 선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 경전 구절은 내게 큰 기쁨을 주었다. 세미나리에서 배운 내용과 더불어 하나님 아버지의 계획이 얼마나 오묘한지를 기억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나는 세상에 빛이 되기 위해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결심했다.

나는 사촌 두 명을 교회로 초대했다. 한 명은 저활동이었는데 그 이후로 활동 회원이 되었고, 다른 한 명은 교회 회원이 아니었는데 내가 침례를 줄 수 있었다.

일 년 후에 나는 미국 캘리포니아 주에서 봉사하라는 선교사 부름을 받았다. 봉사하면서 나는 이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복음임을 확실히 배웠다. 사람들을 도우면서 나의 간증은 점점 더 커졌다. 나는 경전을 읽을 때마다 항상 제3니파이에 나오는 그 구절을 암송한다. 내가 세상에 빛이 될 수 있도록 말이다. ■

글쓴이는 도미니카 공화국에 산다.



네가 누구이든

린다 데이비스
실화에 근거함

앤디는 생각했어요. “이런, 난 가족과 인봉받지 못했는데,
그럼 어떻게 되는 거지?”



또 있나요?”

“가족이 성전에서 인봉되면 영원히
함께 살 수 있어요.” 앤리슨이 또
말했어요.

앤디는 생각했어요. “우리 가족은
빼고. 엄마, 아빠는 성전에서 인봉되지
않았으니까!” 갑자기 앤디는 얼굴이
뜨겁게 달아올랐고 눈에는 눈물이 펑
돌았어요.

“앤디, 괜찮니?” 롱 자매님이 물었어요.
“네.” 앤디가 눈물을 참으며
훌쩍였어요. 하지만 남은 공과 시간 내내
가슴이 쿵쾅거렸어요.

“난 하나님의 자녀 날 세상에 보내”

(어린이 노래책, 2쪽)

“종 아.” 앤디는 거울을 들여다보며
생각했어요. 앤디는 가장
좋아하는 빨간색 원피스를 입고 있었죠.
항상 일요일에는 가장 예쁘게 보이고
싶었어요. 앤디는 아침을 먹으려고
아래층으로 뛰어갔어요.

마지막 토스트 한 조각을 마저 먹는
참에 집 앞에서 리더 가족이 자동차
경적을 울렸어요. “엄마, 다녀오겠습니다!
다녀올게요, 아빠!” 이렇게 말한 앤디는
문밖으로 뛰어나가면서 엄마, 아빠에게
뽀뽀했어요.

엄마, 아빠는 교회 회원은 아니었지만
앤디가 매주 교회에 갈 수 있도록 격려해
주셨어요. 리더 가족은 앤디가 침례와
확인을 받은 후로 거의 매주 일요일이면
앤디를 교회까지 태워 주었어요. 리더
가족이 항상 반겨 주고 사랑을 표현해

주어서 앤디는 좋았어요.

성찬식이 끝나고 초등회 시간이
되었어요. 앤디는 롱 형제님 부부가
가르치는 용기반 시간을 아주
좋아했어요. 그분들은 친절하셨고
공과는 항상 최고였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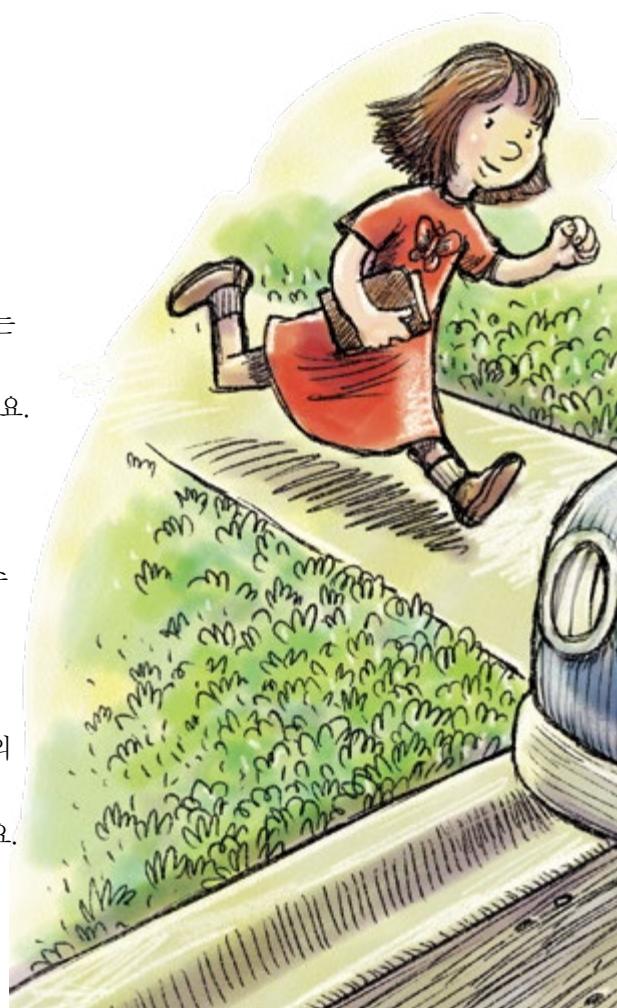
“오늘은 성전에 대해서 이야기할
거예요.” 롱 자매님이 말했어요. “우리는
성전에 대해서 무엇을 알고 있죠?”

앤디는 정답을 한 가지 알고 있었어요.
“대리 침례를 받을 수 있어요.” 앤디는
신이 났어요. 왜냐하면, 매년 와드의
청녀들이 대리 침례를 받으러 성전에
가거든요. 얼마 안 있으면 앤디도 갈 수
있을 거예요!

“훌륭해, 앤디. 또 어떤 것을 알고
있나요?”

“성전에서 결혼할 수 있어요.” 앤디의
친구 앤리슨이 말했어요.

롱 자매님이 말했어요. “아주 좋아요.



공과가 끝나자 롱 자매님이 앤디 곁에 앉으시며 한쪽 팔로 앤디의 어깨를 감싸 주셨어요. “무슨 일이니?” 자매님이 물었어요.

앤디가 말했어요. “저는 우리 엄마, 아빠랑 영원히 함께할 수 없을 거예요. 엄마, 아빠는 성전에서 결혼하지 않았거든요. 저는 죽어서 누구하고 살죠? 엄마, 아빠가 회원이 아닌데도 하나님 아버지가 저를 사랑하실까요?”

롱 자매님은 앤디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셨어요. “네가 누구이든, 또 네 가족이 성전에 가지 않았더라도, 너는

여전히 하나님 아버지의 가족이란다. 넌 그분과 가까이 있을 수 있고 다른 사람들에게 모범이 될 수 있단다. 그분은 언제나 너를 사랑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지켜주실 거야. 어떤 경우에라도 말이야. 그분은 너와 네 가족을 축복해 주고 싶어 하셔. 너는 하나님의 자녀란다, 앤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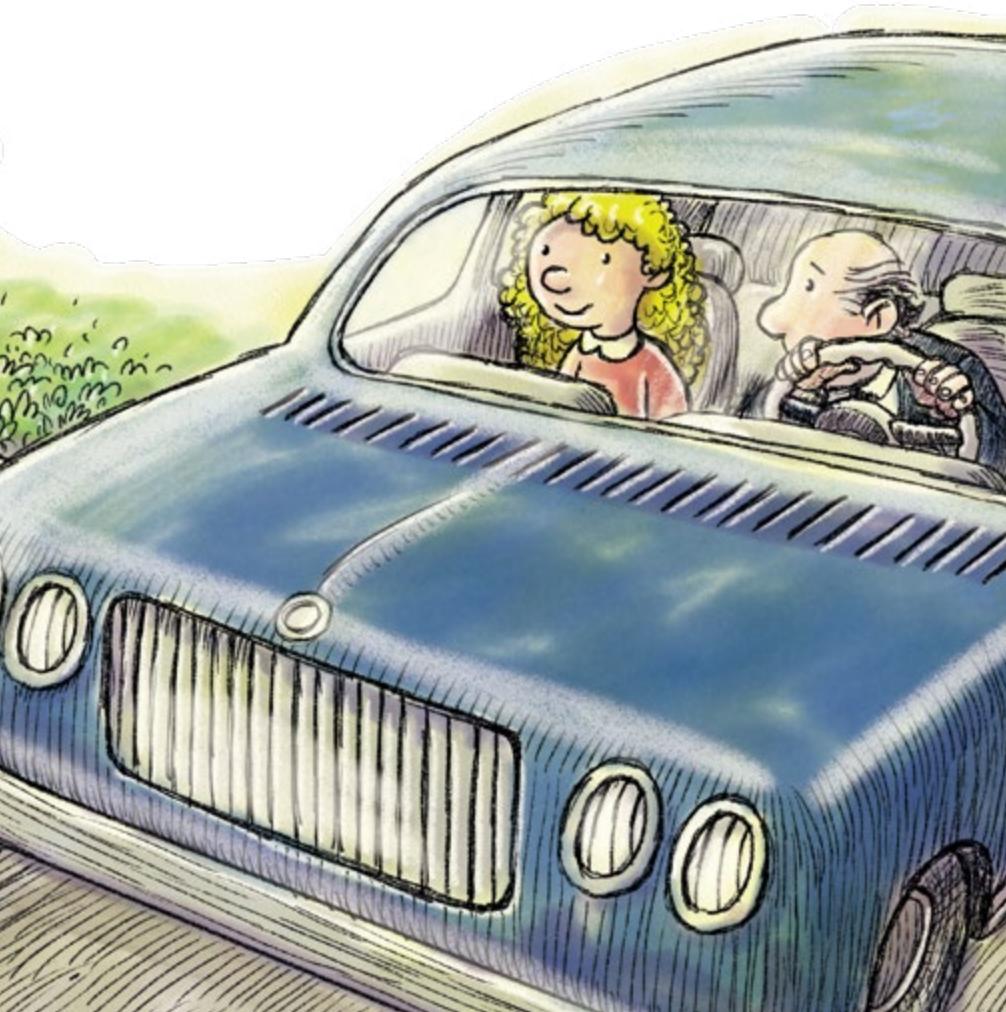
그리자 가슴이 콩닥거리던 것이 곧 차분해졌어요. 대신 이제는 따뜻한 느낌이 앤디의 마음속에 가득 찼어요. 앤디는 자매님의 말씀이 참되다는 것을 알았어요. ■

글쓴이는 미국 유타 주에 산다.

여러분은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부모님이나 가족 중 누군가가 교회의 회원이 되고 싶어 하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 그들도 선택할 자유가 있다는 것과 하나님 아버지가 그들을 사랑하신다는 것을 기억한다.
- 여러분이 그들을 사랑한다는 것을 알려 준다.
- 복음대로 생활하여 그들에게 좋은 모범이 된다.
- 그들의 좋은 점을 모두 기억한다.
- 그들이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느낄 수 있기를,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교회로 인도해 주시기를 기도한다.





클래런스 VS. 챔피언

로리 풀러

교회 잡지

실화에 근거함

향 구가 보이기 시작하자 클래런스는 차창 밖을 바라보았어요. 알록달록한 집과 상점들 앞을 흐르는 물 위에는 배들이 떠 있었어요. 덴마크 코펜하겐은 궁전과 저택, 그리고 공원으로 가득한 아름다운 도시였어요. 클래런스의 고향인 미국 유타와는 전혀 다른 곳이었죠. 클래런스는 어린 시절 달리기 경주를 하던, 먼지 자욱한 거리를 마음 속에 그려 보았어요. 이제 클래런스는 미국 육상팀의 일원이었고, 내일은 중요한 경기에서 덴마크의 유명한 육상 선수와 겨루게 되어 있었죠. 차는 교회 모임이 한창인 작은 예배당

앞에 멈쳤어요.

클래런스가 예배당 뒤쪽에 살짝 들어가 앉았을 때, 연단에 앉아 있던 한 선교사가 다음날 경기를 다룬 뉴스 기사에 나왔던 클래런스를 알아보았어요. 지부 회장님은 클래런스에게 앞에 나와서 말씀을 해 달라고 부탁했어요.

클래런스가 방문한 이유를 말하고 나자 한 소년이 일어서서 손을 들고 물었어요. “덴마크 챔피언을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클래런스는 뭐라고 해야 할지 몰랐어요. 덴마크 선수는 실제로 그해 1,600m 경기에서 기록이 더 좋았어요.

“당연하죠.” 클래런스가 대답하기 전에 한 선교사가 말했어요. “왜냐하면,

형제님은 지혜의 말씀을 지키거든요.”

그 선교사는 교리와 성약 89편을 펼쳤어요. 그리고 지혜의 말씀을 지키는 사람들에게 주어진 약속을 읽어 주었어요. “달려도 피곤하지 아니하며 걸어도 지치지 아니하리라.”(20절)

클래런스가 뭐라고 말할 수 있었겠어요? 클래런스는 지혜의 말씀이 참되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어렸을 때, 항상 그것을 지키겠다고 약속했었죠. 하지만 그것만으로 경기에서 이길 수는 없었어요. 이기려면 연습도 많이 하고 능력도 있어야 했죠. 클래런스는 교회를 나서면서 생각했어요. “어차피 내일 경기에 교회 사람들이 오지는 않을 테니까.”

다음 날 저녁 클래런스가 경기



클래런스의 선택

클래런스 에프 로빈슨은 1948년 하계 올림픽에 나갔고 훌륭한 대학교 육상 코치가 되었어요. 클래런스는 어렸을 때 항상 지혜의 말씀을 지키겠다고 약속했어요. 그는 그렇다 해도 자신이 모든 경기에서 우승하리라고 생각하지는 않았어요. 하지만 깨끗하고 합당하며 신앙이 있을 때, 최선을 다하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신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전에 몸을 풀다 위를 올려다보니 두 명의 선교사와 열일곱 명의 소년들이 보였어요. 다들 정말로 온 거예요!

소년들과 함께 다가온 선교사가 클래런스에게 속삭였어요. “젖먹던 힘까지 내서 달리세요. 꼭 이기셔야 해요.” 소년들 대부분은 교회 회원이 아니었는데, 정말로 지혜의 말씀이 참된지를 보려고 친구들을 따라온 것이었어요.

클래런스는 걱정이 되었어요. 이 경기에서는 아무리 최선을 다해도 충분하지 않을 것 같았죠. 하지만 클래런스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원리를 위해 달리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더욱 반드시 이겨야 했어요. 클래런스는 경기에서 이기게 해 달라고 기도해 본

적은 아직 한 번도 없었지만, 기도하기 좋은 빈방을 찾아서 기도해 보았어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 저는 지혜의 말씀이 참되다는 것을 알아요. 그리고 지혜의 말씀을 어긴 적도 없어요. 제발 이 경기에서 이길 수 있도록 축복해 주세요.” 클래런스는 출발선으로 걸어 나오며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기도를 들으셨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신뢰했어요.

그날 저녁은 비가 와서 땅이 질퍽질퍽했어요. 경기를 시작한 클래런스는 이번이 전에 수없이 달려 본 다른 1,600m 경기와 다르지 않다고 느껴졌어요. 경기는 빠르게 진행되었고 덴마크 챔피언이 앞서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세 바퀴를 마친 클래런스는

갑자기 피로가 가시는 느낌이 들었어요. 클래런스는 더 빨리 달리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힘들지 않았어요. 심지어 좀 더 빨리 달렸는데도 여전히 힘들지 않았어요. 결국 클래런스는 덴마크 챔피언을 앞질렀고 계속해서 빨리 달렸어요.

모퉁이를 돌 때 코치님이 소리쳤어요. “속도를 낮춰! 그렇게 뛰다간 결승선까지 갈 수 없어!” 하지만 클래런스는 계속 뛸 수 있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결승선에 들어와 보니 클래런스는 덴마크 챔피언보다 46m나 앞질러 있었어요. 클래런스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도에 응답하셨기에, 그리고 지혜의 말씀이 참되기에 이길 수 있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

친구와 신앙

멜리사 하트, 미국 유타 주

안녕하세요!

전 이바나예요.

저는 콜롬비아
보고타에서 살고요,
당당하게 친구나
가족들과 복음을
나눠요.

저는 천주교 여학교에 다녀요. 제 믿음 중에는
선생님들이나 친구들의 믿음과 다른 것들이
있지만 다들 저를 존중해 주고 저도 친구들과
선생님을 존중해요. 친구들과 선생님들은 제
종교를 궁금해해요. 그러면 저는 복음을 나누죠.
제 옆에 있는 친구는 루이사예요.



선생님 한 분이 우리가 천주교에서 믿는 것과 같은 것들을 믿는지 물으셨어요. 저는 선생님께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말씀드렸어요. 물론 경과 성경, 교리와 성약에 대해서도 말씀드렸죠.

아빠는 교회 회원이 아니지만 가끔 활동 모임에 오신답니다. 저는 아빠를 “카톨몬”(카톨릭-몰몬)이라고 놀리곤 해요.



학교 친구 한 명을 제 침례식에 초대했는데 정말로 와 주었어요! 침례라는 경험을 그 친구와 나눌 수 있었다는 것이 정말 기뻐요.

이바나가 알려 주는, 자신감을 가지고 당당하게 생활하는 법

웃는다.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교회에서 있었던 이야기를 해 주거나 경전 구절을 나누어 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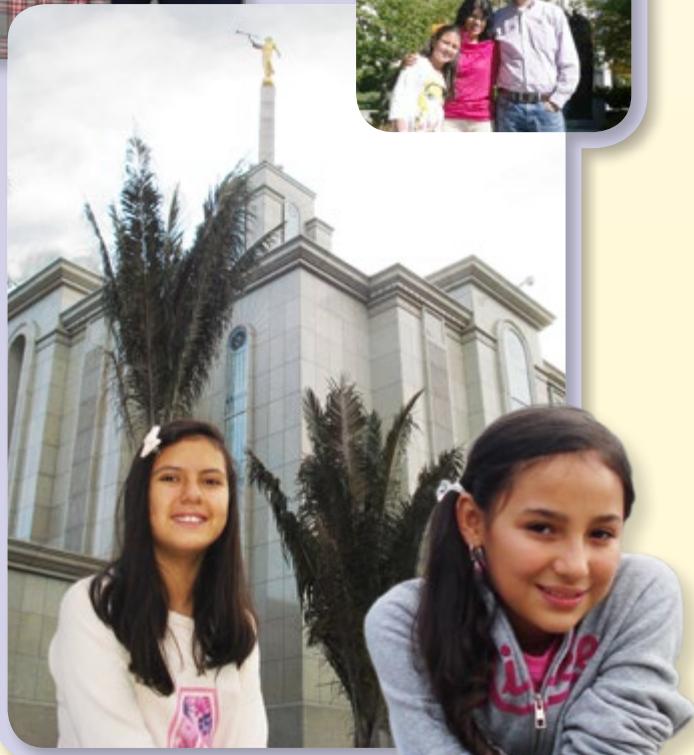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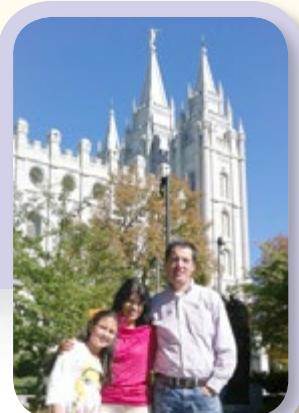
매주 일요일에 교회 모임에 참석한다.

가정의 밤을 한다.

매일 경전을 읽기 위해 노력한다.



우리는 연차 대회에 참석하려고 솔트레이크시티를 방문해서 몬스 회장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그분의 말씀은 참 아름다웠고, 저에게 복음을 가르쳐 주었어요.



콜롬비아 보고타 성전은 아름다워요. 언젠가 저도 그 안에 들어가서 복음을 더 배우고 싶어요. 제 친구 라우라가 저와 함께 갔어요.





엠 러셀 밸러드
장로
십이사도 정원회

선교사는 어떻게 부름받나요?

먼저, 여러분의 감독님과 스테이크 회장님이 여러분을 접견합니다.

다음으로, 십이사도 한 분이 화면으로 여러분의 사진과 정보를 봅니다.



그분들은 여러분의 눈을
자세히 들여다봅니다.

그런 뒤 그분들은 주님의 영의 권능으로 교회의 409개의 선교부 중 한 곳을 여러분이 갈 곳으로 결정합니다.

“가장 위대한 청년 성인 세대”, 리아호나, 2015년 5월호, 67~70쪽에서 발췌.

엄마, 아빠가 말다툼하시면 몹시 걱정되고 슬퍼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할 수 있어요.
저는 그렇게 하면 항상 기분이
나아져요.
헤이든 에이치, 6세, 캐나다 앨버타



엄마, 아빠를 기쁘게 해 드리려고
농담을 하기도 하고 학교에서 어떻게
지내는지 이야기하기도 해요. 부모님이
웃기 시작하시면 제가 옳은 일을
했다고 성신이 말해 주는 느낌이
들어요.
엘레나 엠, 12세, 미국 캘리포니아 주



맥스: 저는 엄마, 아빠를 꼭 안아
드리고 초등회 노래를 불러 드려요.
엄마, 아빠가 예수님을 기억할 수
있게요.



게이브: 해의 왕국에서 가족이 함께
있는 그림을 그려서 부모님의 기분이
나아지게 해 드리세요.
맥스와 게이브 시, 6세와 10세, 인도
고치



엄마, 아빠가 어려움을 이겨 낼 수
있게 도와 달라고 기도할 수 있어요.
그리고 기분이 좋아지도록 찬송가를
흥얼거려요.

애디슨 에스, 10세, 미국 워싱턴 주



형과 동생들이랑 우리끼리 방으로 가서
태버내클 합창단의 노래를 들어요.
그렇게 하니 마음이 편안해졌어요.
벤 엠, 11세, 오스트레일리아 브리즈번



부모님이 다투시면 두 분을 도와
달라고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해요.
그래서 엄마, 아빠가 영을 느끼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요.
에단 엠, 11세, 미국 캘리포니아 주

다음 질문

“금식을 시작할 수 있는 나이가 되었는지 어떻게 알 수 있나요?”

여러분은 어떤 이야기를 해 줄 수 있나요? 2016년 7월 31일까지
여러분의 이야기와 사진을 보내 주세요. liahona.lds.org에서
온라인 상으로 제출하거나 liahona@ldschurch.org로 이메일을
보내 주세요. (이메일 제목에 “Question Corner”라고 써 주세요)
부모님의 허가서도 같이 보내야 한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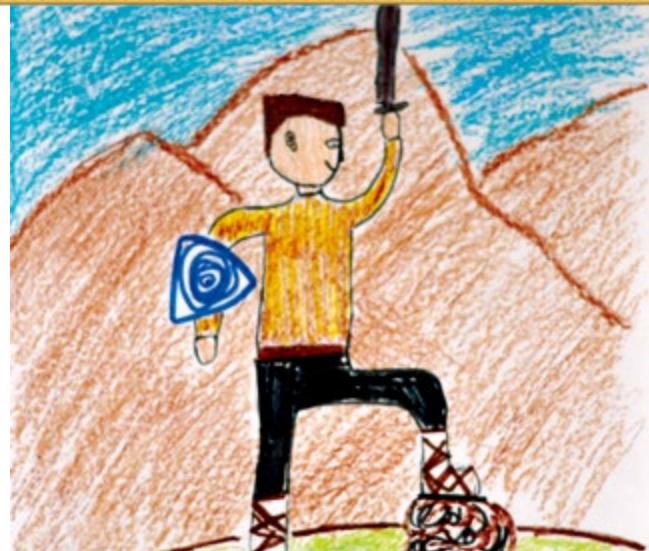
용감한 모로나이 장군

모로나이 장군은 니파이 백성의 군대를 이끌었어요. 그는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순종했어요. 그리고 니파이 군사들이 레이맨인들과 맞서 자신들을 지키도록 도와주었죠. 모로나이 장군은 백성들이 하나님 아버지의 축복을 기억하게 해 주었어요. 그리고 그들이 용감해질 수 있도록 그들에게 가족과 자유를 되새겨 주었어요.



학교에서 여러 친구들이 좋지 않은 언어를 사용하는데, 그런 말을 들으면 마음이 불편해져요. 저는 제가 용기를 내고 가장 좋은 방법을 알 수 있도록 엄마와 함께 기도했어요. 그리고 다음 날 친구들이 그런 말을 하자 저는 예의 바르게 말했어요. “부탁인데 그런 말은 하지 말아 줘. 듣기가 불편하거든.” 친구들은 “그래, 미안해.”라고 했어요 저는 마음이 행복해졌어요. 그리고 제가 도움을 구하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도와주리라는 것을 배워서 기뻤어요.

벨라 티, 10세, 미국 버지니아 주



그랜트 엘, 10세, 미국 플로리다 주



이 도전 카드를 잘라서 접은 뒤 보관하세요!

모로나이 대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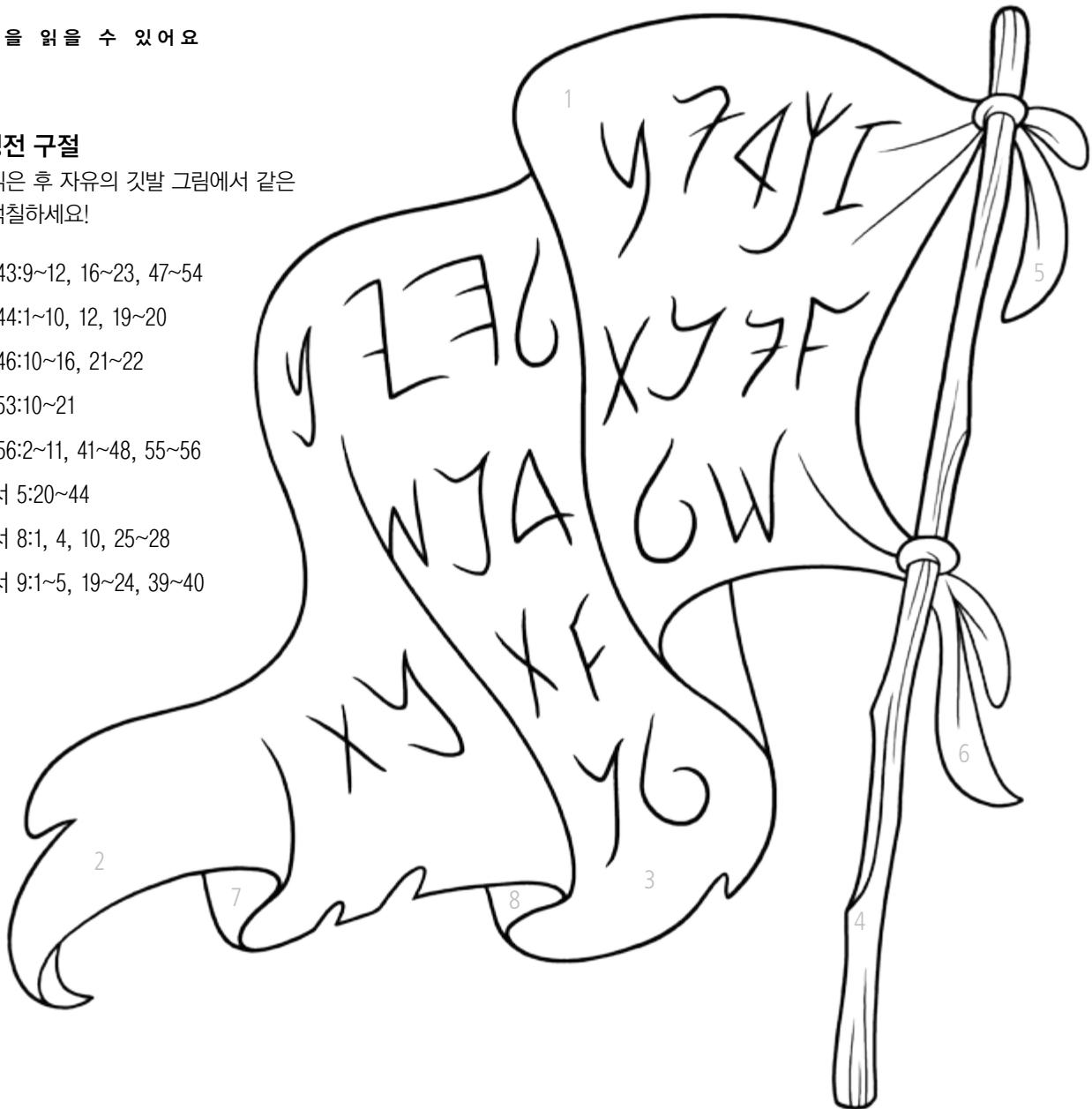
나도 용감해질 수 있어요!

- 앨마서 48장 11~12절을 외우고 17절을 읽는다.
- 걱정이나 두려움을 느끼는 친구가 있으면 용기를 내도록 도와준다.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여러분의 간증을 그 친구에게 나눈다.
- scripturestories.lds.org에서 몰몬경 비디오 31~33편, 35편을 시청한다.
- 아래에 나만의 목표를 세우고 실천한다.

이번 달의 경전 구절

경전 구절을 읽은 후 자유의 깃발 그림에서 같은 번호를 찾아 색칠하세요!

1. 앨마서 43:9~12, 16~23, 47~54
2. 앨마서 44:1~10, 12, 19~20
3. 앨마서 46:10~16, 21~22
4. 앨마서 53:10~21
5. 앨마서 56:2~11, 41~48, 55~56
6. 힐라맨서 5:20~44
7. 힐라맨서 8:1, 4, 10, 25~28
8. 힐라맨서 9:1~5, 19~24, 39~4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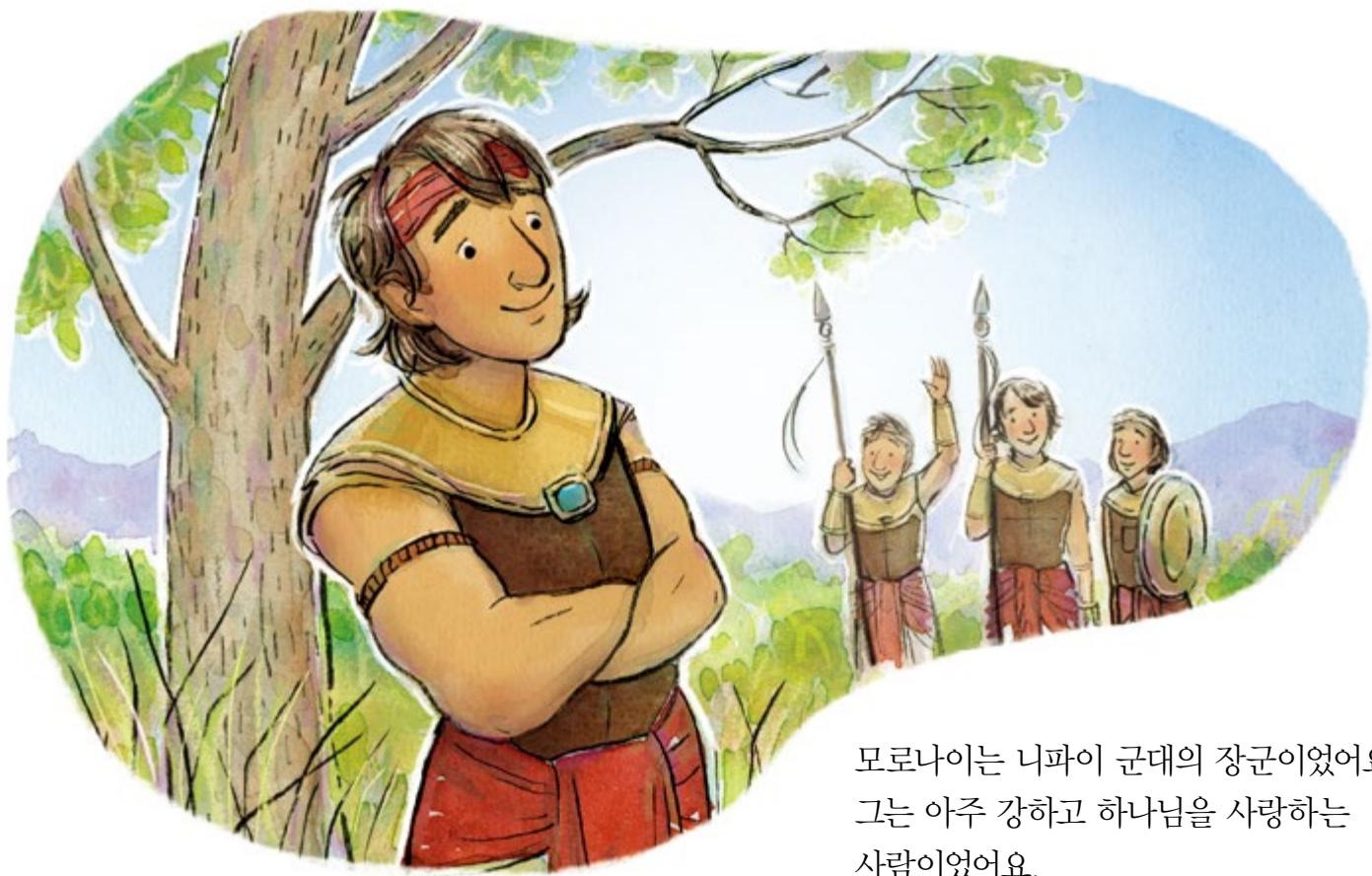


자유의 깃발

로나이는 가정과 가족을 지키기 위해 레이맨 백성에 맞서 니파이 백성을 이끌고 전쟁을 치렀어요. 모로나이 장군은 곁옷을 벗어 “자유의 깃발”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니파이 백성들이 무엇을 위해 싸우는지 기억하도록 그 위에 ‘우리의 하나님과 우리의 종교와 자유와 우리의 평화와 우리의 아내와 우리의 자녀를 기억하여’(앨마서 46:12)라는 특별한 메시지를 적었어요. 이 내용을 더 알고 싶다면 76쪽을 읽어 보세요. 다음 호의 읽기 과제도 기대하세요! ■

모로나이 장군의 깃발

오래 전, 한 사악한 왕이 살았어요. 왕은 니파이 백성들을 통치하고 싶어했죠.



모로나이는 니파이 군대의 장군이었어요.
그는 아주 강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었어요.



모로나이 장군은 사악한 왕의
군대로부터 백성들을 지키고 싶었어요.



그래서 백성들을 위해 깃발을 만들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모로나이 장군의 깃발 덕분에 백성들은 하나님을 따르고
가족을 지켜야 한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었어요.
그들은 다시 평화를 찾았답니다. ■

개척자 어린이들에 대해 들을 때면

확신을 가지고 ♩ = 120-126

작사 및 작곡
제니스 캠 페리

Chorus:

C D m⁷ C F G

1. 나 개 척 자 어 린 이 들 의 신 양 과 용 기 닮 배 고 우
2. 나 개 척 자 어 린 이 들 의 신 양 과 용 기 닮 배 고 우

Bass line:

Verse 1:

C F Dm C

리 어 나 충 그 실 들 한 처 후 럼 기 순 성 종 도 하 되 고 려 주 모

Verse 2:

G D⁷ G C D m⁷

님 든 만 계 을 명 바 지 라 키 보 리 라 그 나 들 도 처 나 럼 의 선 후 지 손 자 들

Verse 3:

C F E⁷ Am

파 에 라 계 시 빛 온 의 을 모 건 범 설 돼 하 주 리 리 라 라 힘 나

Verse 4:

F C D m⁷ G⁷ C

듣 주 일 계 과 서 시 바 련 라 있 고 어 계 도 신 신 그 양 련 으 개 로 척 극 자 복 되 하 리 리 라



보이드 케이 패커
회장(1924~2015)
십이사도 정원회 회장

영적인 악어

“믿을 수 없어요.” 제가 말했습니다.
“저기에는 악어가 한 마리도 없는 걸요.”

저 는 늘 아프리카에 가서 동물들을 보고 싶어 했는데 드디어 그 기회가 왔습니다. …

우리는 물웅덩이에 차를 세워 동물들이 물을 마시러 오는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계절이 몹시 가문 때여서 그곳에는 물이 그리 많지 않았고, 그저 진흙 웅덩이 정도였습니다. 코끼리가 부드러운 진흙을 밟으면 그 움푹 들어간 곳으로 물이 스며나왔고, 동물들은 코끼리가 지나간 자리에 고인 물을 마셨습니다.

영양들은 특히 조심성이 많았습니다. 그들은 조심스럽게 진창 웅덩이에 왔다가 깜짝 놀라서 재빨리 돌아서서 도망가 버렸습니다. 나는 그곳에 사자도 없는데 영양들이 왜 물을 마시지 않느냐고 인솔자에게 물었습니다. 그의 대답은 제게 교훈이 되었습니다. “악어 때문이죠.”

저는 그가 농담하고 있구나 생각하고 다시 진지한 태도로 물었습니다.

“왜 도망을 간다고요?” 그는 똑같이 대답했습니다. “악어 때문이에요.”

“믿을 수 없어요.” 제가 말했습니다.
“저기에는 악어가 한 마리도 없는 걸요.” …

그는 제가 그를 믿지 않는다는 것을 알자 저에게 가르침을 주려고 마음먹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는 차를 몰고 그 진창 웅덩이가 내려다보이는 둑이 있는 곳으로



갔습니다. “저쪽이에요.” 그가 말했습니다.
“직접 한번 보세요.”

물이 약간 고여 있는 진창과 멀리서 조심스레 서 있는 동물들 외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갑자기 뭔가가 보였습니다! 그것은 진창 속에 숨어 목이 바싹 마른 동물이 무심코 물을 마시려 오기를 기다리고 있는 악어였습니다. …

그 인솔자는 자신이 맡은 책임 이상으로 제게 친절하게 설명해 주었습니다. “악어 때문이죠.”라는 그의 말에 제가 “나도 다 알아요.”라는 태도를 보이자, 그는 “가서 직접 한번 보시죠!”라고 권유해 주었던 것입니다.

분명 제 눈에는 악어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저는 스스로 너무 확신한 나머지 거기에 뭐가 있다는 것인지 직접 확인하려 나가 볼 수도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 교만한 생각은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저에게 사실을 알려 주기 위해

참고 기다렸습니다.

청소년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여러분을 인도하는 분들과 대화할 때 이 경험 속의 저보다 더 이해롭기를 바랍니다. 나 자신이 모든 것을 안다는 오만한 생각은 분명 제게도, 또 여러분에게도 합당하지 않은 생각입니다. 그 경험은 제게 자랑스러운 일은 아니며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기 부끄럽기도 하지만, 여러분에게 도움이 될까 하여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인생에서 여러분보다 앞서 살았던 사람들은 물웅덩이를 살펴보았기에 악어에 대해 경고의 음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그 커다란 회색빛의 악어는 여러분을 물어뜯어 갈가리 찢을 테지만, 영적인 악어는 특히 더 위험하고, 더 기만적이며, 심지어 위장술이 뛰어난 아프리카의 악어보다 눈에 더 잘 띠지도 않습니다.

이 영적인 악어는 여러분의 영혼을 사망에 이르게 하거나 치명적인 해를 입힐 수 있습니다. 그것들은 여러분이 지닌 마음의 평화와 여러분을 사랑하는 이들이 지닌 마음의 평화까지도 파멸시킵니다. 그것들이 바로 경고의 대상이며, 이 지상 생활에서 그러한 영적인 악어가 우글거리는 곳은 곳곳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

다행히도 우리에게는 기꺼이 권고를 받아들이기만 하면 삶에서 그러한 문제가 일어나지 않도록 해 주는 훌륭한 안내자가 있습니다. ■

From “Spiritual Crocodiles,” Ensign, May 1976, 30-31.

통찰



우리는 어떻게 적대적인 세상에서 번영할 수 있습니까?

“그야말로 소동이 한창인 이 적대적인 세상에 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인 우리 한 명 한 명은 구주의 사랑에 뿌리 박고 겸손히 그분의 가르침을 따를 때 무럭무럭 자라 꽃을 피울 수 있습니다.”

쿠엔틴 엘 쿡 장로, 십이사도 정원회, “주는 나의 빛”, 리아호나, 2015년 5월호, 63쪽.

그 밖에도 이번 호에는

청년 성인

44쪽



조기 귀환에 관한 대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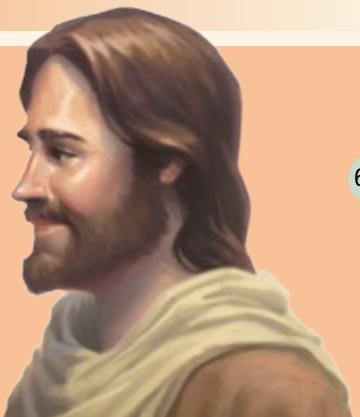
선교 사업에서 조기에 귀환한 일은 끔찍했다. 하지만 다음 여섯 가지에 집중함으로써 나는 앞으로 나아갈 수 있음을 알게 되었다.

청소년

60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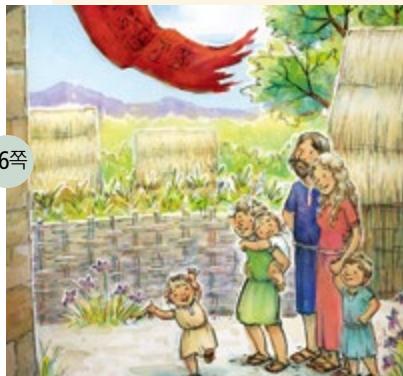
구주를 기억하여

매주 우리는 항상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겠다는 약속을 맺는다. 그 약속을 지킬 때 우리는 매일 축복을 받을 수 있다.



어린이

76쪽



모로나이 장군의 깃발

모로나이 장군은 그의 백성이 그들의 가족과 하나님과 같이 가장 중요한 것들을 기억하도록 돋기 위해 깃발을 만들었다. 여러분은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들을 어떻게 기억하는가?

리아호나 잡지에 관한 의견을 보내시려면 liahona@ldschurch.org로 이메일을 보내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